

墓

表



이의번 문인석

## 이 곤(李坤) 묘표

所在地…盆唐區 板橋洞 山 25-1

建立年代…朝鮮 明宗 14年(1559)

撰…李 倣

規 模…總高…165cm、碑高…89cm、幅…59cm、厚…18cm

材 質…冠石…大理石、碑身…大理石、臺石…花崗岩

이 곤 묘표는 관교에서 안양으로 가는 342번 국도에 위치한 낙생초등학교(樂生初等學校) 앞산 동남쪽에 있다.

1559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관석(碑座冠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관석 앞면 문양은 태양 속에 삼족오(三足鳥)가 있는데 운문(雲紋)에 감싸여 있고, 뒷면에는 운문 가운데 연꽃의 꽃잎이 피어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관석과 비신은 통비(桶碑)이고 대석의 문양은 마멸이 심해 판독하기가 어렵다.

비문은 손자 이 숙(李倣)이 짓고, 비를 세웠으며, 앞면 글씨의 자경(字徑)은 8·0cm이고, 음기(陰記)의 자경은 2·0cm의 해서(楷書)이다.

비의 마멸 상태는 뒷면이 심해 일부 판독이 난해한 곳과 총탄 흔적 3곳이 있으며, 묘소는 정부인 문화유씨(文化柳氏)와 합장.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장명등·문인석이 있다. 그리고 1981년에 건립된 비좌 개석의 묘표가 있고, 별묘(別廟)는 이 도(李倣)의 묘소 아래에 있다.

이 곤(1462-1524)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정(子靜). 호는 녹창(鹿窓). 형조·호조판서 귀산(貴山)의 고손. 병조참의 연안군(延安君) 인문(仁文)의 아들이다.

1483년(성종 14)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492년(성종 2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직 받았다. 1498년(연산군 4) 병조좌랑

·사간원 헌납을 지냈으며,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윤은보(尹殷輔)와 함께 장(杖) 70의 처벌을 받았다.

1506년(중종 1) 중종반정 때 공을 세워 분의정국공신(奮義靖國功臣) 4등이 되면서 연성군(延城君)에 봉해졌다. 1511년(중종 6) 첨지중추부사로 관압사(管押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밀양부사가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중종 14) 대사헌 조광조(趙光祖), 대사간 이성동(李成童) 등의 정국공신에 대한 삭훈(削勳)조치로 같은 해 11월 삭록(削錄)되었다. 기묘사화 이후 다시 철원부사·여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 곤 묘소 전경



묘표[구비]



묘표 비문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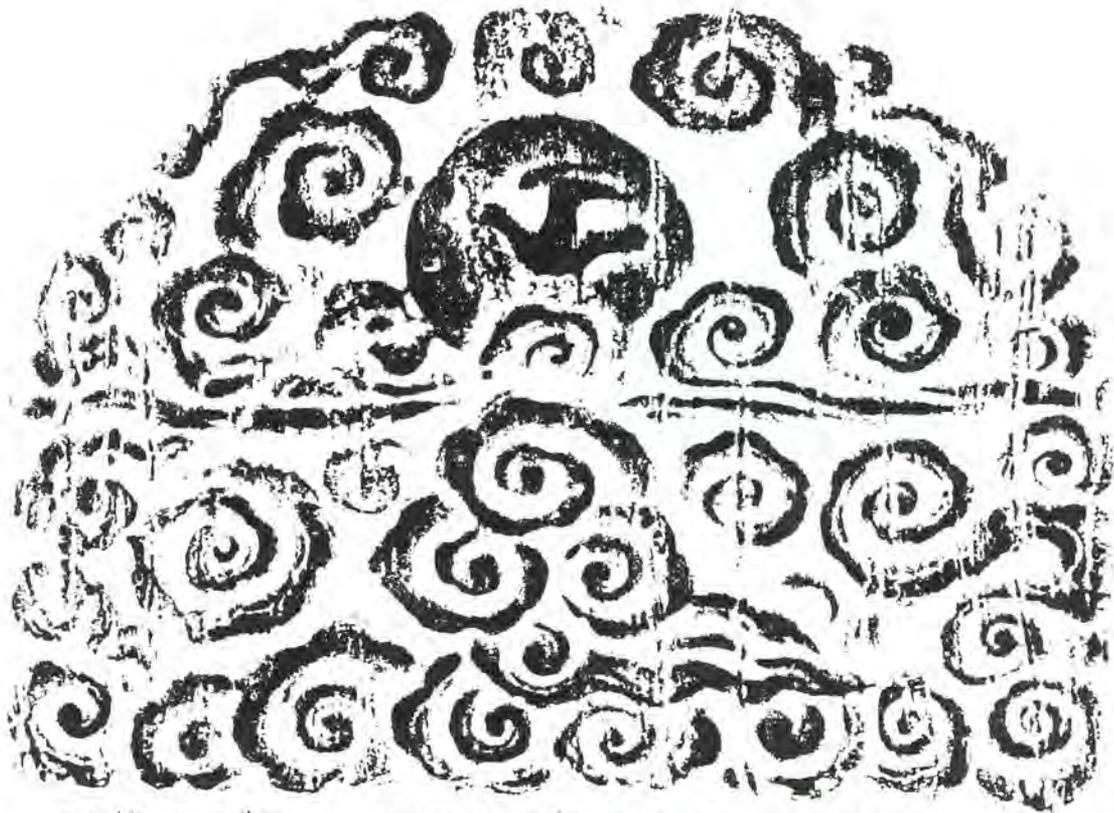
관석[삼죽오]



문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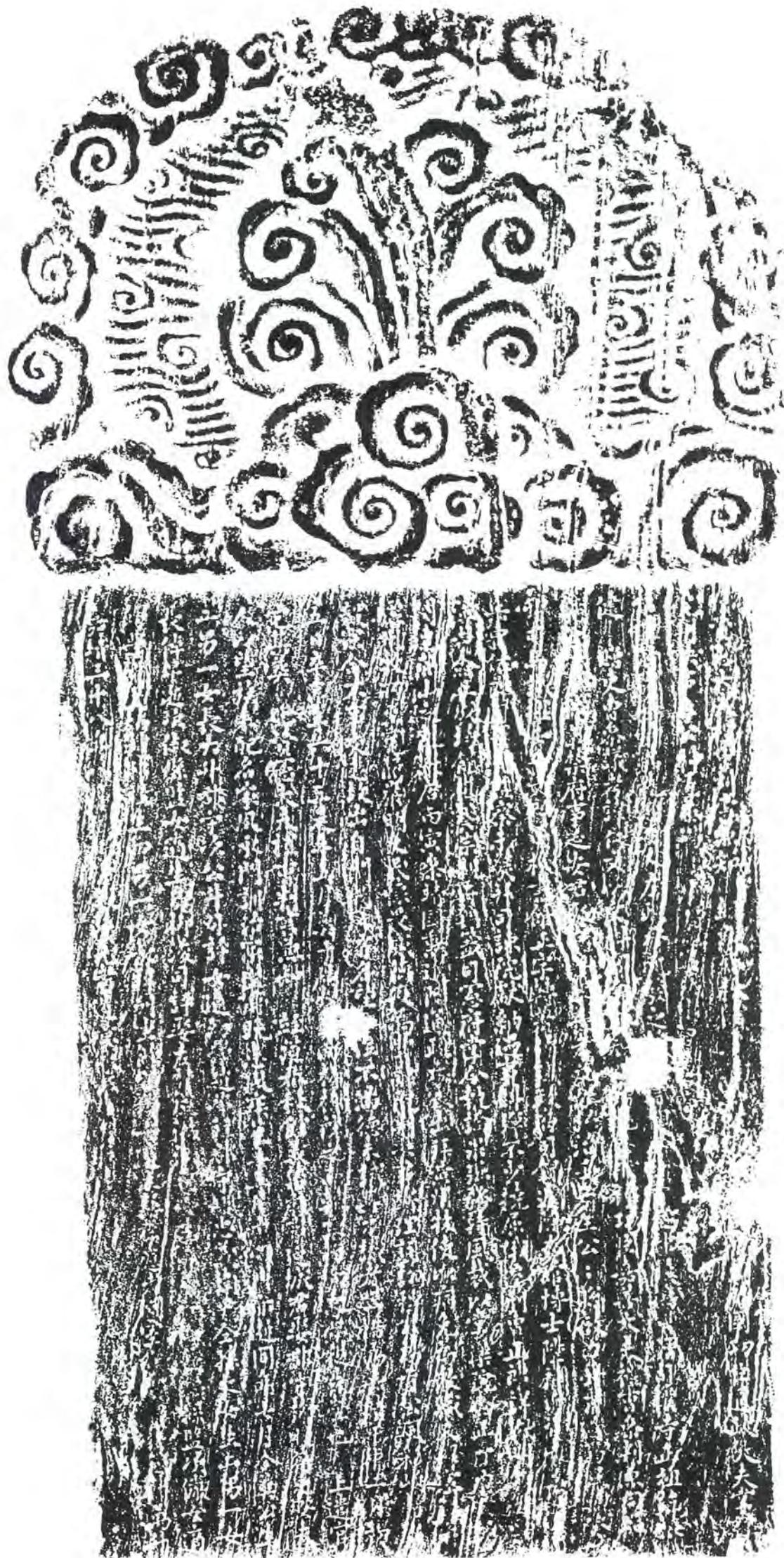


문인석[측면]



賈夫人文化柳氏之墓  
 財貨憲大夫禮曹判書  
 兼知經筵春秋館義  
 禁府事延城君行奮義  
 靖國功臣通政大夫掌  
 隸院判決事李公之墓

59×137



## 【前 面】

貞夫人文化柳氏之墓

贈資憲大夫禮曹判書

兼知 經筵春秋館義

禁府事延城君行奮義

靖國功臣通政大夫掌

隸院判決事李公之墓

## 【後 面】

贈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義禁府事延城君行奮義靖國功臣通政大夫掌隸

院判決事李公墓表

公諱坤字子靜其先延安人左政丞元發之後也曾祖諱續官至都鎮撫 贈司僕寺正祖諱根

健 贈吏曹參議考諱仁文 文科官至僉知 贈純忠輔祚功臣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

經筵春秋館義禁府事延安君娶判書李長孝之女弘治壬午生公公聰敏力學甫過弱冠中癸

卯司馬試擢壬子文科由校書館正字轉著作議政府司錄還除本館博士陞拜內資寺主簿歷

兵曹佐郎司憲府監察未幾拜司諫院獻納遇事糾彈不少撓屈俄遷刑曹正郎詳讞明敏陞司

僕寺僉正成均館司藝宗親府典籤司憲府掌令執論果強務持風裁以掌樂院僉正丁內艱服

闋遭燕山之亂散居丙寅參靖國勳進陞通政大夫出拜黃州牧使以病免爲散職又拜密陽府

驪州牧所至寬簡嚴明吏民懷畏威德及爲掌隸院判決事斷理詞訟稱公爲首公風彩峻整嚴

毅寡合不事交遊故出自門閥又有名望而位不滿德未試其才識者嗟惜焉嘉靖甲申二月初

五日卒享年六十三是年五月葬于廣州洽南板橋院之西乾坐丙向之原從先塋也 上遣官

宅其葬 贈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義禁府事延城君娶郡守柳順行之女夫

人以望族來配名家夙承門訓治家整肅晚患風疾是年五月十四日亦逝同年七月合葬公生

二男一女長大升郡守次公升司評女適幼學趙邦柱郡守娶忠義衛尹全孫之女生二男一女

長倬早逝次倬縣監女適生員柳浚司評娶左贊成洪淑之女生二男一女長侃縣監次儼女適  
幼學李文炳趙邦柱生四男一女長禕別坐餘皆幼女適主簿李應老側室亦有二男復升萬升  
嘉靖三十八年八月 日孫倬遵先考遺意刊立

## 【譯 文】

정부인문화유씨지묘 증자현대부에 조판서겸지 경연춘추관의금부사연성군행본의정국공신통정대부장례원관결사이공지묘

증자현대부 예조판서 겸 지경연 춘추관 의금부사 연성군 행 본의정국공신통정대부 장례원관결사 이공(李公) 묘표

공은 이름은 곤(坤), 자는 자정(子靜)이시고, 그 선대는 연안(延安) 사람으로 좌정승(左政丞)을 지낸 원발(元發)의 후예이다. 증조부는 이름이 속(續)인데, 벼슬이 도진무(都鎭撫)에 이르러 사복시 정(司僕寺正)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는 이름이 근건(根健)인데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름이 인문(仁文)으로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이 첨지(僉知)에 이르러는 동시에 수홍보조공신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동지경연 춘추관 의금부사(純忠輔祚功臣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經筵春秋館義禁府事)에 추증되고 연안군(延安君)에 추봉되었는데, 판서(判書) 이장효(李長孝)의 따남에게 장가들어 홍치(弘治) 임오년(壬午年)에 공을 낳으셨다.

공은 총민(聰敏)한 자질로 학문에 힘쓰시어, 겨우 약관의 나이를 지나서 계유년(癸酉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시고, 임자년(壬子年) 문과에 뽑힌 다음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로 말미암아 저작(著作)에 이어 의정부 사록(議政府司錄)으로 전직되었다가 도로 본관(本館)·校書館의 박사(博士)에 임명되었다. 이어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로 승진되신 다음 병조 좌랑(兵曹佐郎),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셨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었는데, 사건을 만나 규탄하실 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조급 후에 형조 정랑(刑曹正郎)으로 전직되시서는 죄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일을 매우 명민(明敏)하게 하셨다.

계속 승진하여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 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을 역임하셨는데, 특히 사헌부 장령으로 계실 때에는 강경하게 논집(論執)하여 언관(言官)의 품위를 애써 지키셨다.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으로 계실 때에 내간상(內艱喪)·모친상을 당하셨고, 복을 벗고 나서서는 연산군의 난정(亂政)을 만났기 때문에 한산(閑散)한 생활을 하셨다. 그러다가 병인년(丙寅年)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참여를 계기로 다시 벼슬에 나가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하여 황주목사(黃州牧使)를 임명받아 나가셨다가 병으로 면직되어 산직(散職)·散官 생활을 하셨다.

뒤에 또 밀양부사(密陽府使)와 여주목사(驪州牧使)에 임명되었는데, 부임해 가시는 곳마다 너그럽고 간소하고 엄격하고 투명한 정사를 펼쳤기 때문에 아전들은 공의 위엄을 무서워하고 백성들은 공의 덕을 사모하였다. 뒤에 장례원관결사(掌隸院判決事)가 되시서는 사송(詞訟)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처결하셨으므로 명판관을 꼽을 때에는 공을 으뜸으로 쳤다.

공은 풍채가 준수하고 성격이 엄격해서 남과의 의기투합한 일이 적고, 또한 교유(交遊)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 때문에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게다가 명망까지 높으셨지만, 관직이 덕에 차지 못하여 그 재주와 지식을 시험해보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안타깝고 애석하다.

가정(嘉靖) 갑신년(甲申年) 2월 초 5일에 작고하시니, 향연 63세였다. 이 해 5월에 광주(廣州) 읍소재지 남쪽에 위치한 판교원(板橋院)의 서쪽 건좌명향(乾坐丙向)의 자리에 장례를 모셨으니, 선영(先塋)을 따른 것이다. 임금은 관원으로 하여금 장례를 돕게 하였고, 따라서 공에게 자현대부 예조 판서 겸 경연 춘추관 의금부사(資憲大夫禮曹判書兼經筵春秋館義禁府事)를 추증하는 동시에 연성군(延城君)에 추봉하였다.

공은 군수(郡守) 유순행(柳順行)의 따남에게 장가드셨다. 부인께서는 망족(望族)·명망 있는 집안)으로 명가(名家)에 오셔서 배필이 되셨는데, 일찍이 가훈(家訓)을 받으셨기 때문에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하셨다. 만년에 풍질(風疾)을 앓으셨는데, 이 해 5월 14일에 또한 서거하셨으므로 같은 해 7월에 합장하였다.

공은 2남 1녀를 낳으셨는데, 장자인 대승(大升)은 군수(郡守)가 되시고, 차자인 공승(公升)은 사평(司評)이 되셨으며, 딸은 유학(幼學) 조방주(趙邦柱)에게 시집가셨다.

군소공은 충의위(忠義衛) 윤동손(尹東孫)의 따남에게 장가드시어 2남 1녀를 낳으셨는데, 장자인 탁(倬)은 일찍 서거하고, 차자인 숙(倣)은 현감(縣監)이 되었으며, 딸은 생원(生員) 유준(柳浚)에게 시집갔다. 사평공은 좌찬성(左贊成) 홍숙(洪淑)의 따남에게 장가드시어 2남 1녀를 낳으셨는데, 장자는 간(侃)으로 현감(縣監)이 되고, 차자는 엄(儼)이며, 딸은 유학(幼學) 이문병(李文炳)에게 시집갔다. 조방주는 4남 1녀를 낳았으니, 장자인 위(緯)는 별좌(別坐)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 어리며, 딸은 주부(主簿) 이응로(李應老)에게 시집갔다. 소실에게도 2남이 있으니, 복승(復升)과 만승(萬升)이다.

가정(嘉靖) 38년 8월 일예

손자인 숙(倣)은 선고(先考)의 유의(遺意)에 따라 비석을 세움.

## 한지원(韓智源) 묘표

所在地…盆唐區 栗洞山 612

建立年代…朝鮮 明宗 16年(1561)

書…金柱宇

規 模…總高…134cm、碑高…102cm、幅…45cm、厚…15cm

材 質…碑身…大理石、臺石…花崗岩

한지원 묘표는 서현동에서 율동공원으로 가는 길 좌측의 궁미관 식당 뒤 정남쪽에 있다.

1561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 4면에 당초문(唐草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앞면은 해서(楷書)로 썼는데 자경(字徑)이 4·0cm이고, 음기(陰記) 또한 해서로 자경이 2·0~4·0cm로 김주우(金柱宇)가 썼으며, 비문을 지은 사람도 없고 1629년(인조 7)에 추기(追記)하였다.

비의 마멸 상태는 뒷면 상부의 일부가 심해 판독이 난해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정부인 무송윤씨(茂松尹氏)와 합장, 호석·상석·족석·향로석·훈유석·문인석·망주석 2기가 있다. 그리고 1986년 개수한 비좌 개석의 묘표가 있다.

한지원(1514~1561)은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사달(士達). 호는 청연(靑蓮). 도정(都正) 석(碩)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윤지준(尹之峻)의 딸이다.

1537년(중종 32) 진사가 되고, 1544(중종 39) 별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에 제수된 후 홍문관의 정자(正字)·수찬(修撰)을 거쳐 1548년(명종 3) 이조좌랑이 되고, 이어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가 되어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임. 「중종실록」 편찬에 참

여하였다. 이어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교리, 사헌부 헌납(司憲府獻納) 등을 지내며, 조광조(趙光祖)의 신원(伸寃)을 상소하고, 1553년(명종 8)사가독서(賜暇讀書)했으나 윤원형(尹元衡) 등 권신(權臣)에 아부하여 탐학을 자행한다는 탄핵을 받고 삭직(削職)되었다가 1555년 복관되어 1557년 성천부사(成川府使)가 되고 박천군수에 이어 인천부사에 이르렀다.

문장에 뛰어난 당대의 문학사(文學士)라 일컬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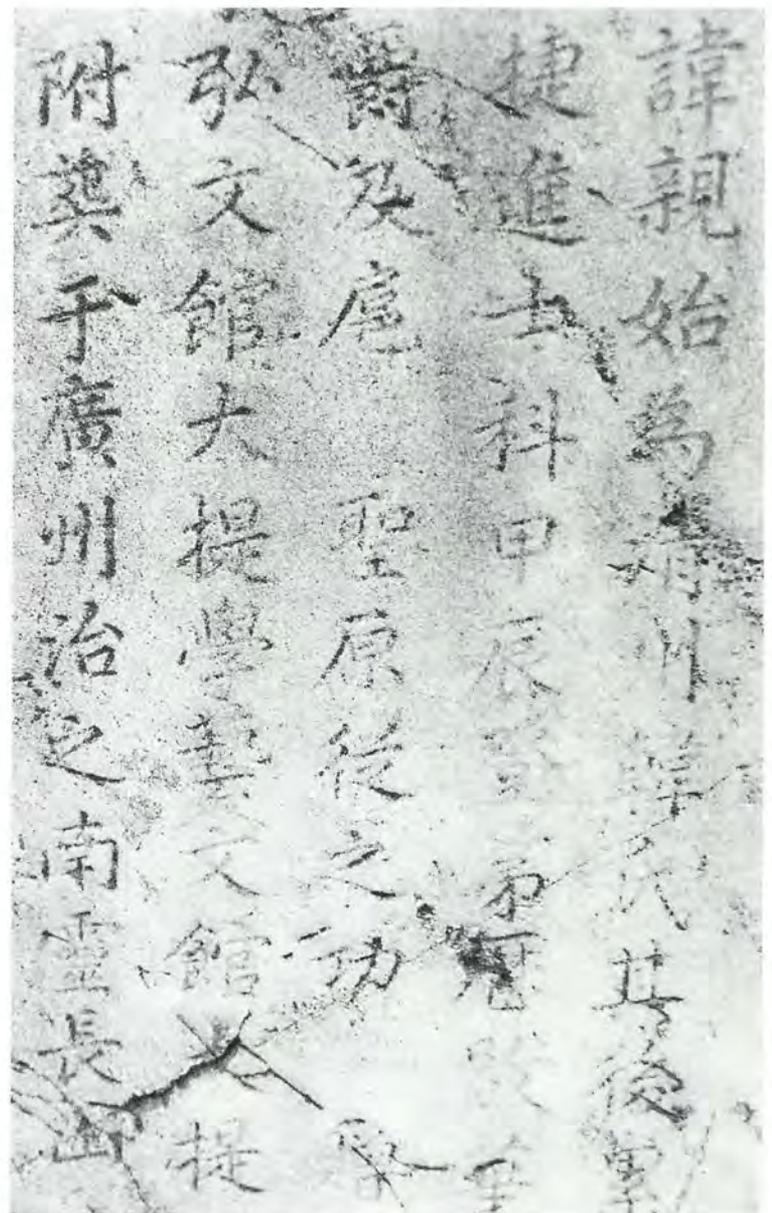
저서로 아들 술(述)·회(懷)의 시문(詩文)과 함께 편찬된 문집 「삼체집(三體集)」이 있다.



한지원 묘소 전경



묘표[구비]



묘표 비문 글씨



문인석



문인석 얼굴



망주석



망주석 부분



貞夫人 茂松 尹氏 附墓  
 贈吏曹判書 無弘 文館大提學  
 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 韓公之墓  
 通訓大夫 行弘文館校理 知製教 無



【前面】

貞夫人茂松尹氏附墓

贈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

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韓公之墓

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 教兼

【後面】

公姓韓諱智源字士達青蓮其號也史稱箕子之裔諱親始爲清州韓氏其後累代皆勳貴文學之士公文章高世製作多傳歲丁酉捷進士科甲辰登第歷敷華秩年四十八而卒官止弘文館校理以長子參判本爵及扈 聖原從之功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世子左賓客夫人尹氏茂松顯閔享年八十六祔葬于廣州治之南靈長山麓有子二人長曰述參判次曰懷承旨參判之長子曰明勗文科通政次曰明直漢城府兼參軍承旨無後公之行狀悉著誌文謹不具載

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兼春秋館記注官金柱宇書

嘉靖四十年四月 日立

皇明崇禎二年三月 日追記

## 【譯 文】

정부인무송윤씨부묘 (통훈대부행홍문관교리지제 교검)증이조판서점홍문관대  
제학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한공지묘

공은 성은 한(韓)이요, 이름은 지원(智源)이요, 자는 사달(士達)이며 청련  
(靑蓮)은 호이다. 역사에서 기자(箕子)의 후손이라 칭하고 이름을 친(親)이라  
고 한 분이 바로 청주 한씨(淸州韓氏)의 시조가 되었다. 그 후 여러 대는 모  
두 나라에 공을 세워 귀하게 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문학이 뛰어난 선비였던  
것이다.

공은 문장이 세상에 높이 뛰어났기 때문에 저술이 많이 전하고 있다. 정유  
년(丁酉年)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갑진년(甲辰年) 中宗 39, 154  
4)에 과거 급제하여 화려한 벼슬을 두루 거치다가 48세에 작고하니, 관직이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서 중단되었고, 말아들이 참판(參判)의 본작(本爵)  
을 하고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이 된 덕분에 나라로부터 자헌대부 이조  
판서 겸경연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세자좌빈객(資憲  
大夫吏曹判書兼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左賓客)을 추  
증받았다.

부인 윤씨(尹氏)는 무송(茂松)의 높은 가문이며, 향년 86세에 작고하니, 광  
주(廣州) 읍소재지 남쪽에 있는 영장산(靈長山) 기슭에 부장하였다.

아들 2명을 두었으니, 장남은 이름이 술(述)인데, 벼슬은 참판(參判)이었  
고, 차남은 이름이 회(懷)인데, 벼슬이 승지(承旨)였다. 참판의 장자인 명욱  
(明勳)은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렀고, 차자인 명직(明  
直)은 한성부점참군(漢城府兼參軍)을 지냈다. 승지는 후사가 없다.

공의 행장은 모두 지문(誌文)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삼가 갖추어  
기록하지 아니한다.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평 겸 춘추관 기주관(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兼春秋館  
記注官) 김주우(金柱宇)는 글을 쓰다.

가정(嘉靖) 40년 4월 일에 비석을 세우고,

황명(皇明) 승정(崇禎) 2년 3월 일에 추가로 기록하다.

## 이 간(李侃) 묘표

所在地…盆唐區 板橋洞 山 25-1

建立年代…朝鮮 宣祖 38年(1605)

撰…李 弘 老

規 模…總高…240cm、碑高…143cm、幅…69cm、厚…16cm  
材 質…蓋石…大理石、碑身…大理石、臺石…大理石

이 간 묘표는 판교에서 안양으로 가는 57번 국도 삼거리의 좌측 운흥천 다리를 건너 상수원 관리소 입구 우측 산 정동쪽에 있다.

1605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은 팔작 지붕으로 기왓골과 추녀끝을 입체감있게 표현하였고, 대석은 안상문(眼象紋)·주련(珠連)·복련(覆蓮)으로 되어 있으며, 개석과 대석이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문은 아들 이홍로(李弘老)가 지었으며, 앞면 글씨의 자경(字徑)은 3·5cm이고, 음기(陰記)의 자경은 2·5cm의 해서(楷書)이다.

비의 상태는 앞면에 총탄 흔적이 4곳 있고, 뒷면은 하부가 마멸이 심해 일부 판독이 난해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정부인 광산김씨(光山金氏)와 쌍분. 상석·향로석·훈유석·계석·동자석·망주석이 있다.

이 간(1523~1584)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자는 화중(和仲)·예조판서 추증을 받은 곤(坤)의 손자, 장례원 사평(掌隸院司評) 공승(公升)의 아들이다.

음직(蔭職)으로 와서별좌(瓦署別坐)에 배임되었고, 이어 선공감 직장(繕工監直長) 그리고 형조좌랑(刑曹佐郎)에 전임된 뒤 은진현감(恩津縣監)과 함흥·판관(咸興判官)、전중시어사(殿中侍御使)에 제수되었다. 후에 장례원 사평·사의(司議)、예빈시판관을 거쳐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과 금구현령(金溝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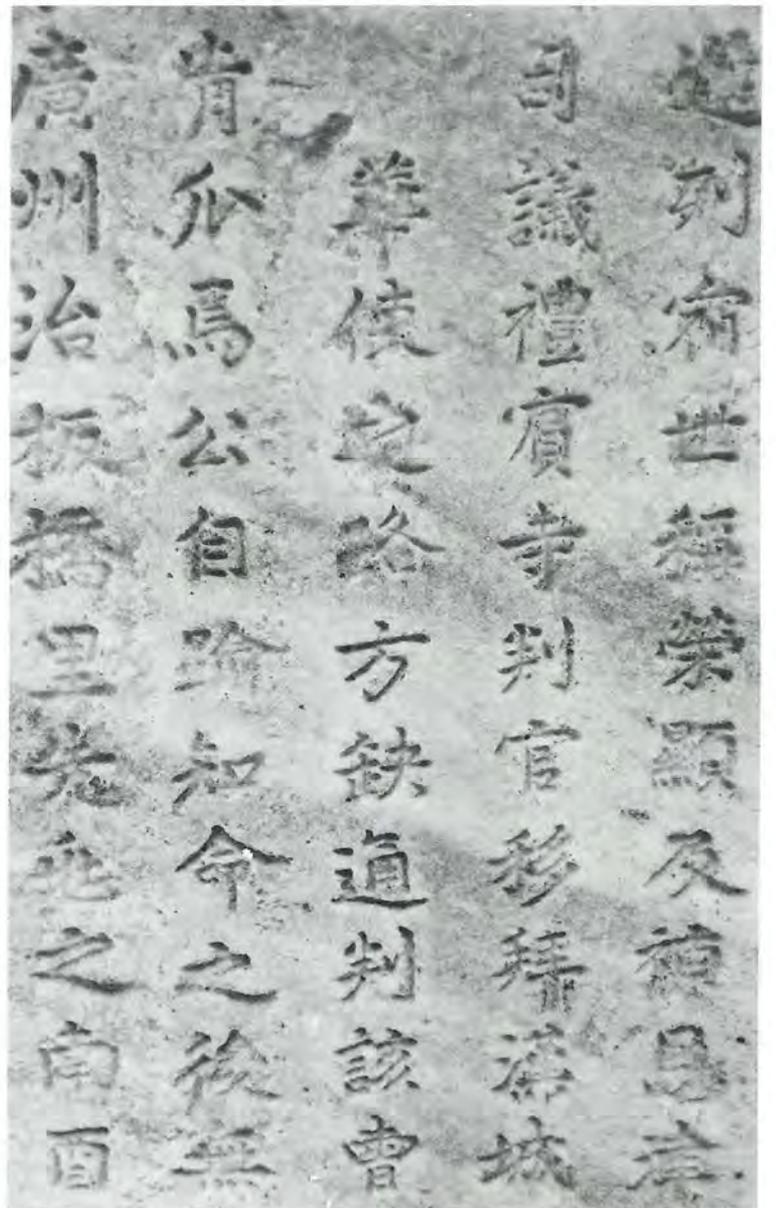
令)으로 올랐으며, 개천(价川)·여산(礪山)·고성 군수(固城郡守)를 역임했다. 사후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이 간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일부



개 석



망주석



동자석





## 【前 面】

貞 夫 人 光 州 金 氏 之 墓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通訓大夫高城郡守李公之墓

## 【後 面】

公諱侃字和仲系出延安史稱唐將軍李茂同蘇定邦□勳於百濟之役食采于延因姓焉流孤綿遠譜失其傳將軍之後未詳代數而有諱襲洪官至檢校詹事歷四代有諱元發典工判書 贈左議政蓋從其胤康胡公貴齡之追封也康胡之弟貴山階資憲江原道都觀察黜陟使卽公之五代祖也曾大夫諱仁文科僉知中樞府事祖父諱坤文科判決事參靖國勳 贈禮曹判書封延城君判書生諱公升蔭補掌隸院司評娶左贊成洪淑之女生公於嘉靖癸未公未壯成司評辭世贊成夫人憫孀婦之伶仃遺兒之孤露請仕公於贊成知友之爲銓曹者初拜瓦署別坐時 王宮被災回祿大舉營繕公監董燔役以有顯效詣秩繕工監直長轉拜主簿遷刑曹佐郎蔭仕之應選列宿世稱榮顯及補恩津縣監居五年而罷未幾復郎刑曹旋拜咸興判官歲再周而丁內憂制終卽除殿中歷掌隸院司評司議禮賓寺判官移拜漢城府判官以善剖決 啓久任 明廟昇遐今 上卽位 天朝將有致吊冊封之禮而平壤當直西 華使之路方缺通判該曹難其人以公充選奔走酬應勞悴成疾遂□□□拜金溝縣令繼典价川礪山高城三郡皆厭煩不肯瓜焉公自踰知命之後無意求仕優游養疾於南郭之里 皇明萬曆甲申八月易簣于故宅享年六十二以是年十月葬于廣州治板橋里先兆之南西坐卯向之原夫人金氏故樂安郡守文瑞之女同配四十年生四男二女後公十八年辛丑從子弘老于觀察湖南八月考終于全州衙館享壽七十八其歲九月奉櫬歸窆同原而異壟焉長子大老先夫人死初娶郡守尹善元女生二男曰承說承尹後娶郡守金龜女又生二男曰承義承善次子應老娶縣監李殷女早死無後次子弘老魁文科今爲觀察使娶司果奇應世女生三男二女男曰承元承亨承業女長適縣令宋裕祚次適士人權敬立次子榮老主簿娶別坐韓悌友女生二女皆幼長女忠義衛尹嶧妻生一男二女男曰聃年女長適士人金壽仁次適金有容次女參奉韓景祺妻無子女寡乃取參奉兄景裕子城爲後嗚呼已矣九原難作風樹長慟奉晨昏之無日廢蓼莪而摧胸

皇明萬曆三十三年乙巳冬子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州牧使弘老謹識

## 【譯 文】

정부인광주김씨지묘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행통훈대부고성군수 이공지묘

공은 이름은 간(侃), 자는 화중(和仲),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역사에서 칭하기를 『당(唐) 나라 장군(將軍) 이무(李茂)가 소정방(蘇定邦)과 함께 백제(百濟)의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연안에 봉했기 때문에 연안을 본관으로 했다.』고 한다. 계대(系代)가 원낙 멀리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족보에서 그 전대를 잃었으므로 장군의 뒤에는 그 대수가 자세하지 못하다. 뒤에 이름을 습홍(襲洪)이라고 한 분이 계셔 벼슬이 검교첨사(檢校詹事)에 이르렀고, 4대를 내려와서 이름을 원발(元發)이라고 한 분이 계셔 전공판서(典工判書)를 지내고 좌의정(左議政)에 추증되었으니, 그것은 대개 그 아들인 강호공(康胡公) 귀령(貴齡)의 추봉(追封)을 따른 것이었다.

강호공의 아우인 귀산(貴山)이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를 가지고 강원도 도관찰출척사(江原道都觀察黜陟使)를 지내셨으니, 이 분이 바로 공의 5대조 이시다. 증조부는 이름이 인문(仁文)인데, 문과에 급제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내셨고, 조부는 이름이 곤(坤)인데, 문과에 급제하여 판결사(判決事)를 지내고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참여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추증되고 연성군(延城君)에 봉해지셨다.

판서공이 이름을 공승(公升)이라고 한 분을 낳아 문음(門蔭)으로 장례원사평(掌隸院司評)에 보임되었는데, 좌찬성(左贊成) 홍숙(洪淑)의 따님에게 장가드시어 공을 가정(嘉靖) 계미년(癸未年)에 낳으셨다.

공이 아직 장성하시기 전에 사평공(司評公)께서 별세하셨다. 찬성공의 부인이 과부가 된 딸과 고아가 된 외손자의 딱한 처지를 민망히 여긴 나머지 찬성공의 친구로서 인재를 뽑는 전조(銓曹)가 된 사람에게 공의 벼슬 자리를 부탁했기 때문에 공은 처음에 와서 별좌(瓦署別坐)가 되셨다. 이 때 공권이 화재를 당했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크게 거행되었는데, 공이 기와 굽는 일을 감독하는 데 나타난 공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공으로 품계가 올라 선공감 직장(繕工監直長)이 되셨다가 주부(主簿)로 옮겨 임명되었고, 이어 형조 좌랑(刑曹佐

郎)으로 전직되었는데, 문음으로 벼슬길에 나간 분이 낭관(郎官)으로 뽑혔으니, 세간에서 영현(榮顯)이라고 일컬었다.

은진현감(恩津縣監)에 보임된 지 5년 만에 파직되었고, 얼마 안 가서 다시 형조 좌랑에 임명되었다가 곧 함흥판관(咸興判官)에 임명되었으며, 2년 후에 내간상을 당하셨고, 복제가 끝나자 곧 전중(殿中)에 임명되신 다음 장례원(掌隸院)의 사평(司評)과 사의(司議), 예빈시 판관(禮賓寺判官)을 역임하시고,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으로 전직되었는데, 판결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임금은 공에게 그 판관직을 오래 맡게 하였다.

명묘(明廟)·명종(明宗)가 승하하자 금상(今上)·宣祖(宣祖)이 즉위하였는데, 명(明)나라에서는 장차 명종을 조문하고 금상을 책봉하는 예를 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오려고 하였다. 평양(平壤)은 중국사신이 드나드는 길목에 위치해있는데, 이 때에 통판(通判)의 자리가 비어있었다. 해당 관청에서는 그에 알맞은 사람을 뽑는데 신중을 기해서 결국 공을 뽑아 보냈는데, 공은 분주하게 수응(酬應)·남의 요구에 응한 하다가 그만 과로로 병을 얻었다.

드디어 □□□ 금구현령(金溝縣令)에 임명되시고, 이어 개천(价川)·여산(礪山)·고성(高城) 등 세 고을을 맡아 다스렸는데, 다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임기를 채우지 않으셨다. 공은 50세가 넘으신 뒤로는 벼슬에 뜻을 두시지 않고 남곽리(南郭里)에서 한가히 지내며 요양하시다가 황명(皇明) 만력(萬曆) 갑진년 8월에 고택(故宅)에서 작고하시니, 향년 62세였는데, 이 해 10월에 광주(廣州) 판교리(板橋里) 선영의 남쪽 유좌묘향(西坐卯向)의 자리에 장례를 모셨다.

부인은 김씨(金氏)로 고(故) 낙안군수(樂安郡守) 문서(文瑞)의 따님이신데, 40년을 공과 함께 사시면서 4남 2녀를 낳으셨고, 공보다 18년을 더 사시다 가 신축년(辛丑年)에 아들 홍로(弘老)를 전라도 관찰사의 임지로 따라가셔서 그 해 8월에 전주 관아에서 천수를 마치시니, 향년 78세였다. 그 해 9월에 관(棺)을 받들고 돌아와서 공과 언덕은 같고 무덤을 다른 자리에 장례를 모셨다.

만아들은 대로(大老)으로서 부인 먼저 작고하였는데, 첫 번째는 군수(郡守)

윤선원(尹善元)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을 낳았으니, 승열(承說)과 승운(承尹)이며, 두 번째는 군수 김구(金龜)의 딸에게 장가들어 또 2남을 낳았으니, 승의(承義)와 승선(承善)이다. 둘째 아들은 응로(應老)인데, 현감(縣監) 이은(李殷)의 딸에게 장가갔는데, 일찍 작고하여 후사가 없다. 셋째 아들은 홍로(弘老)인데, 문과에 과장원으로 급제하여 지금 관찰사(觀察使)가 되었고, 사과(司果) 기응세(奇應世)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승원(承元)·승형(承亨)·승업(承業)이고, 맏딸은 현령(縣令) 송유조(宋裕祚)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사인(士人) 권정립(權敬立)에게 시집갔다. 네째 아들은 영로(榮老)로 주부(主簿)가 되었고, 별좌(別坐) 한제우(韓悌友)의 딸에게 장가들어 2녀를 낳았는데, 다 아직 어리다.

장녀는 충의위(忠義衛) 윤파(尹峯)의 아내가 되어 1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담년(聃年)이며, 맏딸은 사인(士人) 김수인(金壽仁)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김유용(金有容)에게 시집갔다. 차녀는 참봉(參奉) 한경기(韓景祺)의 처가 되었는데, 자녀를 두지 못하고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참봉의 형인 경유(景裕)의 아들 성(城)을 대려다가 후사를 삼았다.

아! 끝났도다. 구원(九原)·九泉)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시게 할 수 없으니, 풍수지탄(風樹之嘆)<sup>1)</sup>만 길이 하겠고, 혼정신성(昏定晨省)<sup>2)</sup>할 날이 없으니, 육아장(蓼莪章)을 폐지하고<sup>3)</sup> 가슴만 찢어질 듯 두드린다.

황명(皇明) 만력(萬曆) 33년인 곧 을사년(乙巳年) 겨울에

아들 가선대부 충청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공주목사(嘉善大夫 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州牧使) 홍로(弘老)는 삼가 기록함.

1) 풍수지탄(風樹之嘆) .. 중국 주(周) 나라 때 효자인 고어(梟魚)란 사람이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나무는 조용하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려고 하나 어머니는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는 것에서 온 말인데, 곧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할 때에는 부모가 이미 작고하고 안 계신데 대한 탄식.  
2) 혼정신성(昏定晨省) .. 저녁에는 아버지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새벽에는 아버지에게 문안하는 일.  
3) 육아장(蓼莪章)을 폐지하고 .. 육아장은 『시경(詩經)』의 소아(小雅)에 있는 장명인데, 『슬프고 슬프다. 부모시여! 나를 낳으실 때 수고하셨네.』 「哀哀父母 生我劬勞」란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중국 진(晉) 나라 때 왕부(王裒)란 사람이 어올하게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여 이 육아장을 읽을 때마다 슬피 울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육아장을 읽지 않았다. 왕부

## 이 집(李集) 묘표

指定番號… 鄉土遺蹟 第2號

所在地… 中院區 下大院洞 山 7-1

建立年代… 朝鮮 孝宗 3年(1652)

撰… 李 休 徵

書… 李 象 震

規 模… 總高… 165cm, 碑高… 143cm, 幅… 60cm, 厚… 19cm

材 質… 碑身… 花崗岩, 臺石… 花崗岩

이 집 묘표는 광주로 가는 공단로에서 육교를 지나 우측의 이 집 묘소 입구 안내판을 따라가면 재실 우측산 서쪽에 있다.

1652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은 문양없이 단조롭다.

비문은 11대손 이휴징(李休徵)이 지었고, 앞면 글씨의 자경(字徑)은 9·0cm이고, 음기(陰記)의 자경은 2·5cm로 후손 이상진(李象震)이 해서로 썼다.

비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마멸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정화택주(貞和宅主) 영주황씨(郢州黃氏)와 합장. 상석·족석·향로석·혼유석·계체석·장명등·문인석·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1985년 3월에 개수한 비좌 관석의 묘표는 21대손 이채진(李採鎭)이 글씨를 썼고, 1986년 5월에 세운 귀부 이수(李)의 신도비는 이가원(李家源)이 비문을 짓고, 21대손 이채진이 글씨를 썼는데 무심정사 앞에 있으며, 추모재(追慕齋)가 있다.

이 집(1314~1387)은 고려말 문인·학자. 본관은 광주(廣州). 초명은 원령(元齡)。자는 호연(浩然), 호는 둔촌(遁村)。당(唐)의 아들이다.

충무왕 때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문장을 잘 짓고 지조가 굳기로 명성이 높았다. 1368년(공민왕 17) 신돈(辛旽)의 미움을 사 생명의 위협을 받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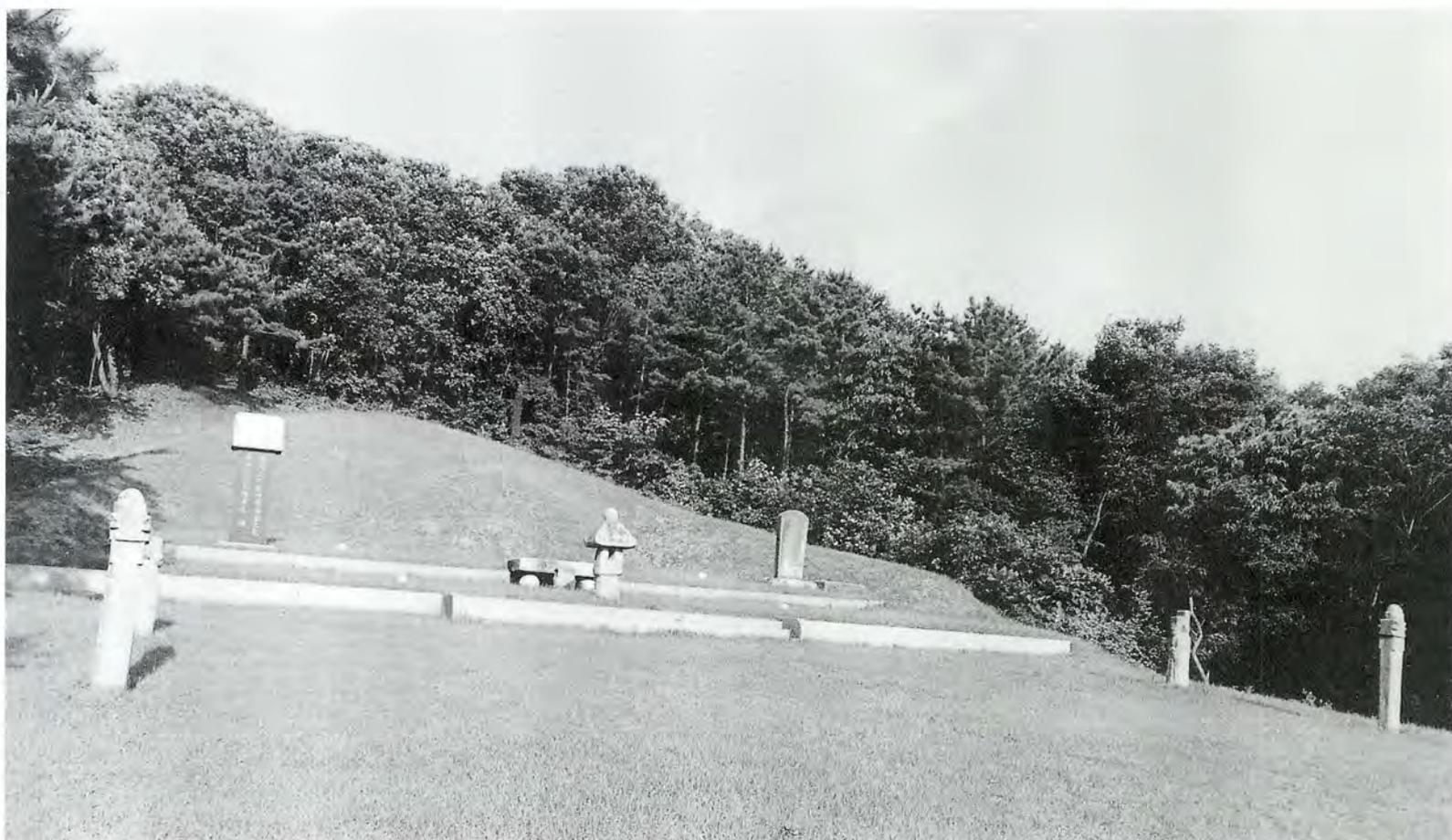
가족과 함께 영천으로 도피하여 고생 끝에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1371년 신돈이 주살되자 개경으로 돌아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여주 천녕현(川寧縣)에서 전야(田野)에 묻혀 살면서 시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그의 시에는 꾸밈과 우회 보다는 직서체(直敍體)에 의한 자연스럽고 평이한 작품이 많다. 그는 당시 임심문(任深文)을 비롯한 60명에 달하는 많은 인물들과 시로써 교류하였다. 특히,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이승인(李崇仁)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 문집 부록에 실린 삼은(三隱)의 기(記)·서(序)·서(書)는 그와 삼은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게 하여 준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그가 조선조에 벼슬을 지냈다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1611년(광해군 3) 8대손인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의 주청이 받아들여져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 바로 잡혀지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의 구암서원(龜巖書院)에 제향되었다. 현재는 성남시 하대원동에 「추모재(追慕齋)」 사당안에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저서로 「둔촌유고」가 있다.



이 집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일부



향로석



장명등



문인석[측면]



추모재 전경



망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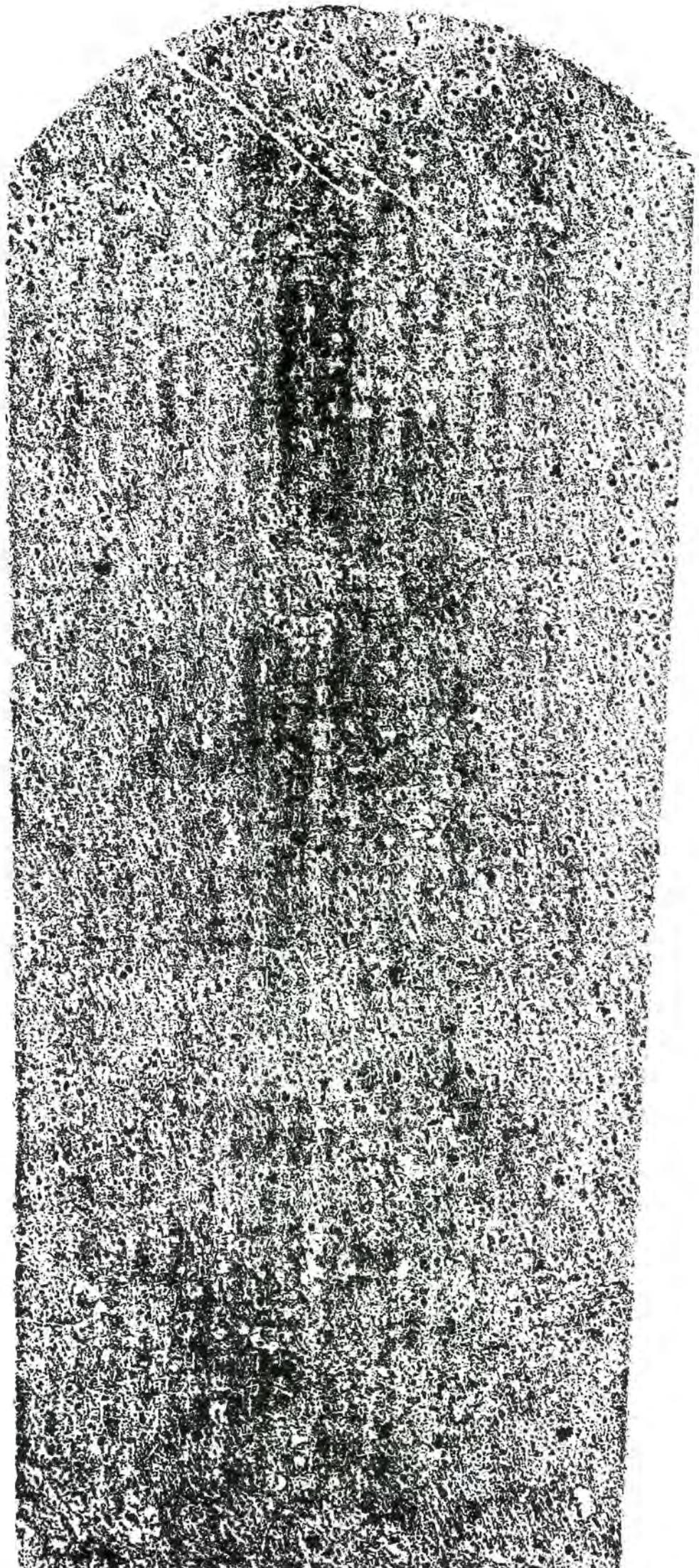
문인석



60×143



19×143



60×143

## 【前 面】

貞和宅主郢州黃氏祔葬

遁村先生李公諱集之墓

## 【後 面】

吾李籍于廣而惟我遁村先生寔爲始祖挺生麗季以斯道爲己任文章志節冠冕一世攷諸傳記斑斑可見蓋嘗受業於安文敬公輔其學有淵源從學者衆委屬先生爲知道則陶隱稱知人之明牧隱誌文敬墓歷叙其門人則首許先生能遯荒野當時王室將傾事變無窮忠孝兩到義形于色動心忍性曲盡情理志足以貫金石氣足以參穹昊今後數百載下誠有未易形容盛德者顧隻字片言詎不愈於跡之粗耶况一代名流無不敬服有若圃隱先生東方百世師而以道學推重未有其人獨於吾先生曰恭承孟氏訓勿助與勿忘千載同此心鳶魚妙洋洋則先生涵養工程處窮力量益可驗矣先生考諱唐本以州吏登司馬試有賢行五子俱登科先生於次爲第二初名元齡生於元泰定丁卯至正七年高麗忠穆王三年登第官至奉順大夫判典校寺事 皇明洪武二十年恭讓王丁卯卒享年六十一當恭愍戊申忤賊阬禍將至負嚴親逃難踰嶺而南竄伏永川郡同年崔元道家親沒葬郡南羅峴阬乃出改名集字浩然號遁村其義則俱載於牧隱所著字說及遁村記先生沒六年壬申 本朝革命子孫爲卿爲相前後相望追加先生議政府左贊成先生三子俱登第長之直有直道清節官刑曹參議寶文閣直提學次之剛左參贊諡文肅次之柔牧使參議三子俱登第曰長孫舍人曰仁孫右議政佐 世祖有相業諡忠僖曰禮孫觀察使舍人有一子曰克圭文科兵曹參議清名直節名于世忠僖五子俱登第曰克培領議政封廣陵諡翼平曰克堪刑曹判書封廣城諡文景曰克增判中樞封廣川諡恭長曰克墩左贊成封廣原諡翼平曰克均左議政封廣南世謂廣李五子科再者指先生兄弟暨此耳有曰克基禮孫之子官參判精性理之學厥後世守法度代有聞孫曰潤慶兵曹判書有德量諡正獻名號見明史曰浚慶領議政爲 國朝賢相配享 宣祖廟庭諡忠正曰延慶校理精性理學者稱灘叟先生曰有慶南臺持平曰若冰吏曹正郎俱於克堪爲曾孫曰英符掌令曰英賢參判俱於禮孫爲曾孫而延慶若冰英符則并列己卯名賢曰世銓官府使 贈禮曹參判曰世貞吏曹參議都承旨觀察使克墩之子也曰德馨領議政佐 穆廟爲中興名相諡文翼於克均爲五代孫曰光吉尙衣正於克培爲玄孫曰尙安官府使立節丁卯諡忠愍於克墩爲五代孫曰廷立廣林君於克培爲六代孫若近世則曰必亨弘文校理曰必榮右參贊曰必行弘文應教俱於浚慶爲曾孫曰如璜觀察使於德馨爲子曰潤雨於禮孫爲七代孫曰道長應教潤雨子也自先生後年代既遠華胄崇闕甲于大東其間決科第取顯仕登宰列者接武繼軌不翅此數姑舉其著稱者如右先生墓在廣州治西陰村西向原夫人貞和宅主郢州黃氏舊有短碣歲久而缺諸孫僉知亨胤前縣監廷望縣令必成都事社遐副司果道彬禮曹正郎

休徵奉事象鼎進士信徵幼學斗翼甲科及第元禎進士儀徵生員厚徵承文正字象震生員健徵等百六十餘人外孫綾州府院君具仁重吏曹判書鄭世規司憲府執義宋浚吉 世子侍講院進善宋時烈弘文校理尹鏞司憲府掌令趙涑等百七十餘人恐其湮泯無

【右側面】

傳合辭出力改豎豐石屬不肖孫休徵略叙顛末休徵識昧聞寡安敢當古人述祖德嗚呼先生道德既積而發出處大節綽然有裕風聲所樹彌遠彌彰迺若踐履造詣圃牧陶諸賢反復詳說更無底蘊去就行藏當於麗史傳信譜系地望當於輿地勝覽考實文章詩詠自有卷軸在昭如日星百世以俟者非耶故其根深源遠枝茂流長綿延昌大繼繼不替者抑非吾祖蓋覆其萬子孫勿替者耶詩曰無念爾祖聿修厥德不肖等於載治牲石也烏能無感乎哉

十一代孫通訓大夫行禮曹正郎兼春秋館記註官休徵謹撰

承文院正字象震謹書

崇禎紀元二十五年壬辰 上澣立

## 【譯 文】

정화택주영주황씨부장 둔촌선생이공휘집지묘

우리 광주 이씨(廣州李氏)는 둔촌(遁村) 선생을 시조로 모시는데, 이 분은 고려 말기에 태어나서 사도(斯道)를 지키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으셨고, 문장(文章)과 지절(志節)이 한 세대에 으뜸을 차지하셨으니, 이것은 여러 전기(傳記)에 상고하면 환하게 볼 수 있다.

일찍이 문정공(文敬公) 안보(安輔)에게 수업하셨으니, 그 학문에 연원이 있었으므로 좃아 배우는 자가 많았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은 도를 깨달았다.」고 하니, 도는(陶隱)·李崇仁(이) 「사람을 잘 알아보았다.」고 하였고, 목은(牧隱)·李穡(은) 문경공의 묘지(墓誌)를 쓸 때에 그 문인들을 죽 서술하면서 제일 먼저 선생에게 「잘 황야로 도피했다.」<sup>1)</sup>고 하여하였다.

당시 왕실(王室)은 장차 기울어져가고 사변(事變)은 잇따라 일어났는데, 선생께서는 충성과 효도가 극진하셨고, 의리에 불타는 마음이 안색에 드러나셨고, 꼭 참는 인내심을 기르셨고, 인정과 사리를 세밀하게 아셨고, 의지는 죽히 쇠와 돌을 뚫을 듯하셨고, 기백은 죽히 하늘을 찌를 듯하셨던 것이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참으로 선생의 성대한 덕에 대하여 형용하지 못할 점이 있다. 그러나 편언척자(片言隻字)가 어찌 거친 자취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물며 한 시대의 명류(名流)들 중에 선생을 공경하지 않은 이가 없었음에랴? 포은(圃隱)·鄭夢周(선생) 같은 분은 동방(東方)에 있어서의 백세지사(百世之師)<sup>2)</sup>였으므로 도학(道學)을 가지고 추중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우리 선생에 대해서만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맹자의 교훈 공손히 이어받아,

조장도 잊지도 않고 꾸준한 노력하였네.

천재에 이 마음 동일하게 가졌으니,

슬개 날고 고기 뛰듯 양양 자드하였네.

이상과 같은 시를 통하여 선생의 함양(涵養)한 공정(功程)과 궁지에 처하신

역량을 더욱 정림할 수가 있다.

선생의 부친은 이름을 당(唐)이라고 하는데, 본래 고을의 이(吏)로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어진 행실이 있었다. 다섯 아들을 두셨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 선생은 아들들의 차례에서 둘째 아들이 되신다. 처음 이름은 원령(元齡)인데, 태정(泰定) 정묘년(丁卯年)·고려 충숙왕 14, 1327(에 태어나셨다. 지정(至正) 7년 곧 고려 충목왕 3년인 정해년(丁亥年)·1347)에 과거에 급제하셨고, 벼슬은 봉은대부(奉順大夫)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이르렀다. 황명(皇明) 홍무(洪武) 20년인 정묘년(丁卯年)·고려 우왕 13, 1387(에 작고하시니, 향년 61세였다.

공민왕 무신년(戊申年)·1368(에는 역적 신돈(辛頓)에게 미움을 사서 화가 장차 미치게 되니, 부친을 업고 난을 피해서 조령을 넘어 남으로 내려가 영천군(永川郡)에 있는 동년(同年)인 최원도(崔元道)의 집에 피신해 있다가 부친이 작고하시자, 영천군의 남쪽 나현(羅峴)에 장사지냈다.

신돈이 주참(誅斬) 당한 뒤에 세상에 나와서 이름을 집(集)으로 고치는 동시에 자는 호연(浩然)으로, 호는 둔촌(遁村)으로 하셨으니, 그 뜻은 목은(牧隱)이 쓴 자설(字說)과 둔촌기(遁村記)에 자세히 실려있다.

선생이 작고하신 지 6년 후인 임신년(壬申年)·1392(에 본조(本朝)·朝鮮)가 혁명을 하였는데, 선생의 자손 중에는 경대부도 되고 재상도 된 분들이 서로 줄을 이었고, 선생에게는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이 추가되었다.

선생의 아들 셋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맏아들은 이름이 지직(之直)으로 직도(直道)와 청절(淸節)이 있고, 벼슬은 형조 참의(刑曹參議)와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을 지내셨으며, 둘째 아들은 이름이 지강(之剛)으로 벼슬은 좌참찬(左參贊)을 지내고 시호는 문숙(文肅)이시며, 셋째 아들은 지유(之柔)로 목사(牧使)를 지내셨다.

1) 황야로 : 도피했다. 이 말은 <목은집(牧隱集)> 문고(文稿) 권 19 계림부윤시문경공안선생묘지명(雞林府尹諡文敬公安先生墓誌銘)에 「원수를 피하여 황야로 잘 도피한 사람은 이 원령(李元齡)이었다.」라고 보인다.

2) 백세지사(百世之師) : 오랜 후세까지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뜻.

참의공(參議公)은 세 아들을 두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맏아들 장손(長孫)은 사인(舍人)을 지내셨고, 둘째 아들 인손(仁孫)은 우의정(右議政)으로 세조 임금을 도와 공훈을 세우고, 시호는 충희(忠僖)이시며, 셋째 아들에 손(禮孫)은 관찰사(觀察使)를 지내셨다.

사인공(舍人公)은 아들 하나를 두셨으니, 이름이 극규(克圭)로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지내셨는데, 청명(淸名)·직절(直節)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셨다.

충희공(忠僖公)은 아들 다섯을 두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맏아들 극배(克培)는 영의정(領議政)으로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의평(翼平)이시며, 둘째 아들 극감(克堪)은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광성군(廣城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문경(文景)이시며, 셋째 아들 극증(克增)은 판중추(判中樞)로 광천군(廣川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공장(恭長)이시며, 넷째 아들 극돈(克墩)은 좌찬성(左贊成)으로 광원군(廣原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의평(翼平)이시며, 다섯째 아들 극균(克均)은 좌의정(左議政)으로 광남군(廣南君)에 봉해지셨다. 세간에서 「광주 이씨의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집이 둘이다.」라고 일컫는 것은 선생(先生)·集의 5형제와 충희공의 아들 5형제를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극기(克基)는 예손(禮孫)의 아들로 벼슬은 참판(參判)에 이르렀고, 성리학(性理學)에 정통하셨다.

그 뒤에도 법도를 지키어 대대로 이름을 날린 자손이 있었으니, 윤경(潤慶)은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지내는 동시에 덕과 도량을 갖추고 시호는 정헌(正獻)이셨는데, 명호(名號)가 명(明)나라 역사책에 나타나고 있으며, 준경(浚慶)은 영의정(領議政)을 지내는 동시에 국조(國朝)의 현상(賢相)이 되어서 선조대왕의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시호는 충정(忠正)이시며, 연경(延慶)은 교리(校理)를 지내는 동시에 성리학에 정통하시어 학자들이 탄수선생(灘叟先生)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약빙(若氷)은 이조 정랑(吏曹正郎)을 지내는 동시에 어질다는 이름이 있었으니, 이는 모두 극감의 증손들이다. 영부(英符)는 장령(掌令)을 지내셨고, 영현(英賢)은 참판(參判)을 지내셨는데, 모두 예손의 증손들이다. 이 중에서 연경·약빙·영부는 아울러 기묘명현(己卯名賢)에 올라 있었다.

또 세전(世銓)은 벼슬이 부사(府使)를 지내고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추증 되셨으며, 세정(世貞)은 이조 참의(吏曹參議)와 도승지(都承旨)와 관찰사(觀察使)를 지내셨는데, 극돈(克墩)의 아들이시다.

덕형(德馨)은 영의정(領議政)을 지내시는 동시 목묘(穆廟)·宣祖 때에 있어서 나라를 중흥시킨 명성 높은 정승이 되시고 시호는 문익(文翼)이시었는데, 극균에게 5대손이 되시고, 광길(光吉)은 상의원 정(尙衣院正)을 지내셨는데, 극배에게 현손이 되시고, 상안(尙安)은 시호가 충민(忠愍)이신데, 극돈에게 5대손이 되시고, 정립(廷立)은 광림군(廣林君)에 봉해지셨는데, 극배에게 5대손이 되신다.

근세에 와서는 필형(必亨)은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를 지냈고, 필영(必榮)은 우참찬(右參贊)을 지냈고, 필행(必行)은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教)를 지냈는데, 모두 준경에게 증손이 된다.

또 여항(如璜)은 관찰사를 지냈는데, 덕형에게 아들이 되고, 윤우(潤雨)는 참의(參議)를 지냈는데, 예손에게 6대손이 되고, 도장(道長)은 응교(應教)를 지냈는데, 윤우의 아들이다. 선생 이후로 연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귀족적 화려한 문벌은 우리나라에서 으뜸간다. 그 사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나타난 벼슬로 재상의 지위에 오른 분들이 줄줄이 이어진 것은 이 숫자뿐만이 아닌데, 우선 그 중에서 나타난 분들만을 이상과 같이 열거한 것이다.

선생의 묘소는 광주(廣州)의 읍소재지 서쪽 음촌(陰村) 유향(西向)의 자리에 계시며, 부인은 정화택주(貞和宅主) 영주 황씨(郢州黃氏)이시다.

옛날에 팔막한 묘갈(墓碣)이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파손되었다. 여러 후손들 중에서 첨지(僉知)인 형운(亨胤)·전 현감(前縣監)인 정망(廷望)·흡곡현령(歙谷縣令)인 필성(必成)·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인 지하(祉遐)·부사과(副司果)인 도빈(道彬)·예조 정랑(禮曹正郎)인 휴징(休徵)·전 참봉(前參奉)인 상징(象徵)<sup>4)</sup>·진사(進士)인 신징(信徵)·송문원 정자(承文院正字)인 상징(象震)·유학(幼學)인 두익(斗翼)·갑과(甲科)에 급제한 원정(元禎)·진사

3) 6대손... 스른촌잡영(遁村雜詠) 보편(補編)에 있는 묘갈문(墓碣文)에는 7대손으로 되어 있다.

4) 전 참봉 상징... 스른촌잡영에 있는 묘갈문에는 전 봉사(前奉事) 상징(象鼎)으로 되어 있다.

(進士)인 의징(儀徵)·생원(生員)인 건징(健徵) 등 1백 60여 인과, 외손으로 는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厚)·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세규(鄭世規)·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송준길(宋浚吉)·세자시강원 진선(世子侍講院進善) 송시열(宋時烈)·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윤집(尹鑠)·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조충(趙沖) 등 1백 70여 인이 그 비문이 인멸되어 전하지 못할 까 염려한 나머지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큰 비석으로 고쳐 세우고는 불초손(不肖孫)인 이 휴징(休徵)에게 그 전말에 대해 대략 기술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휴징은 지식이 없고 견문이 적은데 어떻게 예전 사람이 조상의 덕을 기술하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 선생께서는 도덕을 이미 마음속에 쌓여서 밖으로 세상에 드러내셨고, 출처(出處)에 보이신 큰 절의는 여유작작하셨으며, 후세에 전한 명성(名聲)은 세대가 더욱 멀면 멀수록 더욱 드러나고 있도다.

행실과 학문의 조예에 대해서는 목은과 포은 같은 여러 현인들께서 반복해서 상세히 말하였으니, 다시 더 말할 것이 없도다.

선생의 거취(去就)와 행장(行藏)에 대해서는 마땅히 스고려사(高麗史)에서 그 실상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보계(譜系)와 지망(地望)에 대해서는 마땅히 스여지승람(輿地勝覽)에서 그 사실을 상고해야 할 것이다.

문장(文章)과 시영(詩詠)은 자연 권축(卷軸)이 남아있어 해와 별처럼 빛을 내고 있으니, 바로 스중용(中庸)에서 말한 「백세에 성인(聖人)을 기다려도의 후되지 않는다.」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때문에 그 뿌리가 깊게 박이고 근원이 멀리 내려있으면 가지가 무성하고 흐름이 장원하는 법이니, 면면이 창대(昌大)하고, 계속 이어져 침체되지 않는 것은 우리 조상이 만 자손들을 침체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신 덕분이 아니겠는가. 스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너희 조상을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그 덕을 닦을지어다5)」고 하였으니, 불초 등이 이 비석을 세움에 있어서 어찌 감동이 없을 수 있겠는가.

11대손 통정대부(通政大夫) 예조 정랑(禮曹正郎) 겸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휴징(休徵)은 삼가 글을 짓고,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상진(象震)은 삼가 글을 쓰다.

승정기원(崇禎紀元) 25년 임진(壬辰) 상한(上澣)에 비석을 세움.

※ 신비(新碑)와 기존 금석문의 차이가 많아 『둔촌 문집과 탁본』을 기준으로 원문(原文)을 작성함.

5) 너희... 닦을지어다... 이 말은 대아(大雅) 문왕(文王)편에 보인다.

## 이경헌(李景憲) 묘표

所在地…壽井區 上笛洞 山 24-1

建立年代…朝鮮 肅宗 8年(1682)

撰…李 栢

規 模…總高…188cm、碑高…112cm、幅…54cm、厚…19cm  
材 質…冠石…大理石、碑身…大理石、臺石…花崗岩

이경헌 묘표는 판교에서 신촌동으로 가는 23번 국도에서 대왕 주유소 앞에 세워진 대왕 저수지(大旺貯水池) 상류에 가면 안산마을 식당 우측 산 남서쪽에 있다.

1628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관석(碑座冠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관석 앞면에는 운문(雲紋) 가운데에 일문(日紋)·태양이 있는데 뒷면도 동일하고, 측면에는 2줄로 운문이 있으며, 대석은 마멸이 심해 문양을 판독하기가 어렵다.

비문은 아들 이석(李栢)이 지었고, 앞면 글씨의 자경(字徑)은 8·5cm이고, 음기(陰記) 자경은 4·0cm의 해서(楷書)로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전체적으로 심하나 판독이 가능하며, 묘소는 정경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와 합장. 상석·향로석·혼유석·문인석 2기·망주석이 있다.

이경헌(1585~1651)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자는 여사(汝思)。호는 지전(芝田)。덕안군(德安君) 인상(麟祥)의 손자. 증영의정 통(通)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유전(柳瑛)의 딸이다.

1609년(광해군 1)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丙科)로 합격하여 승문원에 발탁되었다. 1623년(인조 1) 필선(弼善)을 거쳐 좌부승지(左副承旨)·정사원종공신(靖社原從功臣)으로서 공주목사로 나갔

다가 전 목사 송흥주(宋興周)의 무고를 받아 정직 당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는 왕을 호종하였으며, 그 뒤 병조참의·승정원 동부승지를 지냈다. 한편, 1630년에 접반사(接伴使)로 가도(椵島)에 나아가 일을 잘 처리하였고, 돌아와 형조참의·승지·호조참의를 역임했다. 1633년(인조 11) 삼사의 관관들이 인조 아버지의 추송(追崇)을 반대하였다가 찬배를 당할 때에 승정원에 봉직하면서 이들을 옹호하다가 왕의 진노를 사서 3년 동안 유배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하였고, 그 후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라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개성유수가 되었다. 1639년(인조 17) 서주 겸 동지의금부사·사은부사(謝恩副使)로 심양(瀋陽)에 가서 인조의 병이 심하므로 볼모로 있는 세자를 대신하여 본국에 있는 원손(元孫)을 볼모로 세자를 귀국케 한 것이 왕의 뜻을 어겼다 하여 1640년 남양(南陽)에 유배되었으나 세자가 귀국하자 풀려나와 호조·공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그 후 경기도관찰사·강화유수, 공조·예조참판, 동지돈녕부사·도승지·서반 겸 사옹원제조를 역임했다.

1651년(효종 2) 인렬왕후(仁烈王后) 옥책을 진서(進書)하여 상을 받았다. 착실하고 능력있는 관료였으며,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서, 궁중의 옥책문(玉冊文)을 많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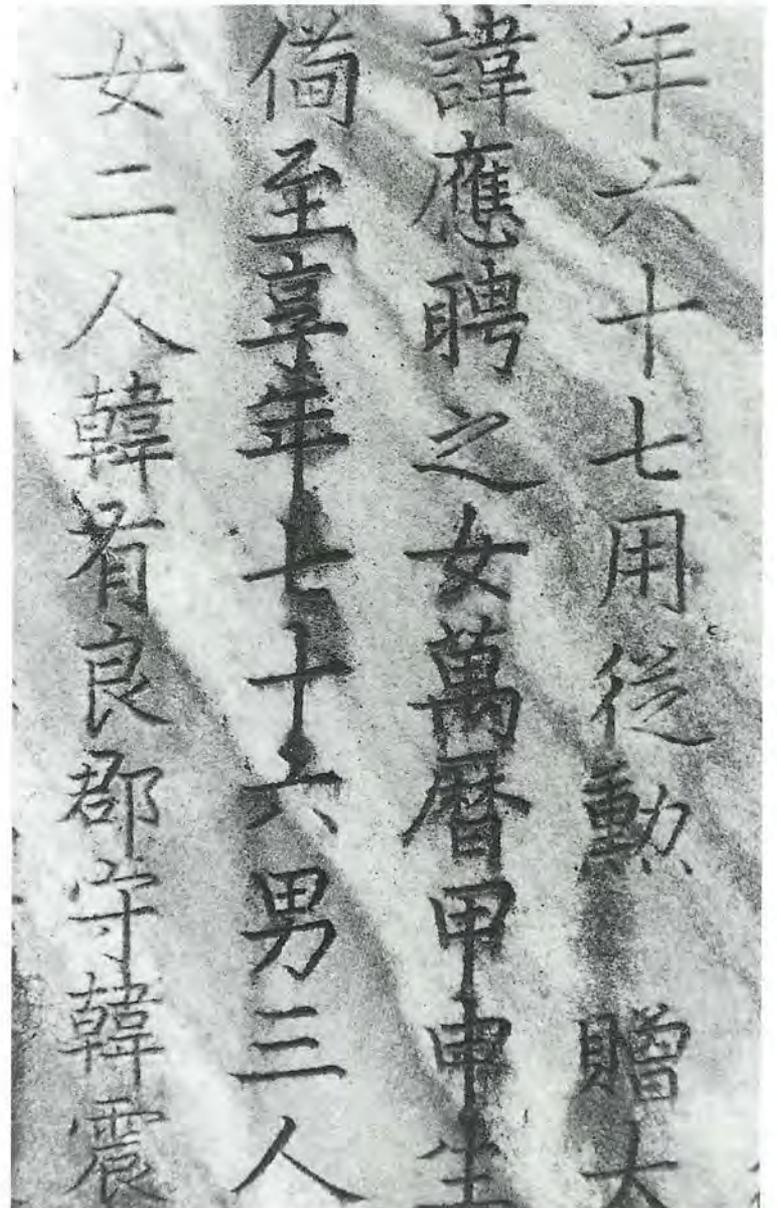
이조판서에 추증(追贈)되었다.



이경헌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글씨



문인석[Ⅰ]



문인석[Ⅱ]



망주석



향로석

貞夫人坡平尹氏祔左

曹判書德水李公墓景憲之墓

有明朝鮮兵曹叅判 贈吏

公諱景憲字汝思號芝田鼻祖諱敦守麗朝名將後十三代代有聞人諱  
 通郡守 贈領議政配文化柳氏領議政諱坤之女以萬曆乙酉生公公  
 孝友篤至性質溫粹動而儉確而周文詞華法儷美而不自多為己酉中  
 司馬戊午登文科由槐院歷臺省春坊入銀臺至知申事貳戶禮兵工四  
 曹此其內踐而間有無任焉佐幕閣東出牧公州留後兩都觀察京畿此  
 其外庸而所至厥有群焉享年六十七用德勳 贈大冢宰夫人尹氏麗  
 初勳宰諱莘達之後忠義衛諱應聘之女萬曆甲申生仁和柔順無疾言  
 遷色奉近百歲姑夫人孝敬倘至享年七十六男三人程文科左丞白栢  
 文科大司諫柘魁生負牧使女二人韓省良郡守韓震琦文科承旨側室  
 男積武科峭官女二人程男喜澤魁生負縣監女李震碩女文翊進士柳

載和林世儉 押男光夏正郎 朔夏女權斗紀 修撰李觀朝 奎鎮華洪重呂  
祐男喜茂 參奉喜榮 積男喜年 韓有良男 泰愈斗愈 郡守濟愈 參軍起愈  
監女金萬基 國舅光城府院君 韓震琦 絀子碩佐生 貞女具文治 御

19×122

營大將光夏男 塽女鄭台一 喜茂男 坦外孫 曾玄不能盡錄  
崇禎後五十五年壬戌三月 日男通訓大夫 星州牧使 祐泣血記

19×112

【前 面】

貞夫人坡平尹氏祔左

曹判書德水李公景憲之墓

有明朝鮮兵曹參判 贈吏

【後 面】

公諱景憲字汝思號芝田鼻祖諱敦守麗朝名將後十三代代有聞人諱通郡守 贈領議政配文化柳氏領議政諱煥之女以萬曆乙酉生公公孝友篤至性質溫粹勤而儉確而周文詞筆法儘美而不自多焉己酉中司馬戊午登文科由槐院歷臺省春坊入銀臺至知申事貳戶禮兵工四曹此其內踐而間有兼任焉佐幕關東出牧公州留後兩都觀察京畿此其外庸而所至厥有聲焉享年六十七用從勳 贈大冢宰夫人尹氏麗初勳宰諱莘達之後忠義衛諱應聘之女萬曆甲申生仁和柔順無疾言遽色奉近百歲姑夫人孝敬備至享年七十六男三人程文科左承旨柙文科大司諫秬魁生員牧使女二人韓有良郡守韓震琦文科承旨側室男穰武科哨官女二人程男喜澤魁生員縣監女李震碩徐文翊進士柳

【右側面】

載和林世儉柙男光夏正郎翊夏女權斗紀修撰李觀朝金鎮華洪重呂秬男喜茂參奉喜榮穰男喜年韓有良男泰愈斗愈郡守濟愈參軍起愈縣監女金萬基 國舅光城府院君韓震琦繼子碩佐生員女具文治御

【左側面】

營大將光夏男堞女鄭台一喜茂男坦外孫曾玄不能盡錄

崇禎後五十五年壬戌三月 日男通訓大夫星州牧使秬泣血記

## 【譯 文】

정부인과 평윤씨부좌 유명조선병조참판 증이조판서덕수이공경헌지묘

공은 이름은 경헌(景憲), 자는 여사(汝思), 호는 지전(芝田)인데, 시조로서 이름이 돈주(敦守)이고 고려조(高麗朝)의 명장(名將)이었던 분의 후손이시다. 시조로부터 13대를 내려오는 동안에는 대대로 드러난 인물이 있었다. 이름이 통(通)으로서 군주(郡守)를 지내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된 분과 그 배위인 문화 유씨(文化柳氏)로서 영의정을 지내고 이름은 전(典)인 분의 따님이 만력(萬曆) 을유년(乙酉年)에 공을 낳으셨다.

공은 독실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였으며, 성질은 온화하고 순순하셨다. 그리고 부지런하면서 검소하고, 확실하면서 두루 파악하셨다. 문사(文詞)와 필법(筆法)은 정말 아름다웠으나 자신은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기유년(己酉年)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무오년(戊午年)에 문과(文科)에 오른 다음, 괴원(槐院)·承文院)으로 말미암아 대성(臺省)·司憲府·司諫院)·춘방(春坊)·世子侍講院)을 거쳐 은대(銀臺)·承政院)에 들어 지신사(知中事)·都承旨)에 이르렀고, 호조 참판(戶曹參判)·예조 참판(禮曹參判)·병조 참판(兵曹參判)·공조 참판(工曹參判)을 차례로 역임하셨으니, 이것은 그 내직(內職)이었고, 그 사이에는 점임을 하신 것도 있다. 강원도 도사(江原道都事)에 이어 공주목사(公州牧使)·개성유수(開城留守)·강화유수(江華留守)·경기감사(京畿監司)를 차례로 역임하셨으니, 이것은 그 외직(外職)이었는데, 부임해 가신 곳마다 모두 성적을 남기셨다. 향년(享年) 67로 작고하시니, 종훈례(從勳例)에 따라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추증하였다.

부인 윤씨(尹氏)는 고려 초에 훈재(勳宰)로서 이름이 신달(莘達)인 분의 후손이고, 충의위(忠義衛)로서 이름이 응빙(應聘)인 분의 따님이시다. 만력 갑신년(甲申年)에 태어나셨는데, 성품이 인화(仁和)하고 유순(柔順)하셨으며,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빨리 하거나 당황한 기색을 짓지 않으셨다. 그리고 근 백세가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되 효성과 공경을 다하셨다.

향년 76세로 작고하셨다.

3남 2녀를 두었는데, 맏아들 정(程)은 문과에 급제하여 좌승지(左承旨)로 있고, 둘째 아들 갑(桺)은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大司諫)으로 있고, 셋째 아들 석(祘)은 생원시에 우등으로 합격해서 목사(牧使)로 있는 중이다. 맏사위 한유량(韓有良)은 군수(郡守)로 있고, 둘째 사위 한진기(韓震琦)는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承旨)로 있다. 그리고 소실의 아들 찬(釐)은 무과에 급제하여 초관(哨官)으로 있으며, 딸은 둘이다.

정(程)의 아들 희택(喜澤)은 생원시에 우등으로 합격해서 현감으로 있고, 사위는 이진석(李震碩)·진사(進士)인 서문익(徐文翊)·유재화(柳載和)·임세검(林世儉)이다. 갑(桺)의 아들 첫째 광하(光夏)는 정랑(正郎)으로 있고, 둘째는 이하(翊夏)이며, 사위는 수찬(修撰)으로 있는 권두기(權斗紀)·이관조(李觀朝)·김진화(金鎭華)·홍중려(洪重呂)이다. 석(祘)의 아들 첫째 희무(喜茂)는 참봉으로 있고, 둘째는 희영(喜榮)이다. 찬(釐)의 아들은 희년(喜年)이다.

한유량(韓有良)의 아들은 태유(泰愈)·군수로 있는 두유(斗愈)·참군(參軍)으로 있는 제유(濟愈)·현감으로 있는 기유(起愈)이고, 사위는 국구(國舅)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이다. 한진기(韓震琦)의 계자(繼子)는 석좌(碩佐)인데 생원(生員)이고, 사위는 어영대장(御營大將) 구문치(具文治)이다.

광하(光夏)의 아들은 집(堞)이고, 사위는 정태일(鄭泰一)이다. 희무(喜茂)의 아들은 탄(坦)이다. 외손 및 증손과 현손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승정(崇禎) 후 55년만인 임술년(壬戌年) 3월 일

아들 통훈대부(通訓大夫) 성주목사(星州牧使) 석(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함.

## 남계하(南啓夏) 묘표

所在地.. 壽井區 太平洞山 3-8

建立年代.. 朝鮮 肅宗 16年(1690)

撰 .. 南 彦 成

書 .. 成 任

規 模.. 總高.. 127cm, 碑高.. 110cm, 幅.. 48cm, 厚.. 15cm  
材 質.. 碑身.. 花崗岩, 臺石.. 花崗岩

남계하 묘표는 북정동에서 수진동으로 가는 3번 국도에서 성남 병원을 지나 우측의 자동차매센터 가운데의 지하도로 가면 좌측 산 남경문(南景文)의 묘소 위에 있다.

1690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에는 문양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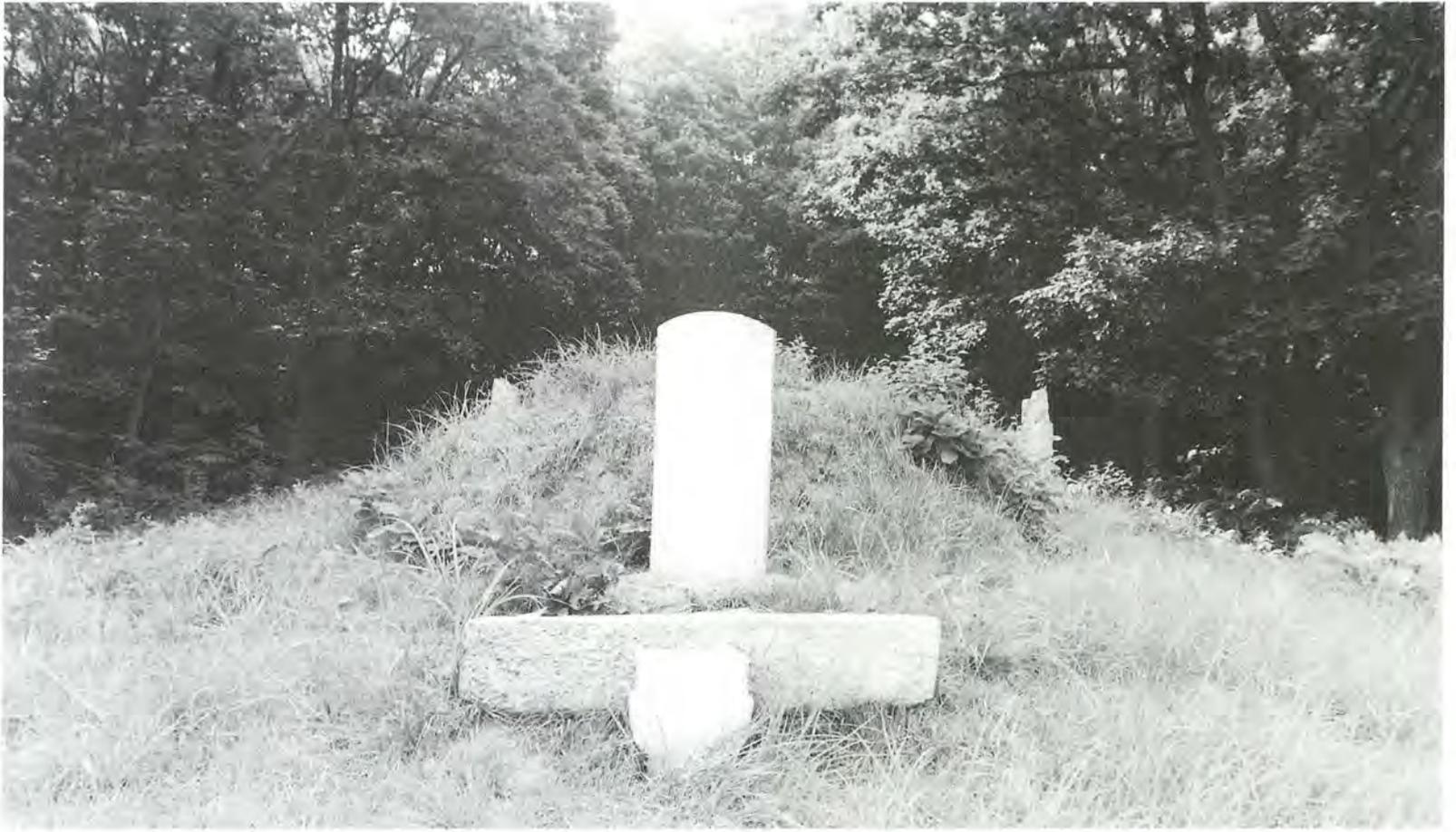
비문은 손자 남언성(南彦成)이 지었고, 앞면 글씨의 자경(字徑)은 8.0cm이며, 음기(陰記) 자경은 2.0cm의 해서로 외중손 성임(成任)이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숙부인 고흥유씨(固興柳氏)와 합장.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이 있다.

남계하(1643~1705)는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자장(子長). 호는 은계옹(隱溪翁). 진위장군(振威將軍) 문성(文星)의 아들이다.

음서(陰敍)로 선공감(繕工監)에 나가게 되었다. 그 뒤 내섬시 주부·활인서 별제를 거쳐, 의금부 도사를 역임하고, 외직으로는 청하 현감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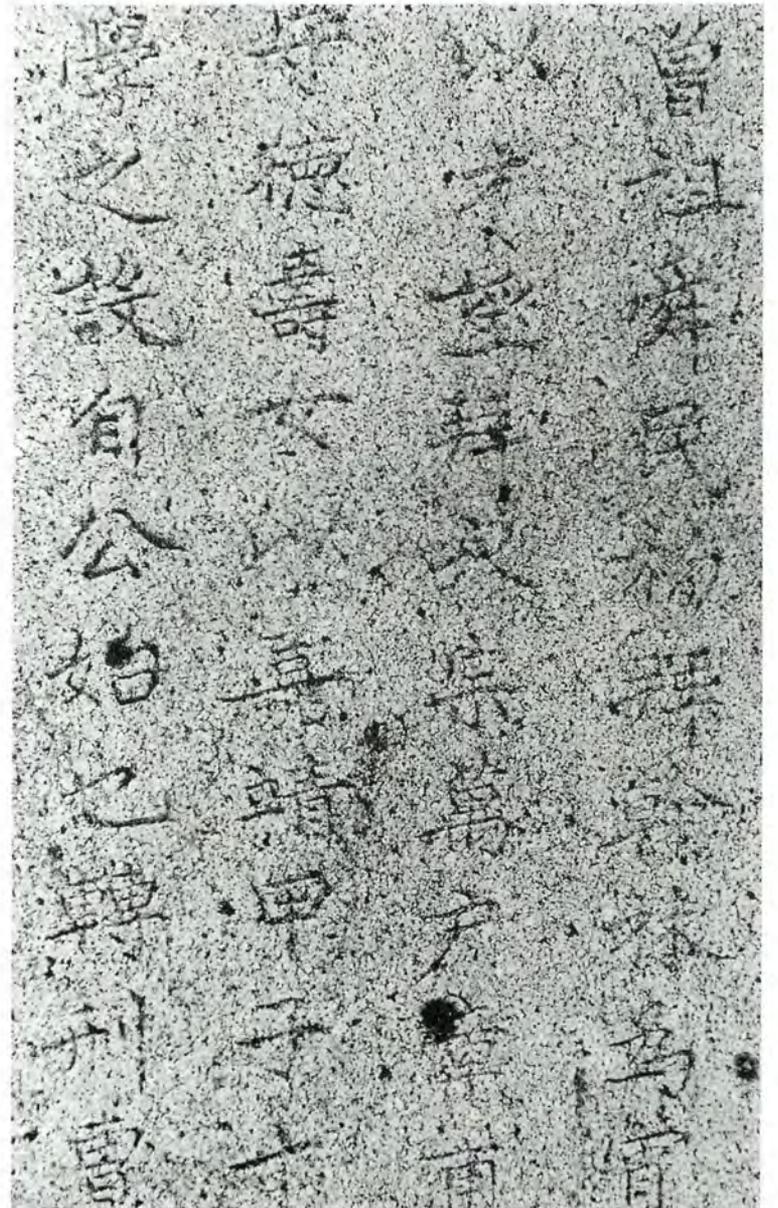
평소 학문에 뜻이 있어 윤원거(尹元擧)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쌓았으며, 특히 윤 증(尹拯)으로부터 가례(家禮)를 배웠다. 남구만(南九萬)은 족중(族從)으로서 항상 존경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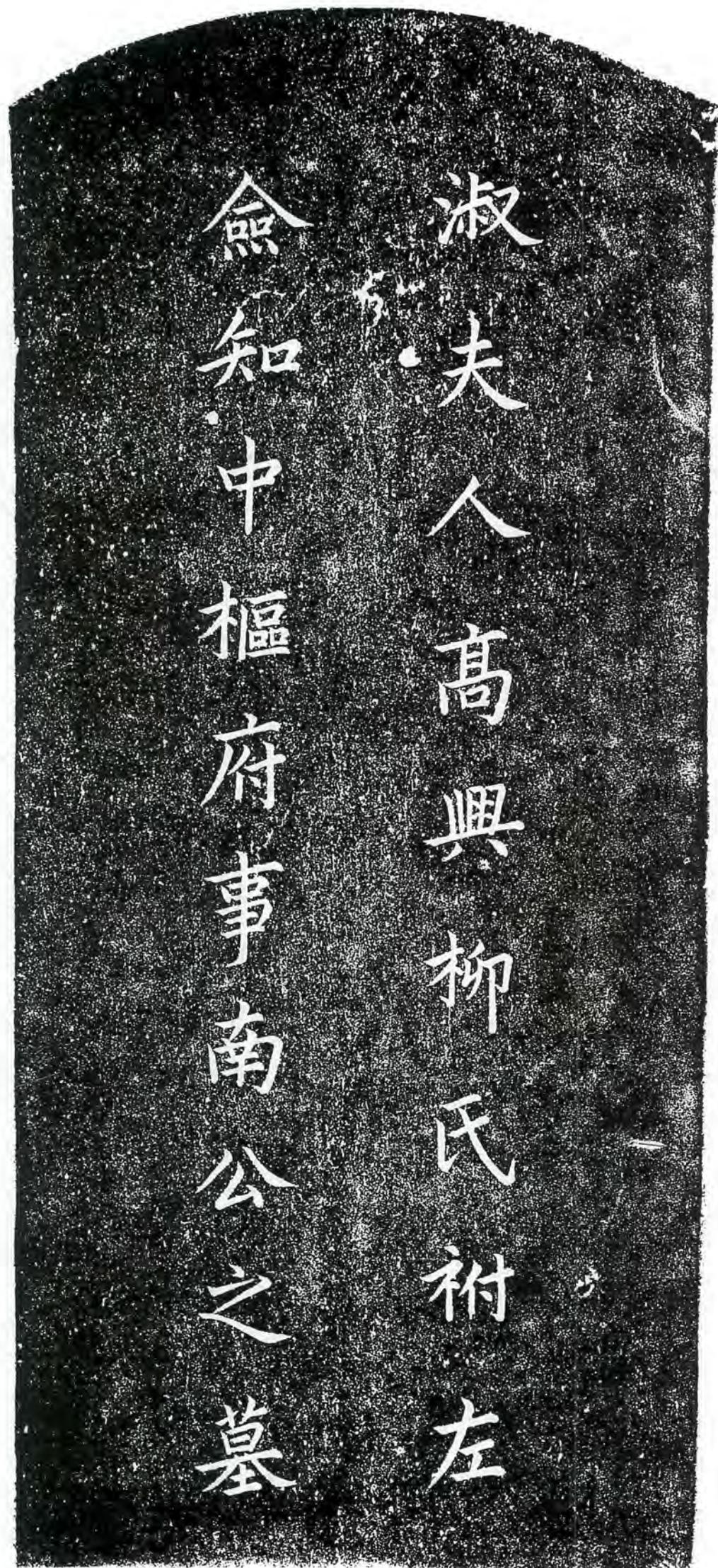
남계하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글씨



公姓南氏諱啓夏字養伯宜寧人開國功臣左議政忠景公諱在九世孫高祖孝元忠清水使曾祖舜民初拜翰林為胥壬蔡無擇所擯連妻不振以耆季階嘉善祖熙壽當國有邊虞特以才望拜永宗萬戶章甫而授是職蓋重海防也諱守身活人別提寔為公考妣南陽洪氏郡守德壽女以嘉靖甲子十一月初四日生公氣質嚴整臨事不苟少以詩聞薦為詩學教官詩學之設自公始也轉刑曹佐郎歷伊川縣監工曹正郎司僕判官遂安郡守八袞陞僉知中樞府事凡任職治民以公廉自居仁愛為政官無廢事邑有遺愛晚年退處振威龜山雖燕居必危坐終夕少無惰容鄉人無不敬式焉崇禎甲申十一月初一日卒享年八十一窆從先地配高興柳氏文科僉正澣女先公二十六季歿乙酉遷祔公塋有三男二女男溟羽弘文校理溟翼兵曹正郎溟翰若宗人進士滌女適僉知李喜叅奉全坤遠側室子二溟翹進士溟翹溟羽無子以溟翼第一子彥成為嗣公之命也內外諸孫至八十餘人

崇禎後庚午四月 日立

孫幼學彥成謹述外曾孫正言成任敬書

【前 面】

淑夫人高興柳氏附左

僉知中樞府使南公之墓

【後 面】

公姓南氏諱啓夏字養伯宜寧人開國功臣左議政忠景公諱在九世孫高祖孝元忠清水使曾祖舜民初拜翰林爲宵壬蔡無擇所擠連蹇不振以耆年階嘉善祖熙壽當國有邊虞特以才望拜永宗萬戶章甫而授是職蓋重海防也諱守身活人別提寔爲公考妣南陽洪氏郡守德壽女以嘉靖甲子十一月初四日生公氣質嚴整臨事不苟少以詩聞薦爲詩學教官詩學之設自公始也轉刑曹佐郎歷伊川縣監工曹正郎司僕判官遂安郡守八秩陞僉知中樞府事凡任職治民以公廉自居仁愛爲政官無廢事邑有遺愛晚年退處振威龜山雖燕居必危坐終夕少無惰容鄉人無不敬式焉崇禎甲申十一月初一日卒享年八十一窆從先兆配高興柳氏文科僉正潑女先公二十六年歿乙酉遷祔公塋有三男二女男溟羽弘文校理溟翼兵曹正郎溟翰后宗人進士渫女適僉知李喜參奉金坤遠側室子二溟翮進士溟翹溟羽無子以溟翼第一子彥成爲嗣公之命也內外諸孫至八十餘人

崇禎後庚午四月 日立

孫幼學彥成謹述外曾孫正言成任敬書

## 【譯 文】

숙부인고흥유씨부좌 침지중추부사남공지묘

공은 성은 남(南), 이름은 계하(啓夏), 자는 양백(養伯),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개국공신(開國功臣) 좌의정(左議政) 충경공(忠景公)으로 이름이 재(在)란 본의 9세손이다. 고조부 효원(孝元)은 충청수사(忠淸水使)를 지내 시고, 증조부 순민(舜民)은 처음에 한림(翰林)에 임명되었는데, 소인 채무택(蔡無擇)에게 배격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떨치지 못하다가 기년(耆年)으로써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오르셨고, 조부 희수(熙壽)는 나라에 변방의 환란이 있을 때 특별히 재주와 명망을 가지고 영종만호(永宗萬戶)에 임명되었는데, 장보(章甫)·儒生)로서 이 직책을 제수 받게 된 것은 아마 해변의 방어를 중요시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름이 수신(守身)이고 활인별제(活人別提)를 지낸 분은 공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 남양 홍씨(南陽洪氏)는 군수를 지낸 덕수(德壽)의 따님이신데, 가정(嘉靖) 갑자년(甲子年) 11월 초 4일에 공을 낳으셨다.

공은 기질이 엄정(嚴整)하여 일을 처리할 때 구차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소시에 시(詩)로 소문이 나서 추천을 받아 시학교관(詩學敎官)이 되었으니, 시학교관이 설립된 것은 공으로 시작되었다. 공은 형조 좌랑(刑曹佐郎)으로 전직되고, 이어 이천현감(伊川縣監), 공조 정랑(工曹正郎), 사복판관(司僕判官), 수안군수(遂安郡守)를 역임하였으며, 80세 때 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오르셨다.

공은 관직을 맡아 백성을 다스릴 적에는 공명과 청렴을 자부하였고, 인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사를 하였기 때문에 관청에는 피폐되는 일이 없고 고을에는 송덕비(頌德碑)가 섰다. 공은 만년에 진위(振威)의 구산(龜山)으로 물러와 거처하였다. 비록 한가하게 계실 때라 하더라도 반드시 온종일 단정히 앉아 계시고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는 용모를 가지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고을 사람 중에는 공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공은 송정(崇禎) 갑신년(甲申年) 11월 초 1일에 작고하니, 향년 81세이셨

다. 묘소는 선산에 썼다. 배위는 고흥 유씨(高興柳氏)로 문과에 급제하여 첨정(僉正)을 지낸 은(澗)의 따님이며, 공보다 26년 먼저 작고하셨는데, 을유년(乙酉年)에 옮겨다가 공의 산소에 부장하였다.

3남 2녀를 두었는데, 맏아들 명우(溟羽)는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를 지내시고, 둘째 아들 명익(溟翼)은 병조 정랑(兵曹正郎)을 지내시고, 셋째 아들 명한(溟翰)은 종인(宗人)인 진사(進士) 설(濶)에게 양자로 가셨다. 딸은 침지(僉知)인 이희(李喜)와 참봉(參奉)인 김군원(金坤遠)에게 각각 시집가셨다. 소실의 아들은 둘인데, 맏아들은 명핵(溟翮)으로 진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명수(溟翹)이다.

명우(溟羽)는 아들이 없어서 명익(溟翼)의 맏아들 언성(彦成)을 후계자로 삼았으니, 공의 분부에 따른 것이다. 안팎 여러 손자들은 80여 명에 이른다.

송정(崇禎) 후경오년(庚午年) 4월 일에 비석을 세움.

손자 유학(幼學) 언성(彦成)은 삼가 글을 짓고,

외증손 정언(正言) 성임(成任)은 경건히 글을 씀.

## 남명의(南溟翼) 묘표

所在地…壽井區 太平洞 山 318

建立年代…朝鮮 肅宗 16年(1690)

撰…南彦成

書…趙尙鵬

規 模…總高…129cm、碑高…115cm、幅…49cm、厚…16cm

材 質…碑身…花崗岩、臺石…花崗岩

남명의 묘표는 북정동에서 수진동으로 가는 3번 국도에서 성남병원을 지나 우측의 자동차매센터 가운데의 지하도로 가면 좌측산 남계하(南啓夏)의 묘 소위에 있다.

1690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에는 문양이 없다.

비문은 아들 남언성(南彦成)이 지었고, 앞면 글씨의 자경(字徑)은 7·0cm이며, 음기(陰記)의 자경은 2·0cm의 해서로 외손자 조상봉(趙尙鵬)이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숙인 신평이씨(新平李氏) 묘소는 좌측, 숙인 우계이씨(羽溪李氏) 묘소는 우측으로 품자형(品字形)、상석·향로석·혼유석·문인석이 있다.

남명의(1542~1585)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의령(宜寧)。자는 대유(大遊)。활인별제(活人別提) 수신(守身)의 손자, 아버지는 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계하(啓夏)이고, 어머니는 첨정(僉正) 유은(柳潑)의 딸이다. 초배(初配)는 교리(校理) 이경익(李慶益)의 딸이고, 후배(後配)는 이후봉(李厚封)의 따님이었다.

공은 7살 때에 벌써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말을 하고, 1564년(명종 19)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전설별검(典設別檢)을 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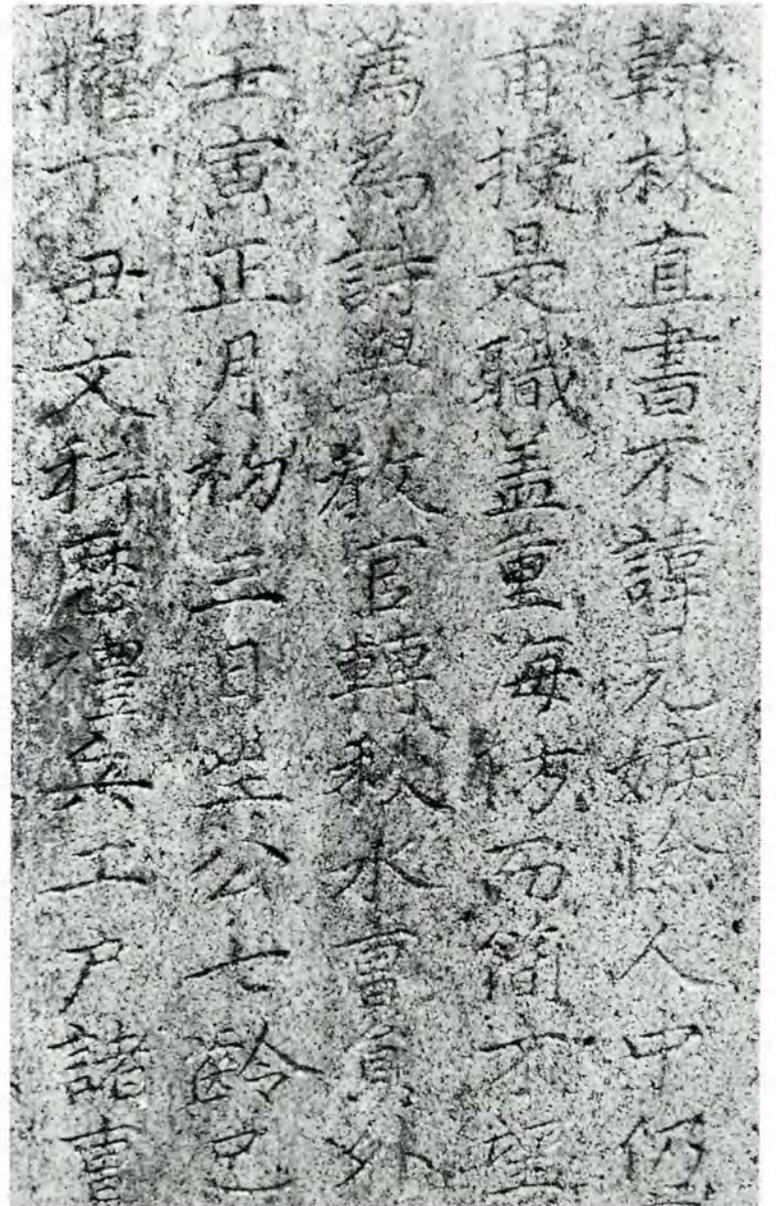
받고 한성참군(漢城參軍)에 임명되었다. 1577년(선조 10) 문과에 뽑혀 예·병·공·호조의 낭관(郎官)과 충청도사(忠淸都事)를 역임하였고, 1582년(선조 15) 서장관(書狀官)으로 요(遼)나라에 다녀왔으며, 안성군수(安城郡守)로 임명되어 선정을 베풀어 그 공을 드러내었다. 본래 강직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조정 벼슬길에 있을 때 주변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일이 없었다고 전한다.



남명의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글씨

淑人新平李氏祔左  
兵曹正郎兼記注官南公之墓  
淑人羽溪李氏祔右

公姓南氏諱溟翼字大遊宜寧人開國功臣左議政忠景公諱在浚也高祖舜民文科同知初拜翰林直書不諱見嫉憚人中仍蹇滯以天爵階嘉善曾祖熙壽永宗萬戶時國有邊虞以章甫授是職蓋重海防而簡才望也祖守身以袞拜活人別提考啓夏僉知中樞府事少以詩聞薦為詩學教官轉秋水曹負外太僕判官八袞陞通政妣高興柳氏文科僉正殷之女以萬曆壬寅正月初三日生公七齡已有驚人語宗禎甲子舉生進試壬申授典設別檢調漢城叅軍擢丁丑文科歷禮兵工戶諸曹即忠清都事壬午以書狀赴遼越明年典安城郡卧閭數月澤洽一境至今稱頌入石不昧甲申丁中樞公憂致毀成疾乙酉十月初二日卒享年四十四葬先壠負辛之原公剛而溫寬而嚴在朝嫉惡如讐居家孝友純至是其性也以公才德位屈即署天文番壽命也初配羽溪李氏校理慶益女重厚安順婦德惟謹歿于癸酉二月有一男一女男彥成后公兄校理公女遠奉事成大顯後配新平李氏學生厚封女嚴毅貞靜閨範甚肅丙寅二月歿前後喪並寔公塋左右有三男一女長彥弼直長次彥相次彥昌騎省郎女遠進士趙仁輔內外男女孫六十餘人

男彥成謹述外孫趙尚鵬敬書

崇禎後庚午四月 日立

## 【前 面】

淑人新平李氏附左

兵曹正郎兼記注官南公之墓

淑人羽溪李氏附右

## 【後 面】

公姓南氏諱溟翼字大遊宜寧人開國功臣左議政忠景公諱在後也高祖舜民文科同知初拜翰林直書不諱見嫉憚人中仍蹇滯以天爵階嘉善曾祖熙壽永宗萬戶時國有邊虞以章甫授是職盖重海防而簡才望也祖守身以蔭拜活人別提考啓夏僉知中樞府事少以詩聞薦爲詩學教官轉秋水曹員外太僕判官八秩陞通政妣高興柳氏文科僉正澂之女以萬曆壬寅正月初三日生公七齡已有驚人語崇禎甲子學生進試壬申授典設別檢調漢城參軍擢丁丑文科歷禮兵工戶諸曹郎忠清都事壬午以書狀赴遼越明年典安城郡臥閣數月澤洽一境至今稱頌入石不昧甲申丁中樞公憂致毀成疾乙酉十月初二日卒享年四十四葬先壟負辛之原公剛而溫寬而嚴在朝嫉惡如讐居家孝友純至是其性也以公才德位屈郎署天又嗇壽命也初配羽溪李氏校理慶益女重厚安順婦德惟謹歿于癸酉二月有一男一女男彥成后公兄校理公女適奉事成大顯後配新平李氏學生厚封女嚴毅貞靜閨範甚肅丙寅二月歿前後喪並窆公塋左右有三男一女長彥弼直長次彥相次彥昌騎省郎女適進士趙仁輔內外男女孫六十餘人

男彥成謹述外孫趙尙鵬敬書

崇禎後庚午四月 日立

【譯 文】

숙인신평이씨부좌 병조정랑겸기주관남공지묘 숙인우계이씨부우

공은 성은 남(南), 이름은 명익(溟翼), 자는 대유(大遊),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개국공신(開國功臣) 좌의정(左議政) 충경공(忠景公)으로 이름이 재(在)란 분의 9세손이다. 고조부 순민(舜民)은 문과에 급제하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지만, 처음에는 한림(翰林)에 임명되어 비리를 숨김없이 곧이곧대로 기록하다가 질시한 무리에게 증상을 입어 관로(官路)에 침체되었다가 천작(天爵)<sup>1)</sup>으로써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오르셨고, 증조부 희수(熙壽)는 영종만호(永宗萬戶)를 지내셨다. 이 때에 나라에 변방의 환란이 있었는데, 장보(章甫)로서 영종만호를 제수 받게 된 것은 아마 해변의 방어를 중요시하여 재주와 명망이 있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부 수신(守身)은 문음(門蔭)으로 활인별제(活人別提)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아버지 계하(啓夏)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오르셨다. 아버지는 소시에 시(詩)로 소문이 나서 추천을 받아 시학교관(詩學敎官)이 되셨다가 형조 좌랑(刑曹佐郎)과 사복판관(司僕判官)으로 전직 되셨고, 80세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셨다. 어머니는 고흥 유씨(高興柳氏)로 문과에 급제하여 첨정(僉正)을 지낸 은(漑)의 따님이신데, 만력(萬曆) 임인년(壬寅年) 정월 초 3일에 공을 낳으셨다.

공은 일곱 살 때에 벌써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말을 하셨다. 숭정(崇禎) 갑자년(甲子年)에는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시고, 임신년(壬申年)에는 전설병검(典設別檢)을 제수 받고, 한성참군(漢城參軍)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정축년(丁丑年)의 문과에 뽑혀서 예조(禮曹)·병조(兵曹)·공조(工曹)·호조(戶曹)의 낭관(郎官)과 충청도사(忠淸都事)를 역임하셨다. 임오년(壬午年)에는 서장관(書狀官)으로 오(遼)에 가셨고, 그 이듬해에는 안성군수(安城郡守)로 임명되어 가셨는데, 부임하신 지 몇 달만에 은택(恩澤)이 온 경내에 입혀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고을 사람들은 공에 대해 칭송을 하고 따라서 송덕비를 세워서 공의 선정(善政)을 드러내고 있다.

갑신년(甲申年)에 중추공(中樞公)의 상을 당하여 너무 슬퍼하시다가 그만

병을 얻어서 을유년(乙酉年) 10월 초 2일에 작고하셨으니, 향년 44세였는데, 선산 신좌(申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공은 강직하면서도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엄격하셨다. 그러므로 조정에 게실 적에는 질시하는 사람들이 원수처럼 미워하였다. 집에 게실 때에는 순진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셨으니, 이것은 타고난 천성이었다. 그러나 공 같은 재덕(才德)으로 직위가 낭서(郎署)에 그치고 말았으니, 하늘은 또 공의 수명에 대해 너무도 인색하였다.

초배(初配)는 우계 이씨(羽溪李氏) 곧 교리(校理)를 지낸 경익(慶益)의 따님으로 중후(重厚)하고 안순(安順)하여 부덕(婦德)이 계셨는데, 계유년(癸酉年) 2월에 작고하셨다. 1남 1녀를 두셨으니, 아들 언성(彦成)은 공의 형님이신 교리공(校理公)에게 후계자로 갔고, 딸은 봉사(奉事) 성대현(成大顯)에게 시집갔다.

후배(後配)는 신평 이씨(新平李氏) 곧 학생(學生) 후봉(厚封)의 따님으로 엄의(嚴毅)하고 정정(貞靜)하여 규범(閨範)이 엄숙하였는데, 병인년(丙寅年) 2월에 작고하셨다. 뒤에 두 배위분은 공의 무덤 좌우에 합폄하였다. 후배는 3남 1녀를 두셨으니, 맏아들은 언필(彦弼)로 직장(直長)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언상(彦相)이고, 셋째 아들은 언창(彦昌)으로 기성(騎省)·병(兵曹)의 낭관(郎官)을 하고 있다. 딸은 진사(進士) 조인보(趙仁輔)에게 시집갔다. 안팎 남녀의 손은 60여 명이 된다.

아들 언성(彦成)은 삼가 글을 짓고, 외손 조상봉(趙尙鵬)은 경건히 글을 씀.

숭정(崇禎) 후 정오년(庚午年) 4월 일 에 비석을 세움.

1) 천작(天爵) : 자신의 함양을 통하여 천연적으로 얻는 연치(年齒) 및 인(仁)·의(義)·충(忠)·신(信) 등을 가리킨다.

# 이경인(李敬仁) 묘표

指定番號 · 京畿道 記念物 第118號

所在地 · 盆唐區 亭子洞 山 33-1 (陵谷)

建立年代 · 朝鮮 肅宗 22年 (1696)

規 模 · 總高 · 148 cm, 碑高 · 120 cm, 幅 · 49 cm, 厚 · 15 cm

材 質 · 碑身 · 花崗岩, 臺石 · 花崗岩

이경인 묘표는 한국토지공사 운동장 뒤 좌측 등산로변에 남서향(南西向)으로 배치되어 있다.

1696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에는 당초문(唐草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이 비는 찬·서자(撰書者)가 없으며 앞면의 자경(字徑)은 8·5cm이고, 음기(陰記)는 2·5cm의 해서(楷書)로 썼다.

비의 상태는 좌우측면이 마멸이 심해 판독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숙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와 합장.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문인석·망주석이 있다.

이경인(1575~1642)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극보(克甫). 호는 정촌(亭村). 화릉군(花陵君) 수혜(秀惠)의 손자. 인원수(仁原守) 강(樞)의 아들이다.

1610년(광해군 2) 음보(蔭補)로 내시교관에 제배되었고, 1612년 인의(引義)로 옮겼다. 이듬해 강동현감으로 부임하였고, 1616년(광해군 8) 개성도사(開城都事)·우봉현감을 역임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었다. 이후 상의·함흥판관을 역임하고, 1629년(인조 7) 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이듬해 군기시 첨정을 역임하였으며, 16

40년(인조 18)에 안산현감. 이듬해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에 제수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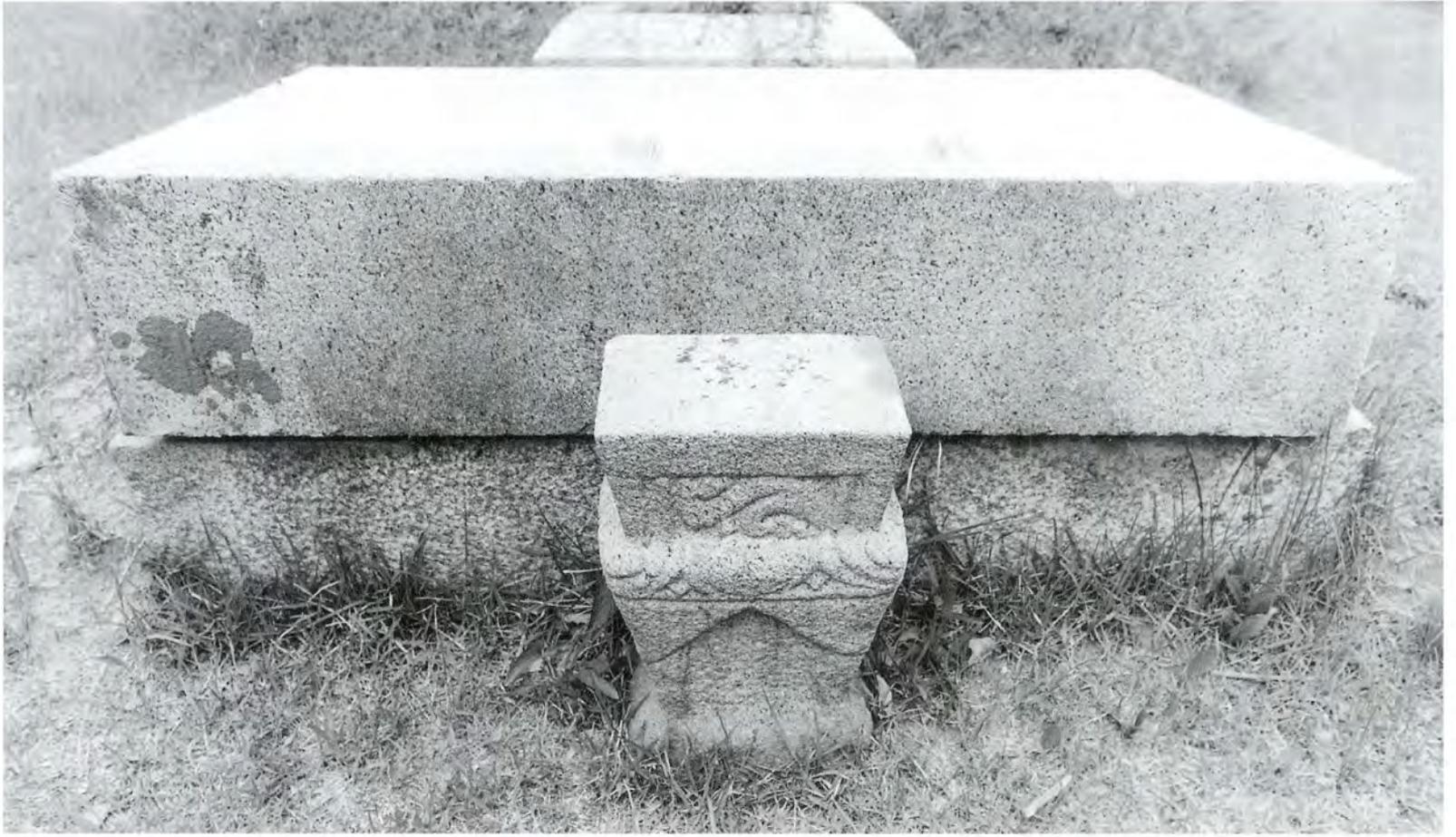
이경인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일부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



49×120





15×120



15×120

## 【前面】

淑夫人南陽洪氏祔

使李公敬仁之墓

通政大夫行利川府

## 【後面】

有明朝鮮國通政大夫行利川都護府使廣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李公墓表

公諱敬仁字克甫 成廟第十一子茂山君諱悰四世孫也曾祖諱鶴壽永安正祖諱秀惠 贈花陵君  
考諱檀仁原守妣平山申氏庶尹孝仲女公以萬曆乙亥二月二十九日年十一歲失怙恃鞠於從曾祖  
泰安君乃長從師儒門□學禮□寒岡鄭先生飭行修業屢舉不第庚戌蔭補內侍教官壬子陞引儀兼  
參□癸丑監江東縣丙辰移開城都事庚申移牛峰甲子适叛守宰奔迸進公供餼無闕以勞錄原從秩  
滿歷尙衣判官通判咸興己巳遞授中樞經歷庚午大臣 啓□軍器僉正秋守高城甲戌拜刑曹正郎  
兼訓局餉郎復以軍器僉正守安城丙子虜亂圻甸創甚公獨守郡窖倉粟以餉勤王師餘穀尙鉅列邑  
賴以播耕事 聞特賜緋及瓜加一朞適拜五衛將庚辰除安山辛巳遷利川壬午七月二十九日卒于  
任所享年六十八葬于廣州治南突馬親峴艮坐之原距仁原公墓南三里許前夫人東萊鄭氏同原異  
室議政彥信女生一女適□□尹逮之後夫人南陽洪氏祔左判官堯佐女生于丙戌以癸未六月十一  
日終生二男二女男長錫命宣務郎次錫亨進士女適府尹李檜學生洪振翰□□女府使田□宣務

## 【右側面】

郎□□□□女四男□□□□□□生員胤興益興生員二女士人趙□一□進士□□司  
□□女三男□□□□□□□□興二女士人俞命新□□沈相尹逮之三男堤垣壻李檜五  
男夏徵周徵皆縣監明徵生員道徵武科大徵生員田□二男德普德閏武科內外曾玄百餘人公儀□

## 【左側面】

□□□□□□所□□□聞人所莅職□□□而以□□□□□□去思□□議將大用公□役壽  
與位俱不滿德嗚呼痛哉嘉□□非止一二而不肖孫不敢撰述只記世□官爵子孫如右

崇禎戊辰後六十九年十月

日立

【譯 文】

숙부인남양홍씨부 통정대부행.이천부사이공경인지묘

유명 조선국 통정대부 행 이천도호부사 광주진관 병마 동 첨절제사 이공(李公) 묘표

공은 이름은 경인(敬仁)이시고, 자는 극보(克甫)이신데, 성종대왕의 11째 아들로 무산군(茂山君)에 봉해지고 이름을 종(綜)이라고 하신 분의 4세손이시다. 증조부는 이름을 학수(鶴壽)라고 하는데, 영안정(永安正)을 지내셨고, 조부는 이름을 수혜(秀惠)라고 하는데, 화릉군(花陵君)에 추증되었고, 아버지는 이름을 강(樞)이라고 하는데, 인원수(仁原守)를 지내셨으며, 어머니는 평산 신씨(平山申氏)로 서윤(庶尹)을 지낸 효중(孝仲)의 따님이시다.

공은 만력(萬曆) 을해년(乙亥年) 8, 1575) 2월 29일에 11세로 부모를 여의고 종증조(從曾祖)인 태안군(泰安君) 彭壽)에게서 길러지셨다. 이 미 자라서는 유문(儒門)에 종사하여 □에□를 한강(寒岡) 정(鄭) 述) 선생에게 배우는 등 열심히 행동을 가다듬고 학업을 닦으셨다. 뒤에 여러 차례 과거를 보았으나 급제하지는 못하셨다. 그러다가 경술년(庚戌年)에는 문음(門蔭)으로 내시교관(內侍敎官)에 보임되었고, 임자년(壬子年)에는 인의(引儀)로 승진됨과 동시에 참□(參□)을 겸하셨고, 계축년(癸丑年)에는 강동현감(江東縣監)으로 나가셨고, 병진년(丙辰年)에는 개성도사(開城都事)로 옮기셨고, 경신년(庚申年)에는 우봉(牛峰)으로 벼슬자리를 옮기셨다.

갑자년(甲子年) 仁祖 2, 1624)에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수재(守宰)는 도망갔는데, 공은 임소(任所)를 끝까지 지키면서 진상하는 공공(公供) 물자를 □ 빠뜨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공훈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에 기록되었다.

관질(官秩)이 차차, 상의원 관관(尙衣院判官)과 함흥통판(咸興通判)을 역임하시고, 기사년(己巳年)에는 중추경력(中樞經歷)으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경오년(庚午年)에는 대신(大臣)의 권의에 의해서 군기첨정(軍器僉正)에 임명되

셨고, 그 해 겨울에는 고성군수(高城郡守)로 나가셨고, 갑술년(甲戌年)에는 형조 좌랑(刑曹佐郎)에 임명되는 동시에 훈국향랑(訓局餉郎)을 겸하셨다가 다시 군기첨정으로 안성군수(安城郡守)에 임명되어 나가셨다.

병자년(丙子年) 호란(胡亂) 때에는 경기 지방이 가장 상처가 심하였는데, 공만은 고을을 지키면서 창고의 곡식을 잘 관리하여 근왕사(勤王師)1)에게 군량을 조달하였으며, 그러고도 남은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 열읍(列邑)이 그를 힘입어서 씨를 뿌려 경작을 할 수가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조대왕은 특별히 공에게 비의(袞衣)를 하사하셨다. 임기가 차자, 인조대왕은 공에게 1년을 더 안성군수로 있게 하였고, 그 후에 오위장(五衛將)으로 교체해서 임명하셨다.

경진년(庚辰年)에는 안산(安山)의 원으로 임명되시고, 신사년(辛巳年)에는 이천(利川)의 원으로 옮기셨다. 임오년(壬午年) 7월 29일에 임소에서 작고하시니, 향년 68세였다. 광주(廣州) 읍소재지 남쪽 돌마(突馬) 친현(親峴) 親山) 간좌(良坐)의 자리에 안장하니, 바로 인원공(仁原公)의 묘소 남쪽으로 3리쯤 떨어진 곳이다.

전부인(前婦人) 동래 정씨(東萊鄭氏)는 공과 자리는 같으나 혈(穴)은 다르게 안장되었는데, 바로 의정(議政)을 지낸 언신(彦信)의 따님이셨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 윤채지(尹逮之)에게 시집갔다. 후부인(後婦人) 남양 홍씨(南陽洪氏)는 공의 묘소 왼쪽에 부장되었는데, 바로 판관(判官)을 지낸 요좌(堯佐)의 따님으로서 병술년(丙戌年)에 태어나서 계미년(癸未年) 6월 11일에 작고하시고, 2남 2녀를 낳으셨으니, 장남은 석명(錫命)인데 선무랑(宣務郎)을 지내시고, 차남은 석형(錫亨)인데 진사(進士)였으며, 딸은 부윤(府尹)이 피(李櫛)와 학생(學生) 홍진수(洪振輸)에게 각각 출가하셨다.

□□□□ 딸 부사(府使) 전□(田□) 선무랑(宣務郎) □□□□□□ 딸 4남 □□□□□□□□ 생원(生員) 윤흥(胤興)과 익흥(益興) 생원(生員) 2녀 사인(士人) 조□일(趙□一) □□ 진사(進士) □□ 사(司) □□ 여(女) 3남 □□□□□□□□□□ 홍(興) 2녀 사인(士人) 유명신(俞命新) □□ 심상(沈相)

1) 근왕사(勤王師) 勤王(勤王)를 위하여 힘쓰는 군사.

윤체지는 3남을 두었으니, 제(堤)·원(垣)·옥(握)이다. 이괴는 5남을 두었  
 으니, 하징(夏徵)과 주징(周徵)은 다 현감(縣監)이고, 명징(明徵)은 생원(生  
 員)이고, 도징(道徵)은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대징(大徵)은 생원(生員)이다.  
 전□은 2남을 두었으니, 덕보(德普)와 덕윤(德潤)인데, 덕윤은 무과에 급제  
 하였다. 내외의 증손과 현손은 백여 명이나 된다.

공은 의표가 □□□□□□□□□□ 소(所) □□□□ 문인소위직(聞人所莅職) □□□□  
 이이(而以) □□□□□□□□□□ 거사(去思) □□□□ 의(議) 장차 크게 쓰여지리라  
 고 하였는데, □□□□ 수명과 직위가 모두 덕에 차지 못하였으니, 아! 슬프도  
 다. 아름다운 □□□□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데, 불초손이 감히 찬술(撰述)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세계(世系)·관작(官爵)·자손(子孫) 관계만을 이상  
 과 같이 적는다.

송정(崇禎) 무진년(戊辰年) 후 69년 10월 일에 비석을 세움.

## 이철영(李哲英) 묘표

所在地…盆唐區 石雲洞 山 16-18

建立年代…朝鮮 肅宗 28年(1702)

撰…徐宗泰

書…趙相愚

規模…總高…199cm, 碑高…164cm, 幅…63cm, 厚…27cm

材質…碑身…花崗岩, 臺石…花崗岩

이철영 묘표는 판교에서 안양으로 가는 57번 국도에서 이경석(李景奭) 묘소 입구 안내판을 따라 산을 넘어가면 이경석 묘소 앞산에 있다.

1702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 4면에 당초문(唐草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비문은 서종태(徐宗泰)가 지었고, 앞면 글씨의 자경(字徑)은 11·0cm이고, 음기(陰記) 자경은 2·0cm의 행서(行書)로 조상우(趙尙愚)가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증숙부인 보성오씨(寶城吳氏)와 합장, 증정부인 기계유씨(杞溪兪氏)는 묘하(墓下)에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장명등·문인석이 있다. 그리고 영조 27년(1751)에 건립한 기계유씨의 비좌 원수 묘표는 이광회(李匡會)가 비문을 지었고, 이광사(李匡師)가 썼다.

1999년 6월에 세운 비좌 개석의 송덕비(頌德碑)가 묘소 좌측에 있다. 이철영(1613~1662)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자는 사명(士明)。정종대왕의 아들로 덕천군(德泉君)에 봉해진 후생(厚生)의 후손,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백헌(白軒) 경석(景奭)이고, 어머니는 관찰사로 영의정에 추증된 유 색(柳穡)의 딸이다.

1646년(인조 24) 진사시에 합격하여 금부도사(禁府都事)에 임명되고, 후에 귀후서별제(歸厚署別提)·사섬시주부(司贍寺主簿)·사복시주부(司僕寺主

簿)를 역임하였다.

1649년(인조 27)에는 통진(通津) 수령이 되었고, 1651년(효종 2) 안협현(安峽縣) 수령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어 훌륭한 선행 미덕을 남겼고, 후에 사재주부(司宰主簿), 양천현감(陽川縣監) 평시서령(平市署令) 등에 전임되기도 했다.

공은 성격이 엄하였으나 언행은 부드럽게 하며, 부모에 효성과 형제 우애가 지극하고, 개나 말 같은 동물도 꾸짖지 않아 언행의 삼가함이 방자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철영 묘소 전경



기계유씨 묘표



묘 표



이철영 향로석



문인석



기계유씨 향로석



기계유씨 묘소 전경

贈淑夫人寶城吳氏附左  
平市署令 贈左承旨李  
公哲英之墓

公諱哲英字士明李為 國姓領議政白軒先生之子 贈領議政同樞公之孫其世曰有諱厚生德泉君謚積德以 定宗恭靖大王諱  
子始受封新宗君恭簡公孝伯莞城君貴丁 贈成豐君繼壽即其後三世而曾祖諱秀光 贈資成同樞公諱准保白軒公諱景奭行為  
世即稱法家配貞敬夫人全州柳氏觀察使 贈領議政穡之弟澍推通義理簡範甚備以萬曆癸丑正月二十八日生公克鍾厥美勤  
息嬉游不出典訓甫踰十歲從外傳學傳常稱之曰其心如玉石成中上舍逆既祥禁府都事這有違獄鞠事殿以辨職稱叙 官闕監造  
考陞歸卷署別提改司贍主簿又主司僕寺簿己丑出宰通津時相國公在首揆清人有疑忠於我馳使德鳴語且及 上躬危禍懼懷相  
國公抗辭自當遂至梅棘白馬城公不為于職自解歸行自太僕官安峽縣甲午北使至氣甚張 考廟命相國公及李相國敬輿姑欽  
避于外而 特令相國公之子邑蓋 上知相國公無在園可歸而有此異也既行柳夫人亦繼至以相臣子曰 上命奉二親官衛而  
修專城之營前所未有也一世榮艷之公聚邑之萬年為養老宴佐以樂且令其子孫扶携之孝艾績然歌詠黃堂而公之舞練以承歡貴  
年錫類之美其焉邑人傳以為希觀盛事時檢括外邑奴婢多虐張以承公獨以實一無所增遂被中考後御史得其狀甚直之官滿歸民  
碑之頌其德惠拜日亭主簿尋出守陽川縣四年罷歸由活人署別提遷守布署令偶隨親魚之會暴得疾相國公執手而憂之 以不病對  
而經日竟不起至宣九月二十五日也享年五十五歲公性嚴而醇孝友萬至平日在親側油油翼翼禮謹而色婉叱咤之聲不及犬馬  
其出入家庭之間一言一步未嘗敢肆言相國公柳夫人春秋高家素清貧而公彈力日治台瀨躬飭調膳每當注辰令節極備具獻觴邀  
諸親賓位敬務以愉適親心意間之內常問如也其但職也未嘗侵厲來治辨聲與一出忱恂藹然有古循良之風以相國公之任臺  
宜若在於人而不求聽美而進治其寒素等此可以知公之家之可以識公冲雅之操也歟公蓋此合美不幸而不得年官位小功施靡  
所見又不幸其養而貽二尊人之戚人控善人之無祐焉配泚人實城吳氏自慶院正仍敏之女柔嘉有婦德佐公而孝敬備至相國公之  
文曰入家三十餘年未嘗有違於禮志生與公同年先公四年戊戌卒己亥移葬丁向之窆即廣州道潘先兆也公之卒於權定發所

謝人慕衣而舍奕焉後配祀漢命氏父樂而不議政弘之玄孫也廟見未踰年而失天甲辰年壽二十四歲以子羽成泥勳 贈公承政院  
 左承旨二淑人從 贈淑夫人吳夫人舉二男四女長羽成冠擢進士壯元卒官正郎履成令修陵縣令如長遠宋談縣監次黃鑑縣監  
 次趙馮紀餘天命夫人一女柳鳳庭正郎娶學生鄭以和女男真養進士都事直學生貞壯元泰奉女朴呼漢金鉉成真男曰匡一匡賢  
 匡烈二女幼真學男曰匡德匡道匡道一幼縣令娶 贈承旨尹源慶之女男真佐真鼎進士女尹東尚洪應夢季未行真佐男曰匡華  
 匡周二女幼真男曰匡基 女幼來出 揚廷光廷良廷望而中負 毀華李世寶進士吳永勳其婿也黃出應聖而朴惠東岩坐金葉  
 年稚益謹字瑞鎮李碩淵其婿也趙世鳳齡鳳卿鳳微而尹得龍其婿也柳一 女李徽秀其婿也外孫出多不盡記相國老先生支章德業

27×164

仲然世允孫仁厚君子感澤錄休宜有以委社於茲矣承家惟公一人而不克有於其躬已詳公以文行名而不偶而又享年祿命公尚亦  
 極通縣級槐陰在庭而聲業察冥々都事君厚范兄弟俱以才譽世其家又其盈庭廡闈者始好詞多世之論善家守法久而不真者歸  
 焉主者積厚派長而繩武之望其將在斯歟縣令公有書未曰先人慕顏范無識先伯治圭首石功未及就今別具石鏡陰之文徽惠于子  
 非以余有文而以有世好之厚也則義不得俸辭公主英相國公為之誌宗恭雅中公淳仍而今所條次舉據相國公之辭也  
 資憲大夫禮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同  
 知 經筵事 世子右副賓客徐宗恭撰 資憲大夫刑曹判書趙相惠書

皇明崇禎紀元後七十五年壬午九月 日

27×164

## 【前 面】

贈淑夫人寶城吳氏附左

平市署令 贈左承旨李

公哲英之墓

## 【後 面】

公諱哲英字士明李爲 國姓領議政白軒先生之子 贈領議政同樞公之孫其世曰有諱厚生德泉君諡積德而 定宗恭靖大王諸子始受封新宗君恭簡公孝伯莞城君貴丁 贈咸豐君繼壽卽其後三世而曾祖諱秀光 贈贊成同樞公諱惟侃白軒公諱景奭行爲世師稱法家配貞敬夫人全州柳氏觀察使 贈領議政穡之女淑哲通義理闡範甚備以萬曆癸丑正月二十八日生公公克鍾厥美動息嬉游不出典訓甫踰十歲從外傳學傳常稱之曰其心如玉丙戌中上舍選卽拜禁府都事適有逆獄鞫事殷以辦職稱叙 宮闕監造勞陞歸厚暑別提改司贍主簿又主司僕寺簿己丑出宰通津時相國公在首揆清人有疑怒於我馳使恣喝語且及 上躬危禍懷懷相國公抗辭自當遂至栴棘白馬城公不安于職自解歸辛卯自太僕宰安峽縣甲午北使至氣甚張 孝廟命相國公及李相國敬輿姑斂避于外而 特令相國公之子邑蓋 上知相國公無庄園可歸而有此異數也旣行柳夫人亦繼至以相臣子因 上命奉二親官衙而修專城之養前所未有也一世榮艷之公聚邑之高年爲養老宴佐以樂且令其子孫扶携之蓋艾績然歌謳黃堂而公亦舞綵以承歡貴年錫類之美具焉邑人傳以爲希觀盛事時檢括外邑奴婢多虛張以承公獨以實一無所增遂被中考後御史得其狀甚直之官滿歸民碑之頌其德惠拜司宰主簿尋出守陽川縣四年罷歸由活人暑別提遷平市暑令偶隨親黨之會暴得疾相國公執手而憂之以不病對而經日竟不起壬寅九月二十五日也享年董五十歲公性嚴而行醇孝友篤至平日在親側油油翼翼禮謹而色婉叱咤之聲不及犬馬其出入家庭之間一言一步未嘗敢肆焉相國公柳夫人春秋高家素清貧而公殫力日治旨灑躬飾調膳每當佳辰令節輒供具獻觴邀諸親賓佐歡務以愉適親心庭闈之內常闔如也其任職也未嘗皎厲求治辦聲而一出忱恂藹然有古循良之風以相國公故公之仕塗宜若在於人右而不求膺美平進殆與寒素等此可以知公之家亦可以識公冲雅之操也歟公蘊此令美不幸而不得年官位小功施靡所見又不卒其養而貽二尊人之戚人疑善人之無祐焉配淑人寶城吳氏司饗院正行敏之女柔嘉有婦德佐公而孝敬備至相國公之文曰入吾家三十餘年未嘗有違於禮者生與公同年先公四年戊戌卒己亥移葬丁向之岡卽廣州道論先兆也公之卒始權窆癸卯穿

## 【右側面】

淑人墓右而合葬焉後配杞溪俞氏父槃而右議政泓之玄孫也廟見未踰年而失天甲辰卒壽二十四後以子羽成從勳 贈公承政院

左承旨二淑人從 贈淑夫人吳夫人舉二男四女長羽成弱冠擢進士壯元卒官正郎屢成今臨陂縣令女長適宋揆縣監次黃鎰縣監次趙鴻紀餘夭俞夫人一女柳鳳庭正郎娶學生鄭以和女男眞養進士都事眞望生員壯元參奉女朴師漢金鎮成真養男曰匡一匡質匡烈二女幼眞望男曰匡德匡道匡誼一女幼縣令娶 贈承旨尹源慶之女男眞佐眞鼎進士女尹東尙洪應夢季未行眞佐男曰匡華匡周二女幼眞鼎男曰匡基一女幼宋出廷揚廷光廷良廷望而生員李致蕃李世寶進士吳永勳其婿也黃出應聖而朴惠東別坐朴萬年權益謙李瑞鎮李碩潤其婿也趙出鳳齡鳳卿鳳徵而尹得龍其婿也柳一女李徵秀其婿也外孫出多不盡記相國老先生文章德業

## 【左側面】

偉然世尤稱仁厚君子盛澤餘休宜有以委社於後矣承家惟公一人而不克有於其躬正郎公以文行名而不偶而又無年縣令公尙亦棲遲縣絀槐陰在庭而聲業寂寞今都事君群從兄弟俱以才學世其家又其盈庭庶間者娟好朗秀世之論舊家守家法久而不衰者歸焉意者積厚流長而繩武之望其將在斯歟縣令公有書來曰先人墓顏沆無識先伯治圭首石功未及就今別具石鑱陰之文徼惠于子非以余有文而以有世好之厚也則義不得終辭公之葬相國公爲之誌宗泰雅聞公淳行而今所條次概据相國公之辭也

資憲大夫禮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同

皇明崇禎紀元後七十五年壬午九月 日

知 經筵事 世子右副賓客徐宗泰撰

資憲大夫刑曹判書趙相愚書

## 【譯 文】

증숙부인보성오씨부좌 평시서령 증좌승지이공철영묘지묘

공은 이름은 철영(哲英), 자는 사명(士明), 성은 국성(國姓)인 이(李)인데,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백헌(白軒) 선생의 아들이고, 영의정에 추증된 동추공(同樞公)의 손자이다. 그 세대에 이름은 후생(厚生)으로 덕천군(德泉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적덕(積德)이란 이가 있었는데, 바로 정종(定宗) 공경대왕(恭靖大王)의 아들로써 비로소 봉군(封君)을 받았고, 신종군(新宗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공간(恭簡)인 효백(孝伯)과 완성군(莞城君)에 봉해진 귀정(貴丁)과 함풍군(咸豐君)에 추증된 계수(繼壽)는 바로 그 후 3세이다.

그리고 증조부는 이름이 수광(秀光)인데 찬성(贊成)에 추증되었고, 동추공(同樞公)은 이름이 유간(惟侃)이고, 백헌공(白軒公)은 이름이 경석(景奭)인데, 행동이 세상의 사표(師表)가 되어 법가(法家)라고 일컬어졌다. 배위(配位)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전주 유씨(全州柳氏) 곧 관찰사(觀察使)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색(穡)의 딸로서 현숙하고 명철하며 의리에 통하고 규범(閨範)을 철저히 갖추었는데, 만력(萬曆) 계축년(癸丑年) 정월 28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부모의 아름다운 점을 잘 계승하여 행동거지는 물론, 유희(遊戱)를 함에 있어서도 전훈(典訓)에 벗어나지 않았다. 겨우 열 살 넘어 밖에 있는 스승에게 가서 공부할 하였는데, 스승은 늘 칭찬하기를 「그 마음이 옥처럼 온화하다.」고 하였다.

병술년(丙戌年)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곧 금부도사(禁府都事)에 임명되었다. 이때에 마침 역옥(逆獄)이 있어 국문(鞫問)하는 일이 많았는데,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일컬어졌다. 그리고 공궐 짓는 일을 열심히 감독한 공으로 귀후서 별제(歸厚署別提)에 승진되었다. 다시 사섬시 주부(司贍寺主簿)로 전직되었다가 또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로 임명되었다. 기축년(己丑年)에는 통진(通津)의 수령으로 나아갔다.

이때에 상국공(相國公)은 영상으로 있었다. 청(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 오해를 갖고 사신을 보내와서 공갈협박을 하였는데, 그 언사가 상감에게 파급되어 위급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자 상국공은 말로 대항하며 자신이 책임

을 졌다. 그러다가 상국공은 결국 백마성(白馬城)에 위리안치되었다.1) 그러자 공은 관직에 있는 것이 불안해서 스스로 관직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뒤 신묘년(辛卯年)에는 태복시(太僕寺)로부터 안협현(安峽縣)의 수령으로 나아갔다. 갑오년(甲午年)에 청나라 사신이 와서 기고만장 법석을 떨자, 효종 임금은 상국공과 이상국 경여(李相國敬輿)에게 명하여 우선 밖으로 피신하게 하고서 특별히 상국공은 그 아들이 부임해 있는 안협현으로 가도록 하였으니, 그것은 아마 효종 임금이 상국공은 돌아갈 장원(庄園)이 없음을 알고 이와 같이 색다른 배려를 한 것이리라. 상국공이 이미 안협현에 도착하고 나니, 유부인(柳夫人) 또한 잇따라 도착하였다. 상신(相臣)의 아들로써 국왕의 명에 의하여 양친을 관아(官衙)에 모시고 봉양하는 일은 전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기며 부러워하였다.

공은 안협현에 있는 나이 많은 노인들을 모아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고 풍악으로 그 흥취를 도왔으며, 또한 그 자손들로 하여금 노인들을 부축하게 하였다. 노인들은 백발을 휘날리며 황당(黃堂)에서 노래를 불렀고, 공 또한 채색 옷을 입고 춤을 추어서 노인들을 기쁘게 하였으니, 노인을 존경하고 효심을 다하는 선행의 미덕이 모두 갖추어졌다. 이를 지켜본 고을 사람들은 흔히 없는 훌륭한 일이라 하였다.

이 때에 외읍(外邑)의 노비(奴婢)들을 조사해 내라는 명이 각 고을에 전달되었다. 그러자 허위로 수를 불려서 보고하는 수령들이 많았으나 공만은 실제대로 알리고 한 명도 불리지 않았더니, 결국 수령의 성적이고사에서 중고(中考)를 받았다. 뒤에 어사(御史)가 그에 대한 뒷조사를 해보니 너무도 정직한 처사였다. 그래서 공은 임기가 차서 돌아가게 되었고, 그 고을 백성들은 송덕비를

1) 청(淸) 나라가 위리안치되었다... 효종의 북벌계획이 이언표(李彦標) 등의 밀고로 청나라에 알려짐으로써 사문사건(查問事件)이 일어나게 되었다. 청나라의 사문사(查問使)는 남별궁(南別宮)에서 영의정 이경석과 여러 중신들을 세위놓고 북벌계획을 사문, 치죄하고자 하여 조정은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경석은 끝까지 국왕을 변호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국왕과 조정의 위급을 면하게 하였다. 이에 청나라 사신들로부터 「대국을 기만한 죄」로 몰려 극형에 처하게 되었으나 국왕이 구명을 간청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청제(淸帝)의 명에 의하여 백마성에 위리안치되게 되어 있던 것이다.

세워서 공의 은덕을 칭송하였다.

공은 중앙으로 와서 사재주부(司宰主簿)에 임명되었고, 얼마 후에 양천현감(陽川縣監)으로 나아갔다가 4년 만에 갈려 돌아왔으며, 또한 활인서 별제(活人署別提)로 말미암아 평시서 영(平市署丞)으로 옮겨갔다. 공은 우연히 친당(親黨)의 모임에 따라갔다가 갑자기 병을 얻었다. 상국공이 손을 잡고 걱정을 하자, 공은 전연 병이 없는 태도로 대하였으나 날이 지나자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 날은 바로 임인년(壬寅年) 9월 25일이었고, 향년은 겨우 50세였다.

공은 성격은 엄하였으나 언행은 부드럽게 하였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에 대한 우애도 지극하였다. 평소 어머니 곁에 있을 적에는 온화하고 공손한 태도를 가졌다. 예절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늘 조심하였으나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갖는 면에 있어서는 항상 얼굴빛을 부드럽고 화열하게 하였다. 그리고 개나 말 같은 동물도 꾸짖지 않았다. 또한 가정을 드나들 때에는 말한 마디, 걸음 한 걸음도 감히 방자하게 하지 않았다.

상국공과 유부인은 춘추가 높고, 가정 형편은 청빈하였으나, 공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를 봉양하였다. 날마다 부모에게 드릴 음식을 장만할 때에는 몸소 반찬을 만들었고, 매번 명절을 당하면 음식을 길게 장만한 다음, 어머니의 친구들을 맞아다가 즐겁게 놀도록 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가정에 있을 때에는 항상 화열하고 유순한 태도를 가졌다.

공은 관직에 있을 적에는 한 번도 으쓱대며 명예를 얻으려는 정사를 해본 일이 없고, 한결같이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사를 해서 애연히 옛날 순량(循良<sup>2)</sup>)의 기풍을 가졌다. 상국공 때문에 공의 벼슬길이 의당 남들의 우위에 놓여져야 할 것 같았지만, 좋은 자리를 구하지 않고 평범하게 나아가 못한 집안과 동등하게 하였으니, 여기에서 공의 집안을 알 수 있고, 또한 공의 정직한 마음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불행하게도 장수를 하지 못하고 벼슬도 낮아서 공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였으며, 또 부모에 대한 봉양을 끝까지 하지 못하여 부모에게 슬픔을 끼쳐드렸으

니,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서 복이 없는 것인가?」하고 의심을 갖는다.

배위(配位) 숙인(淑人) 보성 오씨(寶城吳氏)는 사옹원 정(司饔院正)을 지낸 행민(行敏)의 딸인데, 아름답고 부드러워 부덕(婦德)이 있고, 공을 보좌하면서 효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였다. 숙인에 대한 상국공의 글에 「우리 집에 들어온 지 30여 년이 되었는데도 한번도 예절을 어기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공과 같은 해에 태어났고, 공보다 4년 앞선 무술년(戊戌年)에 작고하였는데, 기해년(己亥年)에 정향(丁向)의 언덕으로 이장하였으니, 그 곳은 바로 광주(廣州)·도론(道論) 선산이다. 공이 작고하자 임시로 매장했다가 계묘년(癸卯年)에 숙인의 무덤 오른쪽을 뚫고 합장하였다.

후배(後配)는 기계 유씨(杞溪俞氏)로 아버지는 반(槃)이고,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홍(泓)의 현손인데, 시집와서 사당에 배알(拜謁)한 지 1년이 채 못되어서 남편을 잃었고, 갑진년(甲辰年)에 작고하였으니, 향년 24세였다.

뒤에 아들 우성(羽成)의 종훈례(從勳例)를 가지고 공에게는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가 추증되고, 두 숙인에게도 따라서 숙부인(淑夫人)이 추증되었다.

오씨부인은 2남 4녀를 낳았으니, 맏아들 우성(羽成)은 약관의 나이로 진사시에 장원으로 뽑혀서 벼슬이 정랑(正郎)에 끝났고, 하성(廈成)은 지금 임피현령(臨陂縣令)으로 있으며, 맏딸은 현령(縣令) 송섬(宋揆)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현령 황일(黃鎰)에게 시집가고, 셋째 딸은 조흥기(趙鴻紀)에게 시집갔고, 나머지 넷은 일찍 죽었다.

유씨부인은 1녀를 낳았는데, 유봉정(柳鳳庭)에게 시집갔다.

정랑(正郎)·羽成은 학생(學生) 정이화(鄭以和)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맏아들 진양(眞養)은 진사시에 합격하여 벼슬은 도사(都事)이 이르렀고, 둘째 아들 진망(眞望)은 생원시 장원으로 합격해서 벼슬은 참봉(參奉)을 하였으며, 딸들은 박사한(朴師漢)과 김진성(金鎭成)에게 각각 시집갔다. 진양의 아들은 광일(匡一)·광질(匡質)·광렬(匡烈)이고, 두 딸은 아직 어리다. 진망의 아들은 광덕(匡德)·광도(匡道)·광의(匡誼)이고, 한 딸은 아직 어리다.

2) 순량(循良) : 고을 원의 어진 정사(政事).

현령(縣令)···厦成)은 승지(承旨)에 추증된 윤원경(尹源慶)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만아들은 진좌(眞佐), 둘째 아들은 진정(眞鼎)으로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만딸은 윤동상(尹東尙)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홍응몽(洪應夢)에게 시집가고, 막내딸은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진좌의 아들은 광화(匡華)·광주(匡周)이고, 두 딸은 아직 어리다. 진정의 아들은 광기(匡基)이고, 한 딸은 아직 어리다.

송섬(宋揆)의 아들은 정양(廷揚)·정광(廷光)·정량(廷良)·정망(廷望)이고, 생원(生員)인 이치번(李致蕃)·이세보(李世寶)·진사(進士)인 오영훈(吳永勳)은 그 사위이다.

황일(黃鎰)의 아들은 응성(應聖)이고, 별좌(別坐)인 박혜동(朴惠東)·박만년(朴萬年)·권익겸(權益謙)·이서진(李瑞鎭)·이석윤(李碩濶)은 그 사위이다. 조홍기(趙鴻紀)의 아들은 봉령(鳳齡)·봉경(鳳卿)·봉징(鳳徵)이고, 윤득룡(尹得龍)은 그 사위이다.

유봉정(柳鳳庭)은 딸 하나인데, 이징수(李徵秀)가 그 사위이다. 외증손들은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상국 노선생은 문장과 덕업이 우뚝 뛰어났는데, 세상에서는 더욱 인후(仁厚)한 군자라고 칭하였다. 그 왕성한 은택과 남아도는 아름다운 복이 마땅히 후손에게 전해져야 했다. 그러나 가문을 이은 이는 오직 공한 사람 뿐이었는데, 복을 그 몸에 가지지 못하였다.

정랑공은 문학과 덕행으로 이름이 났으나 시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 나이드 오래 누리지 못하였으며, 현령공 또한 현령에서 머물렀으니, 회화나무 그들이 뜰을 덮고 있던만, 명성과 업적은 너무도 보잘것 없다. 지금 도사군(都事君)의 여러 종형제들이 재주와 학문을 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뜰에 가득한 자손은 모두 아름답고 현철한 수재들이니, 세상에서 「옛가문이 가법(家法)을 지켜나가 오래도록 쇠하지 않는다.」라고 논평하는,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 생각하건대, 덕을 두텁게 쌓아 그 음덕의 흐름이 장원하니, 조상의 행적을 이어가는 희망이 장차 여기에 있을 것이다.

현령공이 편지를 보내와 『선인의 묘소에 아직까지 비가 없다네. 선백(先伯)께서 규수석(圭首石)』<sup>4)</sup>을 다듬었으나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돌을 준비하였으니, 뒤에 새길 글을 자네에게 부탁하네.』라고 하였다. 이 부탁은 나에게 글 솜씨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두터운 세의(世誼)가 있기 때문이니, 의리상 끝내 사양할 수가 없다. 공의 장사 때는 상국공이 지문(誌文)을 지었다. 종태(宗泰)는 평소 공의 순수한 언행을 익히 들은 터라, 지금 비문을 지은 것은 대체적으로 상국공의 지문에 있는 말을 감안한 것이다.

황명(皇明)···崇禎) 기원 후 75년만인 임오년(壬午年) 9월 일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 겸(兼)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춘추관성균관사(知春秋館成均館事)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 서종태(徐宗泰)는 글을 짓고, 자헌대부(資憲大夫) 형조판서(刑曹判書) 조상우(趙相愚)는 글을 씀.

3) 선백(先伯)···작고한 백씨(伯氏)란 말.

4) 규수석(圭首石)···상단이 규형(圭形)처럼 생긴 석비(石碑).

# 이진양(李眞養) 묘표

所在地…盆唐區 石雲洞 山 16

建立年代…朝鮮 英祖 27年(1751)

撰…李 眞 望

書…李 匡 師

追 記…李 匡 會

規 模…總高…155cm, 碑高…117cm, 幅…51cm, 厚…20cm

材 質…碑身…大理石, 臺石…花崗岩

이진양 묘표는 관교에서 안양으로 가는 57번 국도에서 이경석(李景奭) 묘소 입구 안내판을 따라 산을 넘어가 이경석 신도비와 이효백(李孝伯) 묘소를 지나면 우측 민가 위 동남쪽에 있다.

1751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에는 문양이 없이 단조롭다.

비문은 동생 이진망(李眞望)이 지었고 추기(追記)는 아들 이광회(李匡會)가 하였으며, 앞면의 글씨는 해서(楷書)로 자경(字徑)은 11·0cm이고 음기(陰記)의 자경은 1·5cm로 이광사(李匡師)가 예서(隸書)로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뒷면과 좌측면이 심해 일부 판독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영인(令人) 남원윤씨(南原尹氏)와 합장.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망주석이 있다.

이진양(1667~1709)은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순보(順甫). 증조부는 문충공(文忠公) 경석(景奭), 아버지는 형조정랑(刑曹正郎)을 지내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된 우성(羽成)이고, 어머니는 학생(學生) 정이화(鄭以和)의 딸이다.

1701년(숙종 27) 숭릉참봉(崇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친혐(親嫌) 때문

에 나가지 않았고, 1702년에 금부도사(禁府都事)에 임명되었으며, 1705년에는 금(金) 주조하는 일을 잘 감독한 공으로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로 승진 되었다가 호조좌랑(戶曹佐郎)으로 전직되었다. 외직으로는 강서현령(江西縣令)을 지냈다.



이진양 묘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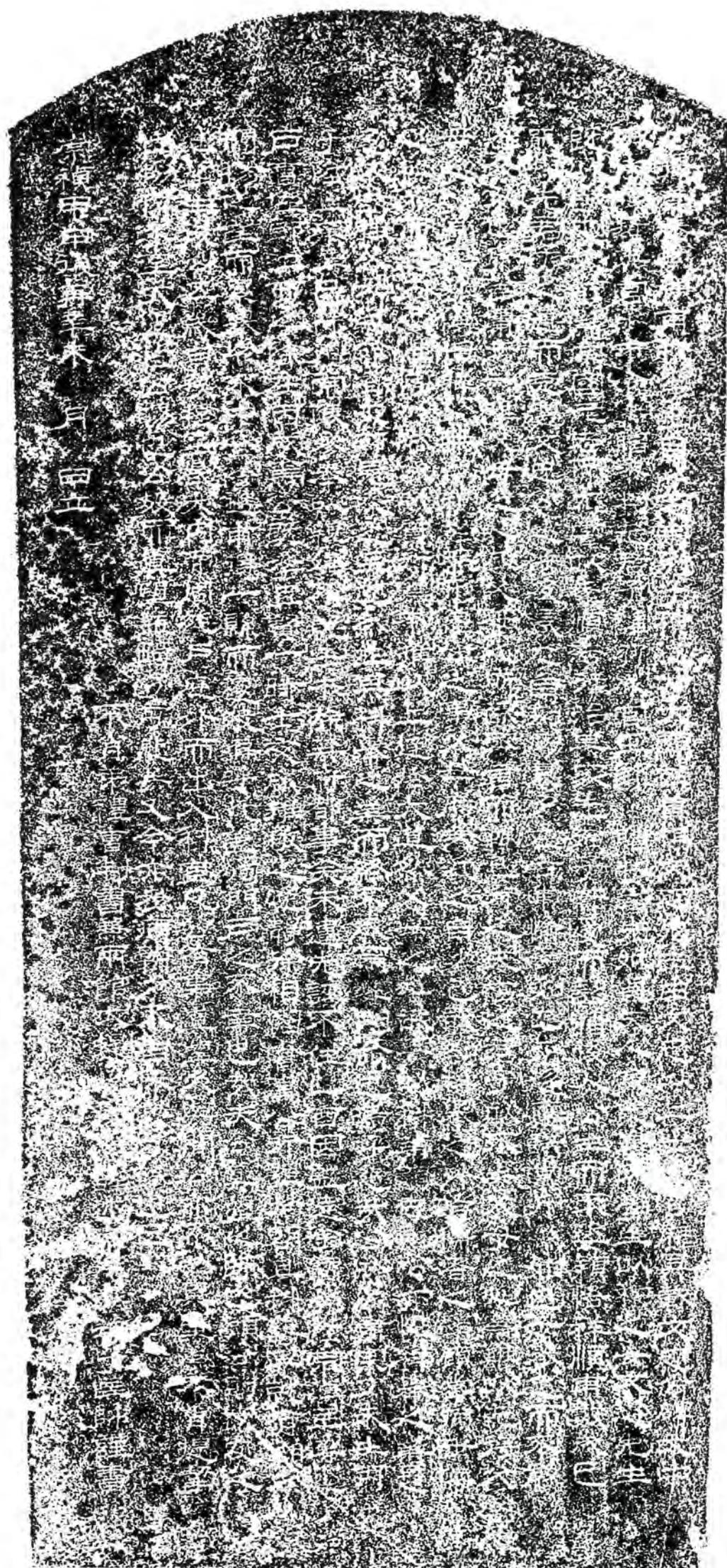
망주석



묘 표



今人南原尹氏  
 朝鮮江西縣令李公  
 真養之墓



51×117









면 또 곧은 도리를 가지고 임금을 보필하였을 것이고, 그 재주는 □□□□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기축년(己丑年) 3월에 서읍(西邑)으로부터 병든 몸으로 가마에 실려서 서울로 돌아오시는데, 평양의 여관에서 □□□□ 23일 광주(廣州) 선영의 아래에 장례를 모셨다가 임술년(壬戌年)에 그 서면(西面) 손좌(巽坐)의 자리로 이장하였다.

선비(先妣)는 남원 윤씨(南原尹氏)로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다음 찬성(贊成)에 추증되고 이름을 반(攀)이라고 한 분의 따님이신데, 정미년(丁未年) 정월 8일에 태어나셔서 정묘년(丁卯年) 2월 10일 광회(匡會)가 수령으로 있는 김천군(金川郡)의 임소에서 작고하셨으니 춘추 81세였다. 기사년(己巳年)에 비로소 부군과 합함하고 각각 지석(誌石)을 묻었다.

5남 1녀를 두셨으니, 아들은 첫째는 광일(匡一)이고, 둘째는 광원(匡元)인데 도사(都事)가 되었고, 셋째는 광운(匡運)인데 족형(族兄)인 문도(聞道)의 후계자가 되었고, 넷째는 광회(匡會)인데 생원시에서 과장원을 하고 군수(郡守)가 되었으며, 다섯째는 광건(匡健)인데 20세가 못된 나이로 일찍 죽었다. 딸은 대사간(大司諫) 홍중일(洪重一)에게 시집갔다.

첫째는 증효(曾孝)와 민효(閔孝)를 낳아 각각 진사(進士)와 도사(都事)가 되었는데, 민효는 셋째의 후계자가 되었고, 둘째의 후계자는 장효(長孝)이며, 광회의 아들은 아직 어리고, 딸은 진사(進士) 홍정한(洪挺漢)의 처가 되었다. 그리고 홍대간(洪大諫·重一)의 후계자는 선보(宣輔)이다.

아들 광회(匡會)는 눈물을 흘리며 삼가 기록함.

## 이 해(李嵒) 묘표

所在地.. 壽井區 高登洞 山 6

建立年代.. 朝鮮 英祖 45年(1769)

撰 .. 李 峽

前面書.. 韓 漢 集字

陰記書.. 顏 眞 卿 集字

規 模 .. 總高 .. 252cm, 碑高 .. 171cm, 幅 .. 68cm, 厚 .. 39cm

材 質 .. 蓋石 .. 花崗岩, 碑身 .. 大理石, 臺石 .. 花崗岩

이 해 묘표는 신촌동으로 가는 23번 국도에서 대왕주유소 앞에서 좌회전하여 대왕저수지(大旺貯水池) 상류로 가서 안산마을 식당 뒤 산길로 고개를 넘어 가면 배 과수원 좌측 산 동남쪽에 있다.

1769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작 지붕으로 단조롭고 대석에는 문양이 없다.

비문은 손자 이 협(李峽)이 지었고, 앞면은 한 호(韓濩)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였는데 자경(字徑)은 13.0cm이고, 음기(陰記)는 안진경(顏眞卿)의 글씨를 집자하였고, 자경은 2.5cm의 해서이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나 앞면에 총탄 흔적이 6곳이 남아 있으며, 묘소는 증정부인 평산신씨(平山申氏)는 부좌, 정부인 진주유씨(晉州柳氏)는 부우,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망주석이 있다.

이 묘소는 1999년 6월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에서 천장한 것이다.

이 해(1635~1715)는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차산(次山). 호는 현포(玄圃). 이조판서 경중(景曾)의 아들이다.

1654년(효종 5) 진사시에 장원급제하고, 성균관에서 공부하였다.

효종이 죽자 복상(服喪)문제로 예송(禮訟)이 치열할 때 성균관 유생으로서 3년상을 주장하는 윤선도(尹善道)를 통렬히 비판하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660년(현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로 급제 후 이듬해 봉교(奉敎)로 임명되었다. 1662년 정언이 되고, 1665년(현종 6) 홍문록(弘文錄)에 올라 권점(圈點) 6점을 받았으나 홍문관 관원으로 기용되지는 못하였다. 그 뒤 1668년 이조좌랑에 제수되었고, 같은 해에 해운판관(海運判官) 조가석(趙嘉錫)의 탐학과 비리가 조정에서 논란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이를 비호한 것이 문제가 되어 파직되었다.

1670년(현종 11) 다시 등용되어 부교리·부응교·사간 등을 거쳐, 이듬해 삼남의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 암행을 마치고 돌아와 전라도 지방의 기근이 극심함을 아뢰고, 남원·무안·진안현감을 파직하도록 계(啓)를 올렸다.

그 뒤 동부승지·우승지·예조참의 등을 거쳐 1673년(현종 14)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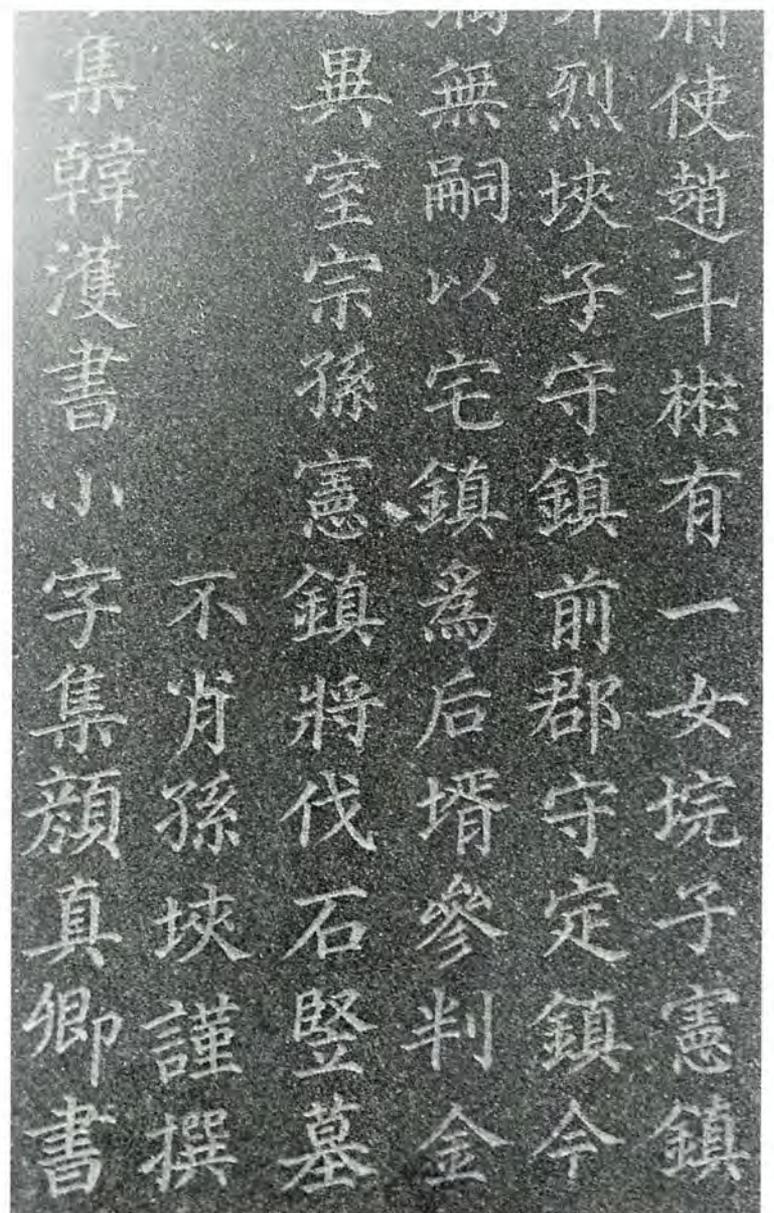
풍채가 단아하고 성격이 온화하여 일찍부터 덕망을 얻어 중요 관직을 얻었다. 문예에도 조예가 있어 문장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해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글씨

朝鮮大司諫李公稭之墓  
贈貞夫人平山申氏祔左  
貞夫人晉州柳氏祔右

惟我祖考司諫院大司諫知製教玄圃府君生于崇禎乙亥六月二十一日戊辰卒于己未十二月十二日享年四十五嗚呼府君以眉江公第三胤卑服庭訓文藝卓異七歲作瘞鳥文辭意甚奇人皆異之弱冠魁進士二十六擢增廣文科第八入薦入藝苑付檢閱轉至奉教陞歷三司諫院則正言大司諫憲府則持平玉堂則修撰校理應教間為兵曹佐郎正郎吏曹佐郎世子侍講院弼善兼司書南學教授掌樂院正備局郎廳以應教擢同副承旨至左承旨禮戶二曹參議判決事五衛將被選堂上知製教差撰集廳堂上皆文望也外為黃海都事密陽府使慶州府尹蓋甲寅羣壬乘用以閔慎代服事南天漢請削南溪府君遠長諫院伸救南溪遭譴屏黜五歲始叙黨人斥補密慶兩州在韋布時尹善道托以論禮謀害尤菴投進凶疏府君倡率館學多士請斬善道士林快之在正言時極言諸官家折受之弊士大夫家捨其繼後以已後出主祀之非金壽弘掇拾善道餘論之罪在承旨時李公端夏製進永安尉洪公柱元致祭文將拿鞠府君覆逆以救在大諫時陳時弊疏殆累千言無非格言謹論上優批嘉納又以華藏寺設齋一日三啓請寢蒙允仁宣大妃昇遐慈懿殿服替年朝廷覺其非改以大功嶺人引已亥事疏語危怖金相壽興及三司諸人南二星趙根柳之發並被罪府君力辨其非罪舊寧陵石物有欠監造官中命圭李鼎基罪將不測府君啓陳張釋之古事請勿重勘每登講筵書筵引經據義敷奏辨釋必以正格為先此府君立朝顛末之大畧也府君諱嵇字次山号玄圃德水之李顯自嚴季始祖諱敦守中郎將歷三世有諱于善樂安伯生諱仁範藝文大提學生諱揚仕本朝工曹參議又三世皆顯官高祖諱菡靖國勲臣海豐君曾祖諱麟祥監役贈參判德安君祖諱通郡守贈領議政德豐君德豐君以慶山縣令諱元謹子節度使諱苑孫出繼于再從叔德安君考諱景曾吏曹判書号眉江妣宣廟王子順和君諱玘女也府君器度端方見識明達篤於孝友早失怙恃事仲兄伯姊如事父母性簡亢罕與人交遊公退靜掃一室環以圖史諷詠自娛未嘗設聲伎博奕之具此本家法而亦天性然也飲戶寬大未嘗及亂韓興君李汝發嘗辟為御營從事牢辭不就曰書生不可作橐鞬人磨折於將軍之門陞資之日柳赫然以銀絲馬鞍為賀却而不受九年未嘗備貂帽少時喜讀楚辭漢書晚年日看四書朱文等書沈潛玩繹多有所得為文主典重通暢尤長於詩律援毫立就調格淡雅筆法道麗草隸俱妙金息菴錫胄曰玄圃之詩清新警絕雖使高視百家者不得不讓一頭沈梧灘傲曰文章之士於古文微奧處當人質問雖慣讀熟覽者一一辨說為難而玄圃之字字釋解皆其一覽文酒之會辭氣文采映發襲人使鴻匠大手間之不敢先下嗚呼安得復見斯人申汾厓昆閔府君計有詩曰門無兄弟親室乏瓶罌糧親勿數三人來聚視歛藏記其寒儉實蹟也前配平山申氏參判

諱翊全女象村諱欽孫通經史識大義嘗論魏徵曰徵侍建成勸除秦王又事秦王史稱良臣安也參判公甚奇之作書楷正兼通算學至親亦不得知丁丑生丙申卒春秋二十繼配晉州柳氏靖社勳臣晉川君諱頌女西垞諱根曾孫性度貞懿有女士行服素十八年未嘗見齒庚辰生丙子卒壽五十七申夫人育一男諱喜濡早逝無嗣柳夫人育三男二女男諱喜聯牧使生子垞佐郎出繼伯父奉府君祀墳牧使塙今翁正壻大司諫宋教明參判趙載洪側室壻鄭志淑次諱喜楠即不肖埝先君子埝前牧使次諱喜涵郡守生子址塙塙參判壻朴芝秀徐用修羅頌尹在莘女長適應教趙泰一生子文彬進士壽彬郡守景彬縣監福彬進士台彬壻牧使李敏躋次遠府使趙斗彬有一女塙子憲鎮前牧使成鎮前郡守壻校理尹養厚埝無嗣以成鎮為后塙子宰鎮宗鎮一幼壻進士元有曾判官吳在文閔升烈埝子守鎮前郡守定鎮今縣監寬鎮今典簿宅鎮前校理壻崔弘道正郎鄭東顯尹得欽趙維鎮宋翼著址子寂真縣監壻進士尹寂東塙無嗣以宅鎮為后壻參判金器大曹允說尹瑞基內外曾玄以下男女多不能盡載府君墓在廣州龜川負子之原申夫人合奉柳夫人同兆異室宗孫憲鎮將伐石豎墓前屬不肖孫埝識諸石背不肖文識短淺僅掇家狀所錄中萬一泣血叙次如右

崇禎紀元後三巳丑 月 日立

大字集韓漢書小字集顏真卿書

豎表後一百五十五年甲子三月玄孫府使游有繼子之子潛移公墓將以貨其地也八月府使長女朴夫人與章彬暉還奉舊墳三位合封仍罷其繼越二十八年辛卯三月暉始克修墓重豎原表于右游牧使憲鎮之子也章彬宰鎮之孫也暉今官參判贈寺正容鎮曾孫寺正即原表一珥云幼者也

## 【前 面】

朝鮮大司諫李公嵇之墓

贈貞夫人平山申氏附左

貞夫人晉州柳氏附右

## 【後 面】

惟我祖考司諫院大司諫知製教玄圃府君生于崇禎乙亥六月二十一日戊辰卒于己未十二月十二日享年四十五嗚呼府君以眉江公第三胤早服庭訓文藝卓異七歲作瘞鳥文辭意甚奇人皆異之弱冠魁進士二十六擢增廣文科第八人薦入藝苑付檢閱轉至奉教陞歷三司諫院則正言大司諫憲府則持平玉堂則修撰校理應教間爲兵曹佐郎正郎吏曹佐郎 世子侍講院弼善兼司書南學教授掌樂院正備局郎廳以應教擢同副承旨至左承旨禮戶二曹參議判決事五衛將被選堂上知製教差撰集廳堂上皆文望也外爲黃海都事密陽府使慶州府尹盖甲寅群壬秉用以閔慎代服事南天漢請削南溪府君適長諫院伸救南溪遭 譴屏黜五歲始 叙黨人斥補密慶兩州在韋布時尹善道托以論禮謀害尤菴投進凶䟽府君倡率館學多士請斬善道士林快之在正言時極言諸宮家折受之弊士夫家捨其繼後以已後出主祀之非金壽弘掇拾善道餘論之罪在承旨時李公端夏製進永安尉洪公柱元致祭文將拿鞠府君覆逆以救在大諫時陳時弊䟽殆累千言無非格言讜論 上優批嘉納又以華藏寺設齋一日三啓請寢蒙 允 仁宣大妃昇遐 慈懿殿服暮年朝廷覺其非改以大功嶺人引己亥事疏語危怖金相壽興及三司諸人南二星趙根柳之發並被罪府君力辨其非罪舊 寧陵石物有欠監造官申命圭李鼎基罪將不測府君 啓陳張釋之古事請勿重勘每登 講筵書筵引經據義敷奏辨釋必以匡格爲先此府君立朝顛末之大略也府君諱嵇字次山號玄圃德水之李顯自麗季始祖諱敦守中郎將歷三世有諱千善樂安伯生諱仁範藝文大提學生諱揚仕 本朝工曹參議又三世皆顯官高祖諱菡靖國勳臣海豐君曾祖諱麟祥監役 贈參判德安君祖諱通郡守 贈領議政德豐君德豐君以慶山縣令諱元謹子節度使諱苑孫出繼于再從叔德安君考諱景會吏曹判書號眉江妣 宣廟王子順和君諱珪女也府君器度端方見識明達篤於孝友早失怙恃事仲兄伯姊如事父母性簡亢罕與人交遊公退靜掃一室環以圖史諷詠自娛未嘗設聲伎博奕之具此本家法而亦天性然也飲戶寬大未嘗及亂韓興君李汝發嘗辟爲御營從事牢辭不就曰書生不可作橐鞬人磬折於將軍之門陞資之日柳赫然以銀絲馬鞍爲賀却而不受九年未嘗備貂帽少時喜讀楚辭漢書晚年日看四書朱文等書沈潛玩繹多有所得爲文主典重通暢尤長於詩律援毫立就調格淡雅筆法迥麗草隸俱妙金息菴錫胄曰玄圃之詩清新警絕雖使高視百家者不得不讓一頭沈梧灘攸曰文章之士於古文微粵處當人質問雖慣讀熟覽者一一辨說爲難而玄圃之字字釋解皆其一覽文酒之會辭氣文采映發襲人使鴻匠大手間之不敢先下

嗚呼安得復見斯人申汾厓最聞府君訃有詩曰門無兄弟親室乏瓶罌糧親朋數三人來聚視歛藏記其寒儉實蹟也前配平山申氏參判

【右側面】

諱翊全女象村諱欽孫通經史識大義嘗論魏徵曰徵侍建成勸除秦王又事秦王史稱良臣妄也參判公甚奇之作書楷正兼通筭學至親亦不得知丁丑生丙申卒春秋二十繼配晉州柳氏靖社勳臣晉川君諱頌女西垞諱根曾孫性度貞懿有女士行服素十八年未嘗見齒庚辰生丙子卒壽五十七申夫人育一男諱喜濡早逝無嗣柳夫人育三男二女男諱喜聃牧使生子垞佐郎出繼伯父奉府君祀埴牧使垞今僉正壻大司諫宋教明參判趙載洪側室壻鄭志淑次諱喜楠卽不肖埴先君子埴前牧使次諱喜涵郡守生子址埴壻參判壻朴芝秀徐用修羅蘋尹在莘女長適應教趙泰一生子文彬進士壽彬郡守景彬縣監福彬進士台彬壻牧使李敏躋次適府使趙斗彬有一女垞子憲鎮前牧使成鎮前郡守壻校理尹養厚埴無嗣以成鎮爲后壻子宰鎮宗鎮一幼壻進士元有曾判官吳在文閔升烈埴子守鎮前郡守定鎮今縣監寬鎮今典簿宅鎮前校理壻崔弘道正郎鄭東顯尹得欽趙維鎮宋翼著址子竅眞縣監壻進士尹竅東壻無嗣以宅鎮爲后壻參判金器大曹允說尹瑞基內外曾玄以下男女多不能盡載府君墓在廣州龜川負子之原申夫人合奉柳夫人同兆異室宗孫憲鎮將伐石豎墓前屬不肖孫埴識諸石背不肖文識短淺僅掇家狀所錄中萬一泣血叙次如右

不肖孫埴謹撰

崇禎紀元後三己丑 月 日立

大字集韓濩書小字集顏眞卿書

【左側面】

豎表後一百五十五年甲子三月玄孫府使游有繼子之子潛移公墓將以貨其地也八月府使長女朴夫人與章彬暉還奉舊壙三位合封仍罷其繼越二十八年辛卯三月暉始克修墓重豎原表于右游牧使憲鎮之子也章彬宰鎮之孫也暉今官參判贈寺正容鎮曾孫寺正卽原表一所以幼者也

【譯 文】

조선대사간이공혜지묘 증정부인평산신씨부좌 정부인진주유씨부우

우리 조고(祖考) 바로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지제교(知製敎)를 지 내시고 호는 현포(玄圃)이신 부군(府君)께서는 승정(崇禎) 을해년(乙亥年) 仁 祖 13, 1635) 6월 21일 무진(戊辰)에 태어나시어 기미년(己未年) 肅宗 5, 1679) 12월 12일에 작고하시니, 향년 45세였다.

아! 부근께서는 미강공(眉江公) 이름은 景曾, 인조 때의 명신)의 셋째 아 드님으로 태어나시어 일찍이 가정교육을 받으셨는데, 문예(文藝)가 남달리 뛰 어나셔서 일곱 살에 지은 「예조(弊鳥)」라는 글은 그 말뜻이 매우 기특하였으 므로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약관(弱冠) 20세)에 진사시에서 괴장원을 하시고, 26세에 증광문과(增廣文 科)에서 제8인으로 급제하신 다음, 추천으로 예문관(藝文館)에 들어가서 검 열(檢閱)을 부여받으셨고, 이어 벼슬자리가 점점 옮겨서 봉교(奉敎)에 이르셨 으며, 이어 승진되어 삼사(三司)를 두루 거치셨는데, 사간원(司諫院)에서는 정언(正言)과 대사간(大司諫)을, 사헌부(司憲府)에서는 지평(持平)을, 홍문관 (弘文館)에서는 수찬(修撰) · 교리(校理) · 응교(應敎)를 지내셨으며, 사이사이 에 병조(兵曹)의 좌랑(佐郎) · 정랑(正郎)과 이조 좌랑(吏曹佐郎)과 세자시강 원(世子侍講院)의 필선(弼善) · 겸사서(兼司書)와 남학교수(南學敎授)와 장악 원정(掌樂院正)과 비국낭청(備局郎廳)이 되셨다.

응교에서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신 뒤에는 좌승지(左承旨), 예조(禮 曹)와 호조(戶曹)의 참의(參議), 판결사(判決事), 오위장(五衛將)에 이르셨으 며, 당상 지제교(堂上知製敎)에 피선되시고 찬집청 당상(撰集廳堂上)에 차출 되셨으니, 모두 문망(文望) 1) 때문이었다.

외직(外職)으로는 황해도사(黃海都事)와 밀양부사(密陽府使)와 경주부윤(慶 州府尹)을 지내셨다. 대개 갑인년(甲寅年) 顯宗 15년, 1674)에 여러 소인 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이때 민신(閔愼)의 대리복상사건(代理服喪事件) 2) 으로 인하여 남천한(南天漢)이 남계(南溪) 朴世采)의 관작을 삭탈할 것을 청

하였기 때문에 부군께서는 마침 사간원의 장으로 계시면서 남계를 신구(伸救) 3)하시다가 견책을 당하고 쫓겨나셨다. 그러다가 5년 만에 비로소 서용(敍用) 되셨는데, 당인(黨人) 南人)들의 배척으로 밀양과 경주 두 고을에 보임되었던 것이다.

부군께서 위포(韋布) 4)로 계시실 때에는 윤선도(尹善道)가 예론(禮論)을 빙자 하여 우암(尤菴) 宋時烈的 호)을 해치려는 흉한 상소를 올리자, 관학(館學) 5)의 많은 유생들을 거느리고 윤선도를 참벌할 것을 청하시니, 사람(士林)들이 통쾌하게 여겼다. 정언으로 계시실 때에는 여러 궁가(宮家) 6)에서 절수(折受) 7)하 는 폐단에 대해서와, 사대부 집안에서 그 뒤를 잇기 위해 들여세운 양자를 놓 아두고 양자를 세운 뒤에 낳은 자기 아들로 제사를 주관시키는 잘못에 대해서 와, 김수홍(金壽弘)이 윤선도의 여론(餘論)을 거두어 좁는 일에 대해서 강력 하게 말씀하셨다. 승지로 계시실 때에는 이공 단하(李公端夏)가 영안위(永安尉) 홍공 주원(洪公柱元) 宣祖의 사위)의 제문을 지어 올린 일로 장차 잡혀가 국 문을 받게 되었는데, 부군께서 이를 주선해서 구원하셨다.

대사간으로 계시실 때에는 시폐(時弊)를 지적해서 상소를 올리셨는데, 거기에 적힌 말들이 수천 마디가 되었으나 모두 격언과 정론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 에 상감은 후하게 비답을 내리고 그를 가납하시었다. 또 화장사(華藏寺)에서 재 올리는 일을 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아뢰어 중지할 것을 청해서 상감의 윤 허를 받아내셨다.

인선대비(仁宣大妃) 孝宗妃)가 승하하자, 자의전(慈懿殿) 仁祖의 繼后 趙 氏)이 기년(基年) 1년) 복을 입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정에서 그것이 잘

1) 문망(文望) 學問으로 널리 알려진 명망.  
 2) 민신(閔愼)의 대리복상사건(代理服喪事件) 민신이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 의 복을 입으려고 할 때 발생한 사건. 민신이 대신 복을 입으려고 했던 일은 당시 남인 (南人)이었던 남천한(南天漢)이 크게 막았다.  
 3) 신구(伸救) 罪 없는 사람을 사실대로 변명해서 구원하는 일.  
 4) 위포(韋布) 位階(韋帶)와 포의(布衣). 곧 선비를 뜻함.  
 5) 관학(館學) 成均館)과 중학(中學) 東學) 南學) 西學)의 사 학(四學).  
 6) 궁가(宮家) 大君) 王子君) 公主) 翁主)의 궁전을 가리킴.  
 7) 절수(折受) 奉祿) 조로 토지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는 일.

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대공(大功)·9개월 복)으로 고치려고 하였더니, 남인들이 기해년(己亥年)의 일을 끝어서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의 어투가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김상·수흥(金相壽興) 및 삼사(三司)의 여러 사람들과 남이성(南二星)·조근(趙根)·유지발(柳之發) 등이 모두 죄를 입게 되었는데, 부군께서 그들의 죄받을 일이 아님을 강력히 변명하시었다.

구(舊) 영릉(寧陵)·孝宗의 능)의 석물(石物)에 결함이 생기자, 감조관(監造官)이었던 신명규(申命圭)와 이정기(李鼎基)가 받아들여 할 죄가 예측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부군께서 장석지(張釋之)의 고사를 들어 진언을 해서 중벌을 가하지 말도록 청하시었다.

그리고 매번 임금을 모시고 학문을 강론하는 강연(講筵)이나 왕세자 앞에서 학문을 강론하는 서연(書筵)에 나가실 적에는 경전을 이끌고 의리를 준거로 들어서 폭넓게 주달(奏達)하여 변석(辨釋)을 하셨는데, 반드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가지고 우선을 삼으셨다. 이상이 부군께서 조정에 계실 때 활약하신 전말에 대한 대략인 것이다.

부군은 이름은 혜(稭), 자는 차산(次山), 호는 현포(玄圃),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덕수 이씨는 고려 말엽서부터 나타났는데, 시조는 이름이 돈수(敦守)로서 중랑장(中郎將)을 지내셨으며, 3세대를 내려와서 이름을 천선(千善)이라 하고 낙안백(樂安伯)에 봉해진 분이 계셨다. 그리고 낙안백공이 이름을 인범(仁範)이라고 한 분을 낳으셨는데,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내셨고, 대제학공이 이름을 양(揚)이라고 한 분을 낳으셨으니, 본조(本朝)·朝鮮朝)에 들어와서 공조 참의(工曹參議)를 지내셨으며, 또 그 후 3세대는 모두 나타난 벼슬을 지내셨다. 고조부는 이름이 함(函)인데, 증중반정의 정국공신(靖國功臣)으로 해풍군(海豐君)에 봉해지셨으며, 증조부는 이름이 인상(麟祥)으로 감역(監役)을 지낸 후 참판(參判)에 추증되고 덕안군(德安君)에 봉해지셨으며, 조부는 이름이 통(通)으로 군수(郡守)를 지낸 후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덕풍군(德豐君)에 봉해지셨다.

덕풍군께서는 경산현령(慶山縣令)을 지내고 이름이 원근(元謹)이란 분의 아들이자 절도사(節度使)를 지내고 이름이 완(苑)이란 분의 손자이신데, 재종숙(再從叔)인 덕안군의 후계자가 되신 것이다. 아버지는 이름이 경증(景曾)으로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지내시고 호는 미강(眉江)이시며, 어머니는 선조 임금의 아들인 순화군(順和君) 보(卍)의 따님이시다.

부군은 기국과 도량이 방정하고 견문과 식견이 명달하셨으며,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시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시고 증형(仲兄)과 큰 누님을 부모와 같이 섬기셨다. 성품은 간결 강직하시고, 남과 더불어 교유하는 것이 드물었으며, 퇴청한 후에는 방 하나를 깨끗이 쓸고 책들을 빙 둘러서 꽂아놓고서 풍영(諷詠)하면서 스스로 즐기셨다. 그리고 한번도 성기(聲伎)나 장기·바둑 같은 기구는 마련하는 일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본래 가법(家法)이었고, 또한 천성이 그래했던 것이다. 또한 술 양은 크셨지만 자세가 흐으러지게 마시지는 않았었다.

한번은 한흥군(韓興君) 이여발(李汝發)이 부군을 불러서 어영총사관(御營從事官)을 삼으려고 하자, 부군께서는 굳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서생(書生)은 고건(藪韃)의이나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장군의 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 자급이 오르시던 날에 유희연(柳赫然)이 은실로 장식한 말안장을 가지고 축하 선물을 하자, 물리치고 받지 않았었다. 그리고 9년 동안 한번도 초모(貂帽)를 갖추지 아니하셨다.

소년시절에는 △초사(楚辭)와 △한서(漢書)를 즐겨 읽으셨고, 만년에는 날마다 사서(四書)와 주문(朱文) 등과 책들을 보시며 깊이 음미하고 연구하여 학문상 소득이 많이 있었다. 글을 지으심에 있어서는 전중(典重)하고 통창(通暢)함을 주로 하였고, 더욱 시율(詩律)에 뛰어나서 붓을 들면 즉석에서 문장을 이루었으나 조격(調格)이 담아(淡雅)하였으며, 필법(筆法)은 곧세고 아름답다웠는데, 초서(草書)와 예서(隸書)가 모두 절묘하였다.

그래서 식암(息菴) 김석주(金錫胄)는 논평하기를 『현포의 시는 청신(清新)함이 뛰어나서 비록 높은 안목을 가진 백가(百家)라 하더라도 일두지(一頭地)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오탄(梧灘) 심유(沈攸)는 논평하기를 『문장을 하는 선비가 고문의 은미하고 심오한 곳에 대하여 남의

8) 장석지(張釋之)·한(漢)나라 때에 정의(廷尉)란 법관으로 있으면서 죄인에 대한 판결을 공정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한을 품은 죄인이 없었다 한다.

9) 고건(藪韃)·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지는 채구.

질문을 받는다면, 비록 자주 읽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현포의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한 것은 모두 한 번 보아두어야 할 것들이었다. 그리고 글과 술이 어우러지는 모임에서는 사기(辭氣)와 문채(文采)가 빛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엄습하였기 때문에 문장의 거벽(巨擘)을 그 자리에 끼어 넣는다 하더라도 감히 먼저 붓을 들지 못할 것이다. 아! 어찌 다시 이런 분을 뵈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리고 분에(汾隄) 신정(申愷)은 부군의 부음을 듣고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가문엔 친한 형제 없고,

집안엔 쌀독이 텅텅 비었네.

친구 두세 사람만이,

와서 모여 앉아 염습 지켜보네.

이 시는 그 빈한하고 검소한 실적(實跡)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었다.

전배(前配)인 평산 신씨(平山中氏)는 참관을 지내고 이름은 익전(翊全)이란 분의 따님이자 호는 상촌(象村)이고 이름은 흠(欽)이란 분의 손녀이다. 경전과 사기에 통달하시어 대의를 아셨는데, 일찍이 당(唐) 나라의 위징(魏徵)을 평론하시기를 『징은 건성(建成)을 모실 때에는 진왕(秦王)을 제거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또 진왕을 섬기었으니, 역사에서 그를 「어진 신하」라고 칭한 것은 망명된 일이다.』라고 하시었으니, 참판공께서 매우 기특하게 여기셨다. 글씨를 해정하게 쓰시고 겸하여 산학(算學)에도 능통하셨는데, 그것을 지친(至親)들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정축년(丁丑年) 1637에 태어나서 병신년(丙申年) 1656에 작고하시니, 춘추 20세이셨다.

계배(繼配)인 진주 유씨(晉州柳氏)는 정사공인(靖社功臣) 인조의 반정공신으로 진천군(晉川君)에 봉해지고 이름을 구(頌)라고 한 분의 따님이자 호를 서경(西峒)이라 하고 이름을 근(根)이라고 한 분의 증손녀이다. 성품이 곧고 아름다워 여사(女士)의 품행이 있었으며, 18년 동안이나 소복을 입었고 한번도 허튼 웃음을 하신 적이 없으셨다. 경진년(庚辰年) 1640에 태어나서 병자년(丙子年) 1696에 작고하시니, 향년 57세였다.

신부인은 아들 하나를 낳으셨으니, 이름이 희유(喜濡)였는데 일찍 작고하여 후사가 없으시다.

유부인은 3남 2녀를 낳으셨으니, 맏아들은 이름이 희담(喜聃)으로 목사(牧使)를 지냈으며, 아들 완(苑)을 낳으셨는데, 좌랑이 되고 백부에게 양자로 가서 부군의 제사를 받들고 있으며, 식(植)은 목사(牧使)를 지냈고, 수(綏)는 지금 첨정(僉正)으로 있으며, 사위로는 대사간(大司諫) 송교명(宋敎明)과 참판(參判) 조재홍(趙載洪) 그리고 소실 사위로 정지숙(鄭志淑)이 있다.

둘째 아들은 이름이 희남(喜楠)인데, 바로 불조손인 협(峽)의 아버지이고, 협은 목사를 지냈다.

셋째 아들은 이름이 희함(喜涵)인데 군수(郡守)를 지내셨으며, 지(址)와 우(垭) 두 아들을 낳으셨는데, 우는 참판이 되었으며, 사위는 박지수(朴芝秀)·서용수(徐用修)·나빈(羅蘋)·윤재신(尹在莘)이다. 장녀는 응교(應敎) 조태일(趙泰一)에게 출가하여 아들로는 진사(進士) 문빈(文彬)·군수(郡守) 수빈(壽彬)·현감(縣監) 경빈(景彬)·진사 복빈(福彬)·태빈(台彬)이 있고, 사위로는 목사 이민제(李敏躋)가 있다. 차녀는 부사(府使) 조두빈(趙斗彬)에게 출가하여 딸 하나를 낳았다.

완의 아들로는 전 목사(前牧使) 헌진(憲鎭)과 전 군수(前郡守) 성진(成鎭)이 있고, 사위로는 교리(校理) 윤양후(尹養厚)가 있다. 식은 아들이 없어서 성진으로 후사를 삼았고, 수의 아들은 재진(宰鎭)과 채진(菜鎭)이고 하나는 아직 어리며, 사위로는 진사(進士) 원유중(元有曾)·판관(判官) 오재문(吳在文)과 민승열(閔升烈)이 있다. 협의 아들로는 전 군수(前郡守) 수진(守鎭)·금현감(今縣監) 정진(定鎭)·금주부(今主簿) 관진(寬鎭)·전 교리(前校理)택진(宅鎭)이 있고, 사위로는 정랑(正郎) 최홍도(崔弘道)·정동현(鄭東顯)·윤득흠(尹得欽)·조유진(趙維鎭)·송익저(宋翼著)가 있다.

그리고 지의 아들로는 현감(縣監) 취진(取眞)이 있고, 사위로는 진사(進士) 윤취동(尹取東)이 있으며, 우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택진(宅鎭)으로 후사를 삼았으며, 사위는 참판(參判) 김기대(金器大)와 조윤열(趙允說)·윤서기(尹瑞基)이다. 내외의 증손과 현손 이하 남녀는 너무도 많아서 다 기재할 수가 없다.

부군의 묘소는 광주(廣州) 구천(龜川) 자좌(子坐)의 자리에 계시는데, 신부인은 합편을 하고, 유부인은 봉분은 같으나 혈(穴)은 다르게 모셨다.

종손(宗孫) 헌진(憲鎭)이 돌을 다듬어서 묘소 앞에 세우려고 하면서 비석 등에 새길 글을 불초손 협에게 부탁하기에, 불초손은 글이 짧고 아는 것이 알아서 겨우 가장(家狀)에 기록된 것 중의 일부만을 추려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상과 같이 서술하였다.

불초손 협(峽)은 삼가 씬.

대자(大字)는 한호(韓濩)의 글씨를 집자하고,

소자(小字)는 안진경(顔眞卿)의 글씨를 집자하였다.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 세 번째 돌아온 기축년(己丑年) 월 일에 비를 세움.

묘비를 세운 후 1백 55년만인 갑자년(甲子年) 고종 1년, 1864) 3월에 현손인 부사(府使) 유(游)의 양자의 아들이 몰래 공의 묘소를 옮겼으니, 장차 그 땅을 팔려고 한 것이었다. 그 해 8월에 부사의 장녀인 박부인(朴夫人)이 장빈(章彬)·위(曄)와 함께 옛 광중(曠中)으로 도로 옮기면서 세 분을 합장하였고, 따라서 그 양자를 파해버렸다.

28년이 지난 신묘년(辛卯年) 고종 28년, 1891) 3월에 위가 비로소 묘소를 잘 다듬고 원표석(原表石) 협이 비문을 쓰신 비석을 묘소 오른쪽에 다시 세웠다.

유(游)는 목사(牧使) 헌진(憲鎭)의 아들이요, 장빈(章彬)은 재진(宰鎭)의 손자이며, 위(曄)는 현직은 참판(參判)이고 증직은 시정(寺正)인 용진(容鎭)의 증손인데, 시정은 바로 원 묘비문에서 「하나는 아직 어리다.」라고 한 부분이다.

# 이희유(李喜濡) 묘표

所在地 .. 壽井區 高登洞 山 6

建立年代 .. 朝鮮 英祖 45年(1769)

撰 .. 李 憲 鎮

前面書 .. 韓 濩 集字

陰記書 .. 顏 眞 卿 集字

規 模 .. 總高 .. 239 cm, 碑高 .. 152 cm, 幅 .. 61 cm, 厚 .. 37 cm

材 質 .. 蓋石 .. 花崗岩, 碑身 .. 大理石, 臺石 .. 花崗岩

이희유 묘표는 신촌동으로 가는 23번 국도에서 대왕추유소 앞에서 좌회전하여 대왕저수지(大旺貯水池) 상류로 가서 안산마을 식당 뒤 산길로 고개를 넘어 가면 배 과수원 좌측 산이혜(李穡)의 묘소 아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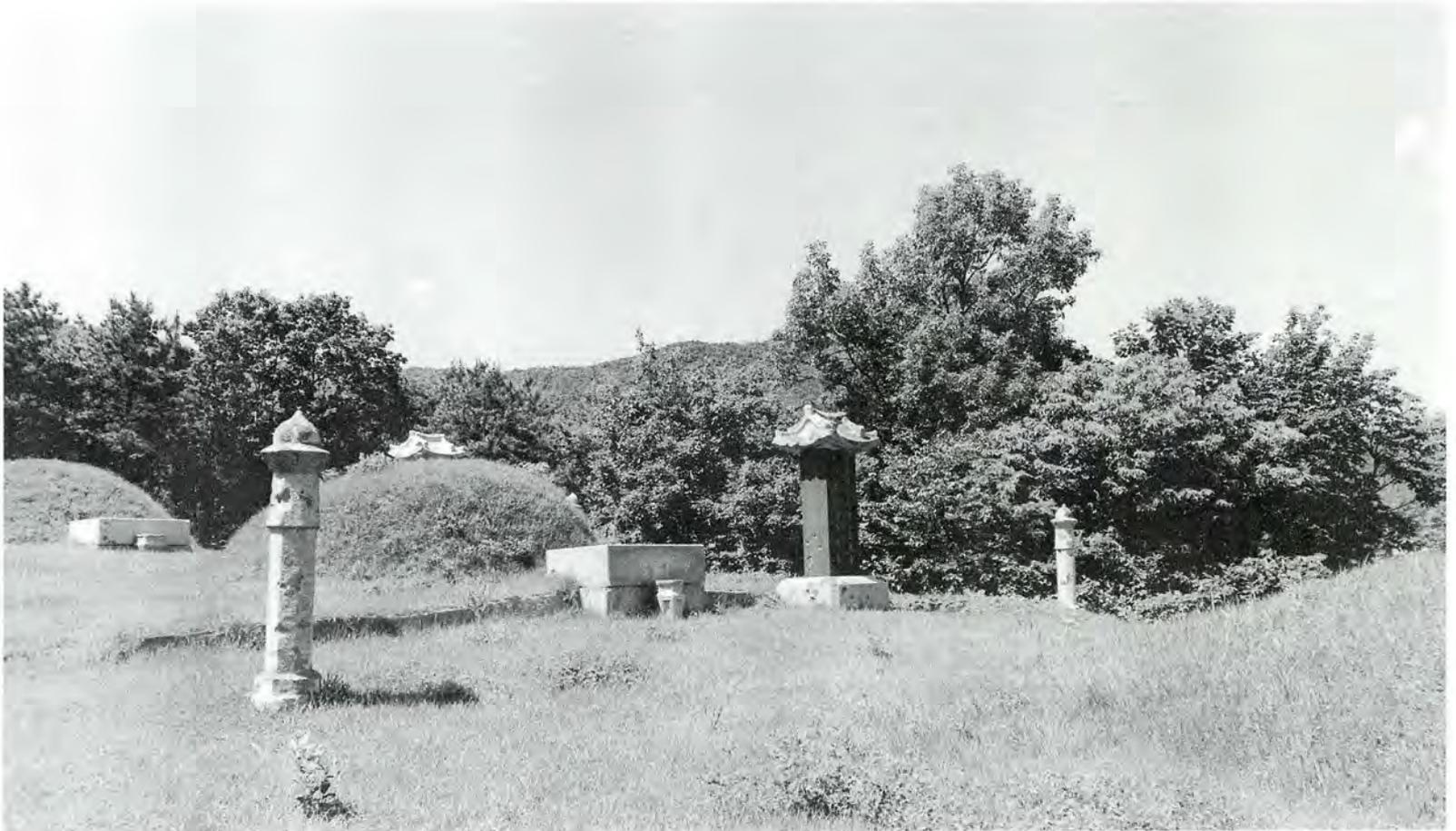
1769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작 지붕으로 단조롭고, 대석에는 문양이 없다.

비문은 손자 이헌진(李憲鎭)이 지었고, 앞면은 한 호(韓濩)의 글씨를 집자(集字) 하였는데 자경(字徑)은 13·0 cm이고, 음기(陰記)는 안진경(顏眞卿)의 글씨를 집자하였고 자경은 3·0 cm의 해서이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공인(恭人) 달성서씨(達城徐氏)와 합장.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망주석이 있다.

이희유(1651~1669)는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자는 천택(天澤)。이조판서 경증(景曾)의 손자, 아버지는 대사간(大司諫) 혜(穡)이고, 어머니는 참판 벼슬을 역임한 신익전(申翊全)의 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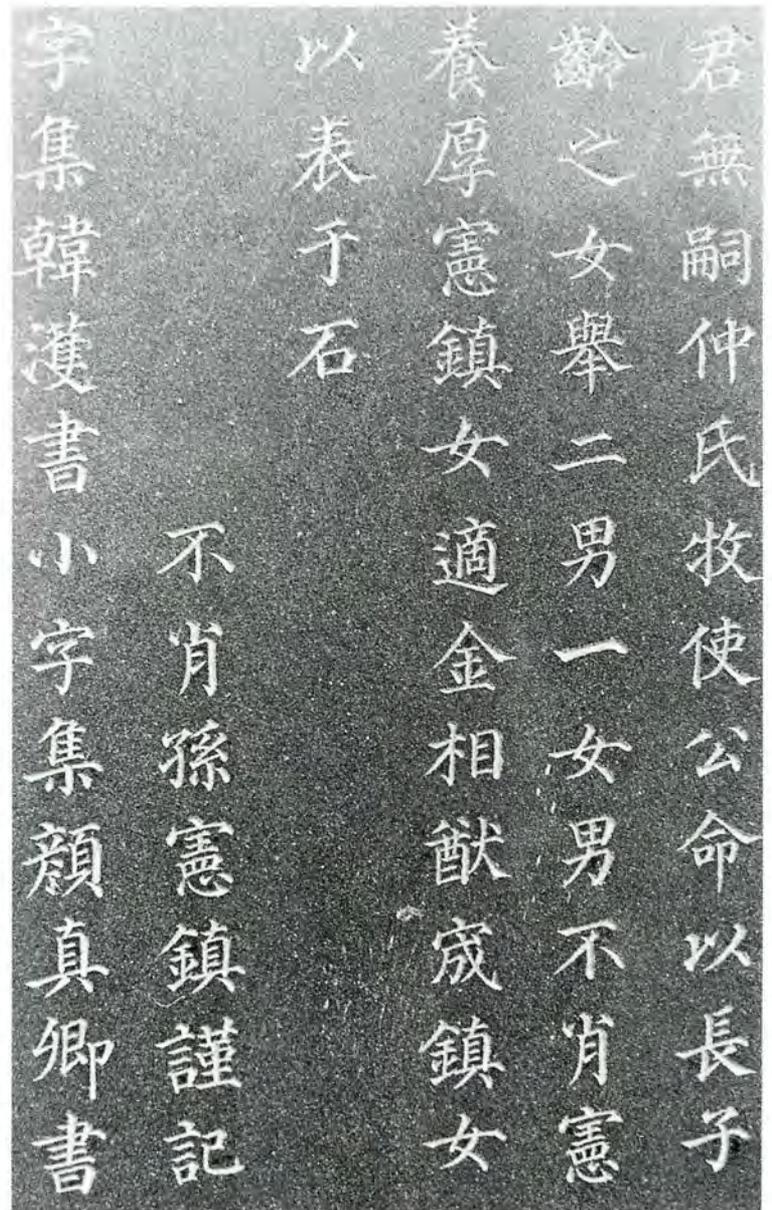
공은 통덕랑(通德郎)을 역임하던 중 요절(夭折)하여 후사가 없어 목사공(牧使公)의 맏아들 좌랑(佐郎) 완(塤)을 양자(養子)로 삼았다.



이희유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글씨

朝鮮通德郎李公喜濡墓  
恭人達城徐氏祔左

府君諱喜濡字天澤德水之李始自高麗中郎將諱敦守世有大官歷四世至藝文館大提學諱仁範益大顯生諱揚仕本朝工曹參議号春塘又其後皆顯官高祖諱麟祥監役贈參判德安君德安君無嗣以再從弟縣令諱元謹第二子諱通為後官順川郡守贈領議政德豐君祖諱景曾吏曹判書考諱嵒弱冠魁進士旋擢文科官大司諫妣平山申氏參判諱翊全之女領議政文貞公諱欽之孫以顯宗壬辰四月十八日巳時生府君繼妣晉州柳氏靖社勲臣晉川君諱頌之女府君卒於己酉六月初四日享年十八配達城徐氏考諱坦履贈領議政行判中樞府事忠肅公諱洵之曾孫生於庚寅六月初六日 日後府君一年卒壽二十一合窆於廣州府西大旺村寺谷負成之原府君無嗣仲氏牧使公命以長子佐郎諱瓘繼府君後主大諫公祀即憲鎮先君子配密陽朴氏參判諱鳳齡之女舉二男一女男不肖憲鎮進士前牧使次歲鎮進士前郡守出繼仲父牧使諱埴後女適校理尹養厚憲鎮女適金相猷歲鎮女適洪樂述尹養厚女適李商萊府君不幸早世言行無徵只叙世系生卒以表于石

不肖孫憲鎮謹記

崇禎紀元後三己丑月日立

大字集韓漢書小字集顏真卿書

## 【前 面】

朝鮮通德郎李公喜濡墓

恭人達城徐氏附左

## 【後 面】

府君諱喜濡字天澤德水之李始自高麗中郎將諱敦守世有大官歷四世至藝文館大提學諱仁範益大顯生諱揚仕 本朝工曹參議號春塘又其後皆顯官高祖諱麟祥監役 贈參判德安君德安君無嗣以再從弟縣令諱元謹第二子諱通爲後官順川郡守 贈領議政德豐君祖諱景曾吏曹判書考諱嵇弱冠魁進士旋擢文科官大司諫妣平山申氏參判諱翊全之女領議政文貞公諱欽之孫以 顯宗壬辰四月十八日巳時生府君繼妣晋州柳氏靖社勳臣晋州君諱頌之女府君卒於己酉六月初四日享年十八配達城徐氏考諱坦履 贈領議政行判中樞府事忠肅公諱渚之曾孫生於庚寅六月初六日後府君一年卒壽二十一合窆於廣州府西大旺村寺谷負戌之原府君無嗣仲氏牧使公命以長子佐郎諱罔繼府君後主大諫公祀卽憲鎮先君子配密陽朴氏參判諱鳳齡之女舉二男一女男不肖憲鎮進士前牧使次成鎮進士前郡守出繼仲父牧使諱埴後女適校理尹養厚憲鎮女適金相猷成鎮女適洪樂述尹養厚女適李商萊府君不幸早世言行無徵只叙世系生卒以表于石

不肖孫憲鎮謹記

崇禎紀元後三己丑 月 日立

大字集韓濩書小字集顏眞卿書

## 【譯 文】

조선통덕랑이공희유묘 공인달성서씨부좌

부군(府君)은 이름은 희유(喜濡)、자는 천택(天澤)이다. 덕수 이씨(德水李氏)는 고려의 중랑장(中郎將)으로서 이름이 돈수(敦守)란 분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대대로 고관대작이 있었고, 4세를 내려와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서 이름이 인범(仁範)이란 분에 이르러서 더욱 크게 드러났다. 대제학공이 이름이 양(揚)이란 분을 낳아 본조(本朝)·朝鮮朝에 벼슬하여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이르르고 호는 춘당(春塘)이었으며, 또 그 후로는 모두 나탄(나뉘) 벼슬을 하신 분이였다.

고조부는 이름이 인상(麟祥)으로서 감역(監役)을 지낸 다음 참판(參判)에 추증되고 덕안군(德安君)에 봉해지셨다. 덕안군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재종제(再從弟)로서 현감(縣監)을 지내고 이름이 원근(元謹)이란 분의 둘째 아들 곧 이름이 통(通)이란 분을 후계자로 삼으셨는데, 벼슬은 순천군수(順川郡守)를 지낸 다음 영의정에 추증되고 덕풍군(德豐君)에 봉해지셨다. 조부는 이름이 경증(景曾)인데,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지내시고, 아버지는 이름이 혜(稀)인데, 약관의 나이로 진사시(進士試)에서 우등으로 합격한 다음 곧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평산 신씨(平山申氏)로서 참판(參判)을 지내고 이름이 익전(翊全)인 분의 따님이자 영의정이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며 이름은 흠(欽)이란 분의 손녀이신데, 현종(顯宗) 임진년(壬辰年) 4월 18일 사시(巳時)에 부군을 낳으셨다.

계모는 진주 유씨(晉州柳氏)인데, 정사훈신(靖社勳臣)이고 진주군(晉州君)에 봉해지고 이름이 구(頤)란 분의 따님이시다.

부군은 기유년(己酉年) 6월 초 4일에 향년 18세로 작고하셨다. 배위는 달성 서씨(達城徐氏)로서 아버지는 이름이 탄(坦)이며,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지내고 시호는 충숙(忠肅)이고 영의정에 추증되고 이름은 성(滄)이란 분의 증손녀이신데, 경인년(庚寅年) 6월 초 6일에 태어나서 부군보다 1년 뒤에 향년 21세로 작고하시니, 광주부(廣州府) 서쪽 대왕촌(大旺村) 사곡(寺谷) 숲

좌(戊坐)의 언덕에 합폄하였다.

부군에게 후사가 없으므로 목사공(牧使公)의 맏아들로서 좌랑(佐郎)을 지내고 이름이 완(琬)이란 분으로 부군의 뒤를 이어서 대간공(臺諫公)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니, 곧 헌진(憲鎭)의 선군자(先君子)·先親)이다. 배위는 밀양 박씨(密陽朴氏)로서 참판(參判)을 지내고 이름이 봉령(鳳齡)이란 분의 따님이신데, 2남 1녀를 낳으셨으니, 맏아들은 불초자 헌진(憲鎭)으로서 진사시에 합격하여 목사(牧使)를 지냈고, 둘째 아들은 성진(成鎭)으로서 진사시에 합격하여 군수(郡守)를 지냈는데, 증부(仲父)로서 목사(牧使)를 하고 이름이 식(植)이란 분의 후계자가 되었다. 딸은 교리(校理) 윤양후(尹養厚)에게 시집갔다.

헌진의 딸은 김상유(金相猷)에게 시집가고, 성진의 딸은 홍낙술(洪樂述)에게 시집가고, 윤양후의 딸은 이상래(李商萊)에게 시집갔다.

부군께서 불행하게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언행을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세계(世系)와 생졸(生卒)만을 적어서 돌에 표시해둘 뿐이다.

송정(崇禎) 기원 후 세 번 돌아온 기축년(己丑年) 월 일에 비석을 세움.

불초손 헌진(憲鎭)은 삼가 기록함.

큰 글자는 한호(韓濩)의 글씨를 집자하고,

잔 글씨는 안진경(顔眞卿)의 글씨를 집자하였다.

# 황유사(黃有師) 묘표

所在地 .. 壽井區 倉谷洞 山 83-1

建立年代 .. 朝鮮 英祖 46年(1770)

撰 .. 兪 彦 鏞

書 .. 黃 運 祚

規 模 .. 總高 .. 198 cm, 碑高 .. 142 cm, 幅 .. 58 cm, 厚 .. 32 cm  
 材 質 .. 蓋石 .. 花崗岩, 碑身 .. 花崗岩, 臺石 .. 花崗岩

황유사 묘표는 산성동에서 북정동으로 가는 길에서 창공동으로 우회전하면 창곡삼거리 좌측 산 정남쪽에 있다.

1770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은 팔작지붕으로 단조롭고 대석에는 문양이 없다.

비문은 외조카 유언수(兪彦鏞)가 지었고, 앞면 글씨의 자경(字徑)은 11·0cm이고, 음기(陰記) 자경은 2·5cm의 해서로 황운조(黃運祚)가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나 뒷면 좌측 상부가 개석에 가려져 일부 판독이 난해하며, 묘소는 증정부인 전의이씨(全義李氏)와 합장. 상석·족석·혼유석·계체석·망주석이 있다.

황유사(1680~1739)는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운보(雲甫). 형조판서 거정(居正)의 후손. 아버지는 참찬(參贊) 일하(一夏)이고, 어머니는 학생(學生) 이시형(李時馨)의 딸이다.

학문과 덕행이 있었으나 과거(科擧)에는 불운하였고 1722년(경종 2) 임인사화(壬寅士禍)에 수난을 당한 제현들과 교의(交誼)가 깊었으나 참벌(斬伐)이 있는 후에는 서호(西湖)의 현석강(玄石江) 위에 집을 짓고 풍류를 즐기고, 현 시대를 개탄하여 일생을 마쳤다.

벼슬은 통덕랑(通德郎)을 역임하였고 둘째 아들 채(采)가 무과에 급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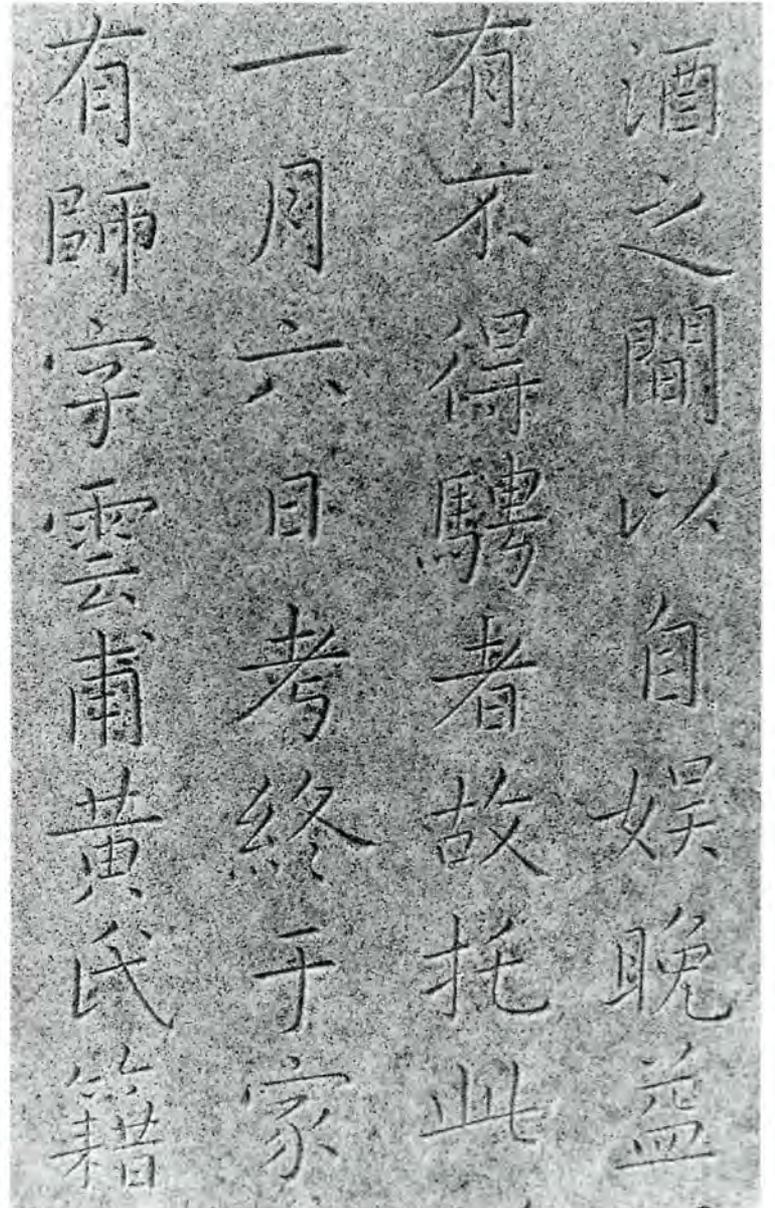
공에게 호조참판을 증직하였다.



황유사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글씨



상 석



망주석



망주석[다람쥐]

朝鮮國通德郎

贈戶曹

參判黃公有師雲甫之墓  
贈貞夫人全義我李氏祔左

景宗初元黨人當國國將傾危時右尹黃公上疏極論宦寺締結之罪兇徒容護之狀遂被譴黜今上  
即降以知申台還卒官左參贊識者謂國家之得以全安實此疏為有力也舉丈夫子三公其季也以  
肅宗庚申七月十一日生幼聰慧才思過人不煩課督能自誦習發言多成章稍長器宇軒豁卓犖不羈  
有跌宕豪雋之氣常曰男兒事業不專在於章句末學而已博觀載籍則文章亦隨以富自古英雄豪傑  
何嘗以文字成就功業以是不區區從事間遊場屋占小大解不利亦不介於意篤於內行事親之際戲  
笑諧謔務悅其意日與兄弟子姪環坐娛侍其樂融洩也喜施與周窮恤急惟懼不及而無所惜見世之

小夫窶人齷齪者若將浼焉羞與之周旋嘗與壬寅諸賢友善及至士禍斬伐之後踽踽無聊卜筭於西湖之玄石江上因自放於琴棋詩酒之間以自娛晚益不得志間有鬱結輒快倒大盃酒酣諷誦國風離騷以至樂府歌謠蓋其中所蘊抱有不得騁者故托此以自遣多識於前言徃行及斯文汪渭與人言譚說袞袞聽者不覺其移晷已未十一月六日考終于家春秋六十翼年正月卜葬于廣州治西佳樂洞坤向原南距沙村大墓二十里公諱有師字雲甫黃氏籍昌原自高麗侍中忠俊為始 本朝諱居正刑曹判書六傳而至立中郡守 贈參判於公為高祖曾祖沔蔭補察訪 贈大司憲祖震考判官 贈吏曹判書參贊公諱一夏妣完山李氏學生時馨女孝寧大君補後也媿全義李氏庶尹諱尚隣之女府尹廷鸞曾孫也以庚申二月二十六日生乙丑七月二十九日沒葬附左夫人天品溫懿淵靜鮮喜怒寡言咲孝奉尊孀謹事妯娒至於治家待人率皆出於寬惠敦仁一家親屬之無依賴者歸之如已家夫人皆容而接之使之安其心而樂其居人皆感服婢史僕御莫不稱慕而誦說之及其沒也笑之哀思之久生三男二女男長東出繼伯氏交河公後以承參贊公祀次寀武科節度使次槃女長適俞彥鏞次未字而夭矣于墓前小左東娶大護軍元夢殷女生二男曰仁炫方業儒曰仁煥武科營將一女適正言金若行側男仁然寀娶都事金礪女無育取仁煥為后側出三男幼二女歸李漢石金命疑槃娶學生李著成女

無男取堂從子仁煥為子一女適趙岱俞壻一男漢芝二女長為魚用元妻次未行公以節度公秩二品追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帶如例夫人從 贈焉余少也入公之門公已老白首矣然竊觀公美鬚髯風儀休休進止不苟門闈之間和氣融融接應之際誠意款款亦可見積中發外之驗也宜其早歲蜚英以過了一世而既限公車又值世運予陂之會遂使有用之器卒不得試豈非命歟嗚呼上古之世位必稱德中世以後已矣無徵則生於季世不得展布者又何足悲哉

上之四十六年庚寅閏夏外甥俞彥鏞謹記昌原黃運祚書

## 【前 面】

朝鮮國通德郎 贈戶曹

參判黃公有師雲甫之墓

贈貞夫人全義李氏附左

## 【左側面】

景宗初元黨人當國國將傾危時右尹黃公上疏極論宦寺締結之罪兇徒容護之狀遂被譴黜 今上卽阼以知申召還卒官左參贊識者謂國家之得以全安實此疏爲有力也舉丈夫子三公其季也以肅宗庚申七月十一日生幼聰慧才思過人不煩課督能自誦習發言多成章稍長器宇軒豁卓犖不羈有跌宕豪雋之氣常曰男兒事業不專在於章句末學而已博觀載籍則文章亦隨以富自古英雄豪傑何嘗以文字成就功業以是不區區從事間遊場屋占小大解不利亦不介於意篤於內行事親之際戲笑諧謔務悅其意日與兄弟子姪環坐娛侍其樂融洩也喜施與周窮恤急惟懼不及而無所惜見世之

## 【後 面】

小夫窶人齷齪者若將浼焉羞與之周旋嘗與壬寅諸賢友善及至士禍斬伐之後踽踽無聊卜築於西湖之玄石江上因自放於琴碁詩酒之間以自娛晚益不得志間有鬱結輒快倒大盃酒酣諷誦國風離騷以至樂府歌謠蓋其中所蘊抱有不得騁者故托此以自遣多識於前言往行及斯文涇渭與人言譚說袞袞聽者不覺其移晷己未十一月六日考終于家春秋六十翼年正月卜葬于廣州治西佳樂洞坤向原南距沙村大墓二十里公諱有師字雲甫黃氏籍昌原自高麗侍中忠俊爲始 本朝諱居正刑曹判書六傳而至立中郡守 贈參判於公爲高祖曾祖沔蔭補察訪 贈大司憲祖震考判官 贈吏曹判書參贊公諱一夏妣完山李氏學生時馨女孝寧大君補後也妣全義李氏庶尹諱尙隣之女府尹廷鸞曾孫也以庚申二月二十六日生乙丑七月二十九日沒葬附左夫人天品溫懿淵靜鮮喜怒哀言笑孝奉尊嫜謹事妯娌至於治家待人率皆出於寬惠敦仁一家親屬之無依賴者歸之如己家夫人皆容而接之使之安其心而樂其居人皆感服婢史僕御莫不稱慕而誦說之及其沒也哭之哀思之久生三男二女男長束出繼伯氏交河公後以承參贊公祀次窆武科節度使次槃女長適俞彥鏞次未字而夭

葬于墓前小左束娶大護軍元夢殷女生二男曰仁炫方業儒曰仁煥武科營將一女適正言金若行側出男仁然窀娶都事金碯女無育取仁煥爲后側出三男幼二女歸李漢石金命嶷槃娶學生李著成女

【右側面】

無男取堂從子仁炘爲子一女適趙岱俞壻一男漢芝二女長爲魚用元妻次未行公以節度公秩二品追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帶如例夫人從贈焉余少也入公之門公已老白首矣然竊覲公美鬚髯風儀休休進止不苟門闌之間和氣融融接應之際誠意款款亦可見積中發外之驗也宜其早歲蜚英以足了一世而旣限公車又值世運平陂之會遂使有用之器卒不得試豈非命歟嗚呼上古之世位必稱德中世以後已矣無徵則生於季世不得展布者又何足悲哉

上之四十六年庚寅閏夏外甥俞彥鏞謹記昌原黃運祚書

【譯 文】

조선국통덕랑 증호조참판황공유사운보지묘 증정부인전의이씨부좌

경종(景宗) 초년에 당인(黨人)들이 국권(國權)을 쥐었기 때문에 나라가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이때에 우윤(右尹) 황공(黃公)이 상소를 올려서 환시(宦寺)·宦官(들)의 결탁에 대한 죄상과 흉도(兇徒)들의 비호에 대한 실상을 극도로 논하다가 결국 견책을 받고 쫓겨났다. 뒤에 금상(今上)·英祖(이 즉위 하여 지신사(知申事)·承旨)라는 벼슬을 가지고 황공을 소환하였는데, 황공은 참찬(參贊)을 마지막으로 벼슬 생활을 마감하였다. 식자층에서는 「국가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황공의 이상소가 힘이 되었다.」고 한다.

황공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공(公)·黃有師(은 그 중 막내였다. 숙종 경신년(庚申年) 7월 11일에 태어났는데, 총명과 지혜와 재주와 사려가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스승이 번거롭게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잘 하였고, 발설을 하면 그 자체가 대부분 문장을 이루었다.

약간 성장해서는 도량이 넓고 기개가 뛰어나서 자질구레한 일로 구속을 받지 않고 호탕한 기백을 가졌다. 공은 늘 말씀하기를 『남아가 할 사업은 오로지 장구(章句)나 떠는 말단적인 학문에 있지 않다. 서적을 널리 보면 문장도 따라서 풍부해지기 마련이다. 자고로 영웅 호걸들이 어찌 일찍이 문자를 가지고 사업을 성취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고는, 학문에 구구하게 종사하지 않고, 간혹 장옥(場屋)·科場(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곤 하였는데, 적은 점수를 받는 많은 점수를 받는 합격이 되든 낙방이 되든 전연 개의치 않았다. 오직 자신이 할 일에만 독실할 뿐이었다. 그리고 아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우스갯짓을 하고 이사를 부려서 아버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힘썼다. 날마다 형제·자제들과 둘러앉아서 아버이를 즐겁게 모셨으니, 그 즐거움은 화기가 넘쳤다.

또한 베풀어서 없는 사람을 돕고 급한 사람을 구휼하는 일을 좋아하여, 오직 두루 미치지 못할까만을 염려하고 아끼는 것이 없었다. 세상에서 악착스럽게 구는 소장부(小丈夫)나 가난뱅이를 보면 행여 더럽혀질까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 주선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였다.

공은 일찍이 임인년(壬寅年)에 수난을 당한 제현(諸賢)들과 교의(交誼)가 깊었는데, 참벌(斬伐)의 사화(士禍)가 있는 후로는 쓸쓸하게 무료한 신세가 되어서 서호(西湖)의 현석강(玄石江) 위에 집을 짓고 거문고 타고 바둑 두고 시 짓고 술 마시는 일로 낙을 삼았다. 만년에는 더욱 뜻을 얻지 못하였다. 그 러자 간혹 율화가 치밀면 문득 술을 들이키고 술이 취하면 국풍(國風)·이소(離騷)에서 악부(樂府)·가요(歌謠)에 이르기까지 읊었다. 아마 속에 품고 있는 회포를 풀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일을 하였던 모양이다. 옛 사람의 언행 및 사문(斯文)의 경위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담론이 너무 진진해서 듣는 사람들이 시간이 간 줄을 몰랐다.

기미년(己未年) 11월 6일에 집에서 천수를 마치니, 춘추 60세였다. 그들이 정월에 광주(廣州) 읍 서쪽 가락동(佳樂洞) 곤향(坤向)의 언덕에 장사지냈으니, 남쪽으로 사촌(沙村) 선산과의 거리는 20리였다.

공은 이름은 유사(有師), 자는 운보(雲甫)요, 황씨의 본관은 창원(昌原)인데, 고려 시대 시중(侍中)을 지낸 충준(忠俊)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조(本朝)·朝鮮(에 들어와서는 이름이 거정(居正)이란 분이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지냈고, 여섯 번 전해 내려와 임중(立中)이란 분이 이르러서는 군수(郡守)를 지내고 참판(參判)에 추증되었는데, 이 분은 공에게 고조부가 된다.

증조부 면(沔)은 문음(門蔭)으로찰방(察訪)을 지내고 대사헌(大司憲)에 추증되었으며, 조부 진구(震耆)는 판관(判官)을 지내고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아버지 참찬공은 이름이 일하(一夏)요, 어머니 완산 이씨(完山李氏)는 학생(學生) 시형(時馨)의 딸이자 효령대군(孝寧大君) 보(補)의 후손이다.

배위 전의 이씨(全義李氏)는 서윤(庶尹)을 지내고 이름이 상린(尙隣)이란 분의 딸이자 부윤(府尹)을 지낸 정란(廷鸞)의 증손녀인데, 경신년(庚申年) 2월 26일에 탄생하고 을축년(乙丑年) 7월 29일에 작고하니, 공의 무덤 왼편에

1) 임인년(壬寅年)·조선조 경종 2년 곧 1722년에 해당되는 해인데, 이 해에 목호룡(陸虎龍)의 고변(告變)으로 일어난 옥사에서 소위 노론 4대신인 이이명(李爾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김창집(金昌翕) 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죽었다.

부장하였다. 부인은 타고난 천성이 온화하고 조용하며, 기뻐하거나 성내는 일이 적고 웃는 일도 적었다. 시부모를 효성으로 받들고 동서들을 삼가 섬겼으며, 집안을 다스리고 사람을 접대함에 있어서는 모두 은혜로운 정의와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하였다.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친속(親屬)이 마치 자기처럼 찾아오면 부인은 모두 받아들여 접대하되 그들 마음을 편안케 하고 그들 거처를 포근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감복했고, 노비들 중에는 사모하고 칭송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따라서 부인이 죽자 슬피 곡하고 오래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가지지 않았다.

3남 2녀를 낳았으니, 맏아들 간(柬)은 백씨(伯氏)인 교하공(交河公)의 후계자로 나가서 참찬공의 제사를 받들고, 둘째 아들 채(采)는 무과에 합격하여 절도사(節度使)를 하고, 셋째 아들은 반(槃)이다. 맏딸은 유언수(兪彦鏞)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어려서 죽었는데, 공의 무덤 앞 조금 왼쪽에 장사지냈다.

간(柬)은 대호군(大護軍) 원몽은(元夢殷)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으니, 맏아들 인현(仁炫)은 바야흐로 유학을 닦고 있고, 둘째 아들 인영(仁瑛)은 무과를 거쳐 영장(營將)으로 있는 중이며, 딸은 정언(正言) 김약행(金若行)에게 시집갔다. 그리고 소실 소생의 아들은 인연(仁然)이다. 채(采)는 도사(都事) 김유(金樞)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인영(仁煥)을 데려다가 후계자로 삼았다. 소실은 3남 2녀를 낳았으니, 3남은 아직 어리고, 두 딸은 이한석(李漢石)과 김명익(金命嶷)에게 각각 시집갔다. 반(槃)은 학생(學生) 이시성(李耆成)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당종(堂從)의 아들 인선(仁先)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고, 한 딸은 조대(趙岱)에게 시집갔다. 사위 유언수(兪彦鏞)는 1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한지(漢芝)요, 맏딸은 어용원(魚用元)의 아내가 되었고, 둘째 딸은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공은 절노공(節度公)의 품계가 2품인 때문에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고, 겸직(兼職)은 규례대로 겸하게 되었다. 부인도 따라서 추증되었다.

나는 젊어서 공의 집에 장가들었는데, 그 때에 공은 이미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희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건대, 공은 아름다운 수염에 풍채는 빼어

나고 행동거지는 점잖았으며, 가정을 통솔함에 있어서는 화기에 애하고, 남을 응접함에 있어서는 성의가 넘쳤으니, 또한 속에 쌓이면 밖으로 드러난다는 징험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공은 응당 일찍이 명예를 떨쳐 한 세대를 주름잡아야 했을 것인데, 이미 과거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또한 평탄치 못한 세운(世運)을 만나서 쓸모 있는 그릇을 끝내 시험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것은 운명이었던가?

아, 상고 세대에는 직위가 반드시 덕에 맞게 배당되었으니 중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 말세에 태어나서 포부를 펴지 못한 것은 또 어찌 죽히 슬피 할 일이겠는가?

상(上)·英祖의 46년인 곧 경인년(庚寅年) 윤하(閏夏)에

사위 유언수(兪彦鏞)는 삼가 글을 짓고, 창원(昌原) 황운조(黃運祚)는 글을 씀.

# 이병건(李秉健) 묘표

指定番號 ··· 京畿道 記念物 第116號

所在地 ··· 盆唐區 藪內洞 山 112

建立年代 ··· 朝鮮 英祖 46年(1770)

撰 ··· 李 山 重

規 模 ··· 總高 ··· 199 cm、碑高 ··· 135 cm、幅 ··· 52 cm、厚 ··· 35 cm

材 質 ··· 蓋石 ··· 花崗岩、碑身 ··· 花崗岩、臺石 ··· 花崗岩

이병건 묘표는 분당 중앙공원내 이증(李增) 신도비각을 지나 좌측 산길로 올라가면 아들 이산중(李山重)의 묘소 위에 있다.

1770년에 건립된 이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작 지붕으로 대석과 같이 문양이 없이 단조롭다.

이 비는 아들 이산중(李山重)이 비문(碑文)을 지었으며, 앞면은 예서(隸書)로 자경(字徑)은 5·0cm이고, 음기(陰記)는 해서(楷書)로 자경이 2·2cm이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정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와 합장. 상석·족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망주석이 있다.

이 묘소는 1973년 4월에 고양(高陽)에서 천장(遷葬)한 것이다.

이병건(1696~1742)은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자는 여강(汝剛)。관찰사 집(溲)의 아들이다.

1719년(숙종 45)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어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제수되고, 이듬해 빙고별검(氷庫別檢)을 거쳐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에 승진되었다. 이어 형조좌랑이 되고, 호조좌랑으로 올랐다. 그 뒤 잠시 경상도 지례현감으로 나갔다가 다시 내직으로 옮겨 1741년(영조 17) 전설사 별제(典設司別提)에 제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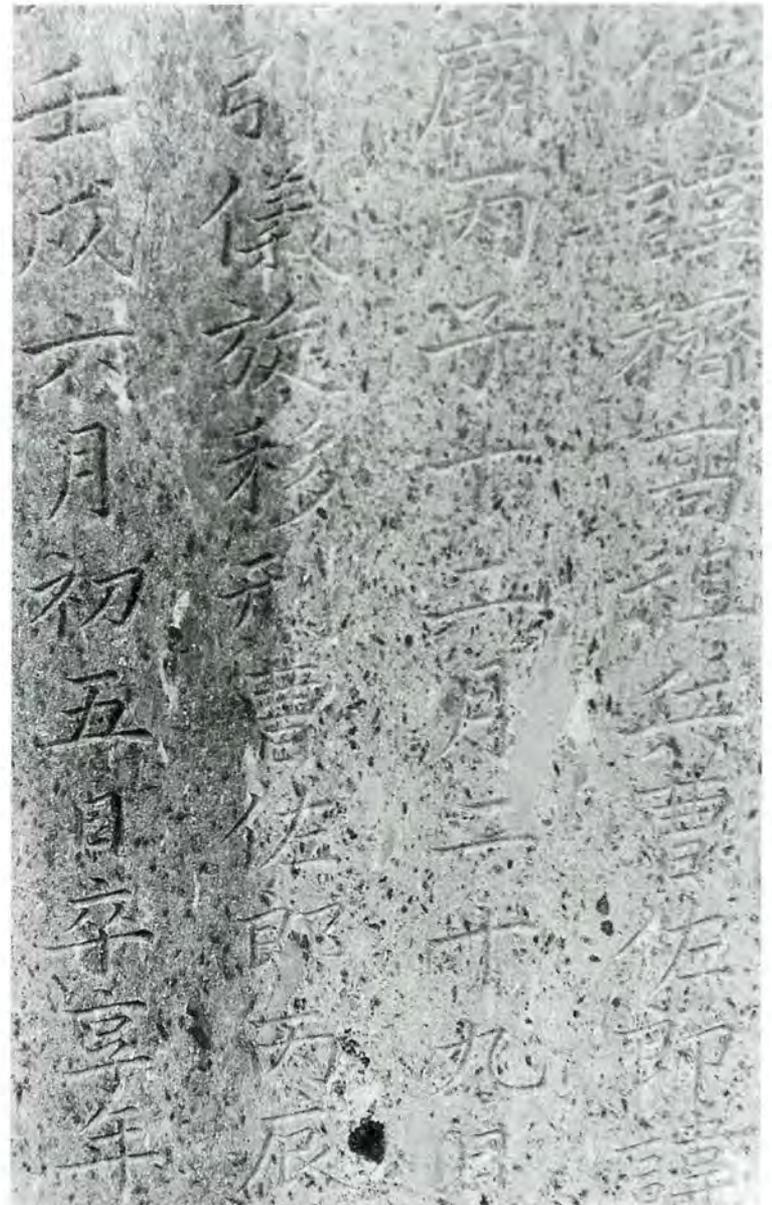
사후에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다.



이병건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글씨



府君姓李諱秉健字汝剛自號松湖韓山人牧隱先生十二代孫也考觀察使諱溥祖 贈參判行金堤  
郡守諱廷龍曾祖 贈參判行大丘府使諱穉高祖兵曹佐郎諱慶流壬辰殉節 贈都承旨妣貞夫人  
杞溪俞氏參判諱樞之女府君以 肅廟丙子十二月二十九日丑時生己亥中司馬壬子 除教習府  
都事癸丑移水庫別檢乙卯陞通禮院引儀旋移刑曹佐郎丙辰轉戶曹佐郎正郎出宰知禮縣戊午連  
艱歸辛酉拜典設司別提遷工曹佐郎壬戌六月初五日卒享年四十七八月葬于高陽九耳洞良坐原  
配貞夫人南陽洪氏縣令諱禹諧女判書諱受瀾孫領議政睡谷李公諱奮之外孫甲戌十二月十一日  
生己丑十月初四日卒十二月附于左壽七十六有三男一女男長即不肖孤前郡守次石重早沒次  
重前吏曹叅議曾經二品秩追榮于府君女適縣監申大季不肖孤二男一女男長泰永次奎永繼石重  
後女適金履錄石重二女長適金履明次適金鍾雋海重一男四女男道永女長適進士俞駿柱次適不  
奉朴紉壽餘未笄泰永有三男一女皆幼歲庚寅冬立石不肖孤山重泣血謹識

## 【前 面】

有明朝鮮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  
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通訓  
大夫行戶曹正郎韓山李公諱秉健之墓  
配貞夫人南陽洪氏附左

## 【後 面】

府君姓李諱秉健字汝剛自號松湖韓山人牧隱先生十二代孫也考察使諱濩祖 贈參判行金堤  
郡守諱廷龍曾祖 贈參判行大丘府使諱積高祖兵曹佐郎諱慶流壬辰殉節 贈都承旨妣貞夫人  
杞溪俞氏參判諱櫨之女府君以 肅廟丙子十二月二十九日丑時生己亥中司馬壬子 除義禁府  
都事癸丑移水庫別檢乙卯陞通禮院引儀旋移刑曹佐郎丙辰轉戶曹佐郎正郎出宰知禮縣戊午遭  
艱歸辛酉拜典設司別提遷工曹佐郎壬戌六月初五日卒享年四十七八月葬于高陽九耳洞艮坐原  
配貞夫人南陽洪氏縣令諱禹諧女判書諱受瀨孫領議政睡谷李公諱畬之外孫甲戌十二月十一日  
生己丑十月初四日卒十二月附于左壽七十六有三男一女男長卽不肖孤前郡守次石重早沒次海  
重前吏曹參議曾經二品秩追榮于府君女適縣監申大年不肖孤二男一女男長泰永次奎永繼石重  
後女適金履錄石重二女長適金履明次適金鍾雋海重一男四女男道永女長適進士兪駿柱次適參  
奉朴緝壽餘未笄泰永有三男一女皆幼歲庚寅冬立石不肖孤山重泣血謹識

## 【譯 文】

유명조선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행통훈대부행 호조정랑한산이공휘병건지묘 배정부인남양홍씨부좌

부군(府君)은 성은 이(李), 이름은 병건(秉健), 자는 여강(汝剛), 호는 송호(松湖),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목은(牧隱) 선생 12대손이다. 그 아버지는 관찰사(觀察使)를 지내고 이름이 집(滌)이란 분이시고, 조부는 김제군수(金堤郡守)를 지낸 다음 참판(參判)에 추증되고 이름이 정룡(廷龍)이란 분이시고, 증조부는 대구부사(大丘府使)를 지낸 다음 참판(參判)에 추증되고 이름이 제(稹)란 분이시고, 고조부는 병조 좌랑(兵曹佐郎)을 지내고 이름이 정류(慶流)란 분이신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순절(殉節)하고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다. 어머니 정부인(貞夫人) 기계유씨(杞溪俞氏)는 참판을 지내고 이름이 현(櫛)이란 분의 따님이시다.

부군은 숙묘(肅廟)·肅宗(肅宗) 병자년(丙子年) 12월 29일 축시(丑時)에 태어나서 서기해년(己亥年)에는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임자년(壬子年)에는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임명되었고, 계축년(癸丑年)에는 빙고(氷庫別提)로 전직되었고, 을묘년(乙卯年)에는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로 승진되었다가 형조 좌랑(刑曹佐郎)으로 옮겼고, 병진년(丙辰年)에는 호조(戶曹)의 좌랑(佐郎)과 정랑(正郎)으로 전직되었다가 지례현감(知禮縣監)으로 나아가셨으며, 무오년(戊午年)에는 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내려오셨고, 신유년(辛酉年)에는 전설사 별제(典設司別提)에 임명되었다가 공조 좌랑(工曹佐郎)으로 전직되었다.

임술년(壬戌年) 6월 초 5일에 작고하시니 향년 47세였고, 그 해 8월에 고양(高陽) 구이동(九耳洞) 간좌(艮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배위 정부인(貞夫人) 남양 홍씨(南陽洪氏)는 현령(縣令)을 지내고 이름이 우해(禹諧)란 분의 따님이시자 판서(判書)를 지내고 이름이 수헌(受憲)이란 분의 손녀이시고 영의정을 지내고 호는 수곡(睡谷)이고 성명은 이여(李畬)란 분의 외손녀이시다. 갑술년(甲戌年) 12월 11일에 탄생하시고 기축년(己丑年) 10월 초 4일에 작고

하시니, 12월에 공의 무덤 왼쪽에 부장하였는데, 향년 76세였다.

3남 1녀를 두셨으니, 맏아들은 마로 불초자로서 군수를 지냈고, 둘째 아들은 석중(石重)인데 일찍 죽었고, 셋째 아들은 해중(海重)으로서 이조참의(史曹參議)를 지냈는데, 일찍이 2품의 품계를 거쳤기 때문에 부군에게 벼슬이 추증된 것이다. 딸은 현감(縣監)으로 있는 신대년(申大年)에게 시집갔다.

불초자는 2남 1녀를 두었으니, 맏아들은 태영(泰永)이고, 둘째 아들은 규영(奎永)인데 석중(石重)의 후계자로 갔으며, 딸은 김이유(金履錄)에게 시집갔다. 석중은 2녀를 두었는데, 맏딸은 김이명(金履明)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김종준(金鍾準)에게 시집갔다. 해중은 1남 4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도영(道永)이며, 맏딸은 진사(進士)인 유준주(俞駿柱)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참봉(參奉)인 박홍수(朴紉壽)에게 시집가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태영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다 어리다.

경인년(庚寅年) 겨울에 비석을 세움.

불초자 산중(山重)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기록함.

## 이진수(李晉秀) 묘표

所在地 · 壽井區 沙松洞 山 66-5

建立年代 · 朝鮮 純祖 3年(1803)

撰 · 李 升 權

書 · 李 亨 權

追記 · 李 升 權

規模 · 總高 · 227cm, 碑高 · 130cm, 幅 · 50cm, 厚 · 26cm

材質 · 蓋石 · 花崗岩, 碑身 · 大理石, 臺石 · 花崗岩

이진수 묘표는 백현 2교를 지나 수자원공사 비포장 길로 가면 사송동 농막 마을의 비닐 하우스 뒤 정남쪽에 있다.

1803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각지붕으로 단조롭고, 대석은 문양이 없이 장방형 판석 위에 세워져 있다.

비문은 아들 이승권(李升權)이 짓고, 추기(追記)도 하였으며, 앞면의 글씨 자경(字徑)은 10·0cm이고, 음기(陰記)의 자경은 2·5cm, 추기의 자경은 1·0cm로 아들 이형권(李亨權)이 해서(楷書)로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정부인 임천조씨(林川趙氏)와 합장. 상석 · 향로석 · 혼유석 · 계체석 · 양석(羊石) · 망주석이 있다.

이진수(1762~1796)는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대경(大卿)이며, 초휘(初諱)는 경수(景秀)。 무과에 급제하고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를 지낸 태상(泰祥)의 손자, 한풍(漢豊)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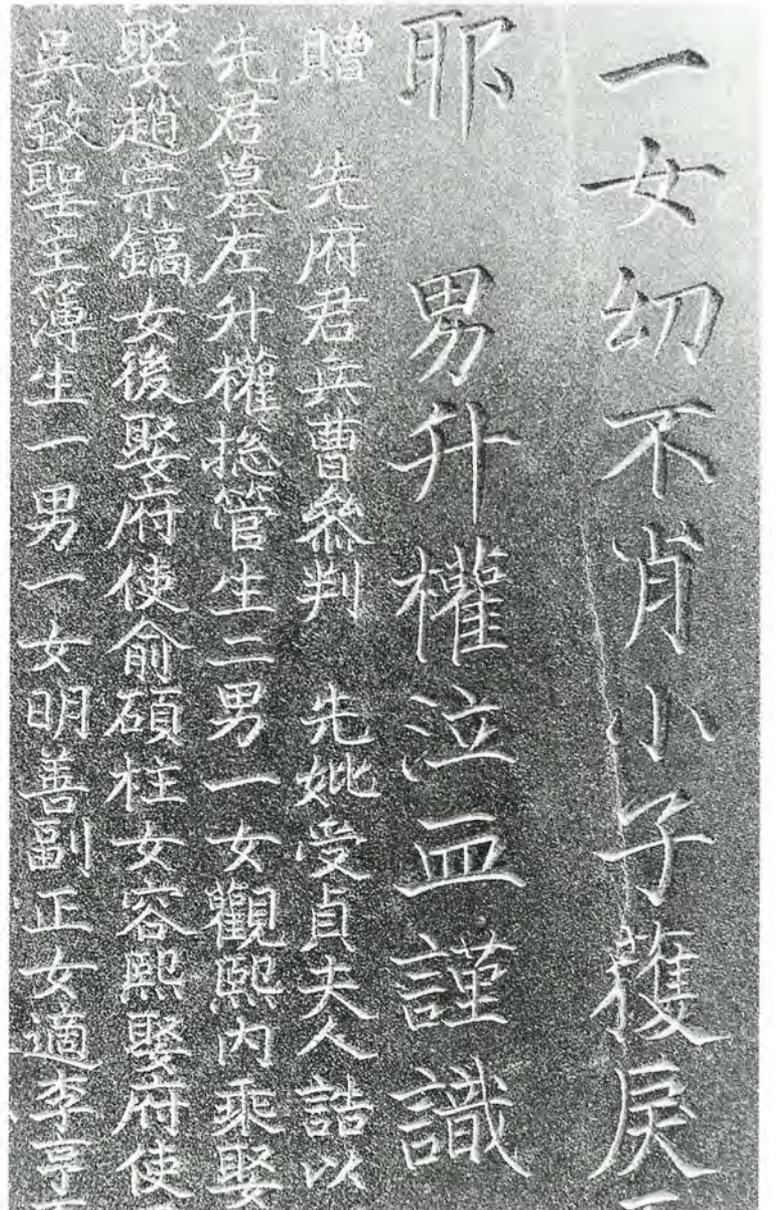
1789년(정조 13) 선전관으로서 무과에 당당히 급제하였으며 이후, 훈련원정(訓練院正)을 지내고 승정원 우승자가 되었으나 35세의 나이로 일찍 별세하였다. 사후에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이진수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글씨

有明朝鮮國通政大夫承政  
院右承旨李公諱晉秀之墓  
貞夫人林川趙氏祔左

嗚呼先府君之棄不肖居然鑽燧已八周而楸木已亭亭矣墓道尚闕顯刻歲月愈久則將至於浸泯小子惕然是懼  
 營立小石而府君之深仁厚德豈不肖蒙駭可說到也粗記其所逮覩者寧約而不敢夸庶不失府君冲挹不自有之  
 本意也耶府君諱晉秀字大卿早服家訓夙有令望 正宗丁未 除南行宣 傳官仍遷部將已酉以別軍職登第  
 歷都摠府都事經歷訓練院正壬子陞兼司僕將內乘癸丑 除承政院承旨外而 除草溪定州昌城皆未赴蓋自  
 初仕受 知偏深常直 禁閹昵 侍近密殆無退食之暇故未嘗出外也丙辰夏患闕格自直廬還第 上遣醫頒  
 劑問訊不絕及訃聞 上震悼命輟玉食 若曰自茲以往府中無人 致慰參判府君 遣近侍治喪初終諸具皆  
 內帑出 賜下甚夥不可殫數 持命歛用章服葬時 遣人護喪及其祥棊 持頌祭需又 下酒燭致酌于墓  
 對近臣言輒嗟惜不已聞者為之感涕嗚呼從古人臣之知遇何限而豈有如府君之曠絕千載也哉以 聖朝則哲  
 之明前後 眷注若是隆摯則府君之所存槩可推矣而自有揮映人耳睫者矣德水之李以嚴朝中郎將諱敦守為  
 鼻祖入我 朝有貞靖公諱邊有忠武公諱舜臣以文章武烈益顯寔府君十二世暨七世祖也曾祖諱弘規府使  
 贈判書祖諱泰祥崇政統制使考諱漢豐嘉義刑曹參判訓練大將以忠謹廉白特為 朝家所倚重妣貞夫人咸安  
 趙氏承旨諱榮世之孫諱重弼之女也府君以 英廟壬午十一月二十六日生以 正廟丙辰六月四日卒享年三

十五以是歲八月日葬于廣州府大旺面沙村負壬原府君性度寬仁容儀溫粹孝悌內篤信義外著睦宗族而周知  
 舊各盡其道約已沖儉自幼被服玩佩不欲侈靡於聲色貨利一切澹如也雅尚儒素動遵繩尺介然自持絕意趨競  
 至於酬接之際則渾厚子諒懇款諄至不事表襮坦無畦畛辭氣之間只是藹然和氣未嘗有疾言遽色蓋天賦然也  
 早躋清顯不離通班君臣之間親若父子然而不以恩寵自居常以滿盈為戒小心謹慎終始如一及除承宣也  
 憂形於色曰銀臺華銜於吾濫也宸慎樞機雖對家人絕不言禁中事教誨不肖輩嚴立程式矐矐提命不外乎忠  
 孝二字人之臧否曾未之雌黃而內守則確然不撓也立朝凡十載上而搢紳下而皂輿咸得其歡心莫不以遠到期

不幸早世未克大展嗚呼尚忍言哉毋論親疎遠近咸曰善人逝矣至于今嘖嘖不置亦可驗其感人者深矣配嘉林  
 趙氏統制使諱德中之孫直長諱學良之女也有三男一女男長不肖升權娶府使柳和源女次恒權娶任天白女季  
 亨權娶張元伋女女適吳致聖升權生一女幼不肖小子獲戾于天早歲孤露星霜愈邈廓然靡逮惟於府君之事行  
 奉而勿墜常目在之則幸免夫忝厥先耶 男升權泣血謹識

崇禎紀元後三癸亥 月 日立

歲壬午 贈 先府君兵曹參判 先妣受貞夫人 諱以不肖升權陞閣 恩例也 先妣以庚辰七月二十五日生乙未五月九日考終于正寢享壽七十六是歲七  
 月附于 先君墓左升權揔管生二男一女觀熙內乘娶水使尹喜用女生二男謙熙娶尹致感女適申命洪副正庶子一庶女四長適吳相岳權統制使生三男  
 寅熙府使娶趙宗錫女後娶府使俞碩柱女容熙娶府使尹喜豐女繼宗子命權後完熙娶兵使趙存中女生一男繼亨權後亨權水使生二女適宣傳官徐相稷白胤  
 洙庶女幼吳致聖主簿生一男一女明善副正女適李亨夏經歷外裔未冠拜並不錄嗚呼 先妣容儀端莊性度溫貞六德咸備九族稱善訓戒子孫務式內外不肖  
 兄弟早失所怙至老免大戾惟 慈諒是賴至行淑德殆不勝書舊碑之末無地可悉不能闡其萬一嗚呼痛哉 丁酉仲夏男升權泣血追識男亨權泣書

## 【前 面】

有明朝鮮國通政大夫承政

院右承旨李公諱晋秀之墓

貞夫人林川趙氏附左

## 【後 面】

嗚呼先府君之棄不肖居然鑽燧已八周而楸木已亭亭矣墓道尙闕顯刻歲月愈久則將至於浸泯小子惕然是懼營立小石而府君之深仁厚德豈不肖蒙駭可說到也粗記其所逮覩者寧約而不敢夸庶不失府君冲挹不自有之本意也耶府君諱晋秀字大卿早服家訓夙有令望 正宗丁未 除南行宣 傳官仍遷部將己酉以別軍職登第歷都摠府都事經歷訓練院正壬子陞兼司僕將內乘癸丑 除承政院承旨外而 除草溪定州昌城皆未赴盖自初仕受 知偏深常直 禁闈呢 侍近密殆無退食之暇故未嘗出外也丙辰夏患關格自直廬還第 上遣醫頒劑問訊不絕及訃聞 上震悼命輟玉食 若曰自茲以往府中無人 致慰參判府君 遣近侍治喪初終諸具皆內帑出 賜下甚夥不可殫數 特命歛用章服葬時 遣人護喪及其祥碁 特頒祭需又 下酒燭致酌于墓對近臣言輒嗟惜不已聞者爲之感涕嗚呼從古人臣之知遇何限而豈有如府君之曠絕千載也哉以 聖朝則哲之明前後 眷注若是隆摯則府君之所存概可推矣而自有揮喚人耳聵者矣德水之李以麗朝中郎將諱敦守爲鼻祖入我 朝有貞靖公諱邊有忠武公諱舜臣以文章武烈益顯寔府君十二世暨七世祖也曾祖諱弘規府使贈判書祖諱泰祥崇政統制使考諱漢豐嘉義刑曹參判訓練大將以忠謹廉白特爲 朝家所倚重妣貞夫人咸安趙氏承旨諱榮世之孫諱重弼之女也府君以 英廟壬午十一月二十六日生以 正廟丙辰六月四日卒享年三十五以是歲八月日葬于廣州府大旺面沙村負壬原府君性度寬仁容儀溫粹孝悌內篤信義外著睦宗族而周知舊各盡其道約已冲儉自幼被服玩佣不欲侈靡於聲色貨利一切澹如也雅尙儒素動遵繩尺介然自持絕意趨競至於酬接之際則渾厚子諒懇款諄至不事表襮坦無畦畛辭氣之間只是藹然和氣未嘗有疾言遽色盖天賦然也早躋清顯不離邇班君臣之間親若父子然而不以 恩寵自居常以滿盈爲戒小心謹慎終始如一及 除承宣也憂形於色曰銀臺華銜於吾濫也取慎樞機雖對家人絕不言 禁中事教誨不肖輩嚴立程式睠睠提命不外乎忠

## 【右側面】

孝二字人之臧否曾未之雌黃而內守則確然不撓也立朝凡十載上而搢紳下而皂輿咸得其歡心莫不以遠到期

【左側面】

不幸早世未克大展嗚呼尚忍言哉母論親踈遠近咸曰善人逝矣至于今嘖嘖不置亦可驗其感人者深矣配嘉林趙氏統制使諱德中之孫直長諱學良之女也有三男一女男長不肖升權娶府使柳和源女次恒權娶任天白女季亨權娶張元伋女女適吳致聖升權生一女幼不肖小子獲戾于天早歲孤露星霜愈邈廓然靡逮惟於府君之事行奉而勿墜常目在之則幸免夫忝厥先耶 男升權泣血謹識

崇禎紀元後三癸亥 月 日立

歲壬午 贈 先府君兵曹參判 先妣受貞夫人誥以不肖升權陞闈 恩例也 先妣以庚辰七月二十五日生乙未五月九日考終于正寢享年七十六是歲七

月祔于 先君墓左升權摠管生二男一女觀熙內乘娶水使尹喜用女生二男謙熙娶尹致咸女女適申命洪副正庶子一庶女四長適吳相岳恒權統制使生三男

寅熙府使娶趙宗鎬女後娶府使俞碩柱女容熙娶府使尹喜豐女繼宗子命權後完熙娶兵使趙存中女生一男繼亨權後亨權水使生二女適宣傳官徐相稷白胤

洙庶女幼吳致聖主簿生一男一女明善副正女適李亨夏經歷外裔未冠笄並不錄嗚呼 先妣容儀端莊性度溫貞六德咸備九族稱善訓戒子孫矜式內外不肖

兄弟早失所怙至老免大戾惟 慈誨是賴至行淑德殆不勝書舊碑之末無地可悉不能闡其萬一嗚呼痛哉 丁酉仲夏男升權泣血追識男亨權泣書

## 【譯文】

유명조선국통정대부승정원우승지이공휘진수지묘 정부인임천조씨부좌

아, 선부군(先府君)께서 불초자를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신 지 어언 8주년 이 되어 도래술<sup>1)</sup>이 벌써 우뚝 솟았다. 그런데 묘도(墓道)에는 아직도 비석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세월이 더욱 오래되면 장차 묘소를 잃게 될 것이다. 소자는 이것이 두려워서 자그만 비석을 세우게 되었는데, 부군의 깊고 두터운 인덕(仁德)에 대하여 어리석고 미련한 이 불초자가 어찌 빠짐없이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불초자가 직접 본 것만을 대충 기록할 생각인데, 차라리 간략하게 적을지언정 감히 과장하지 않는 것이, 부군께서 평소 애경하고 스스로 있는 체하지 않던 그 본의를 거의 잃지 않는 일이 될지 모른다.

부군은 이름은 진수(晉秀), 자는 대경(大卿)이신데, 일찍이 가정교육을 받고 어릴 적부터 명망이 높았다. 정종(正宗)·정미년(丁未年)에 남행(南行)·蔭職의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었다가 이내 부장(部長)으로 전직되었고, 기유년(己酉年)에는 별군직(別軍職)으로써 과거에 급제하여 도총부(都摠府)의 도사(都事)·경력(經歷)과 훈련원 정(訓練院正)을 역임하셨고, 임자년(壬子年)에는 겸사복장(兼司僕將)·내승(內乘)에 오르셨고, 계축년(癸丑年)에는 승정원 승지(承政院承旨)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외직으로는 초계(草溪)·정주(定州)·창성(昌城)의 수령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아마 처음으로 벼슬에 오를 때부터 임금으로부터 깊이 알아줌을 받아 항상 금달(禁圍)<sup>2)</sup>을 수직함으로써 가까이서 임금을 모시고 있어서 물러나 밥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 곳을 잠시도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외직으로 나가시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병자년(丙子年) 여름에 관격(關格)<sup>3)</sup>을 앓아 직소(直所)로부터 집으로 돌아 오시니, 상(上)께서는 어의(御醫)를 보내고 약제를 내리는가 하면, 병 문안에 오가는 심부름꾼이 끊기지 않았으며, 부고가 전해지자 상께서는 애도하고 수라를 올리는 일을 중지하도록 명하셨으며, 또한 「이후로는 부중(府中)에 그만 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시고, 참판부군(參判府君)을 위로하셨다. 그리고 근시(近侍)<sup>4)</sup>를 파견하여 치상을 하게 하고, 초상·장례 등에 쓰이는 모든 기구를

내탕고(內帑庫)<sup>5)</sup>에서 지출하는 등 하사한 물품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다 셀 수가 없다. 또 상께서는 특명으로 염습(殮襲)할 때에 장복(章服)을 사용하게 하였고, 장례 때에는 사람을 보내서 상사를 돕게 하였으며, 상기(祥基) 때에 가서는 특별히 제수(祭饗)를 내리고 또 술과 향촉(香燭)을 내려서 묘소에 제사를 지내게 하셨다. 그리고 근신(近臣)을 대하여 말씀할 때에는 문득 탄식하고 애석해 마지않았으므로 듣는 사람들은 감동이 되어 눈물을 떨어뜨렸다.

아, 예전부터 남의 신하된 입장에서 임금으로부터 알아줌을 받은 자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부군처럼 만고에 없는 대우를 받는 자가 어디 있었는가? 성조(聖朝)의 명철한 임금이 전후에 걸쳐 쏟아주시는 은총이 이처럼 융숭했던 것을 가지고 부군의 간직한 것을 대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거니와, 이것은 스스로 사람의 이복에 비추어진 것들이다.

덕수 이씨(德水李氏)는 고려조에서 중랑장(中郎將)을 지내고 이름이 돈수(敦守)란 분을 비조(鼻祖)로 삼는다. 아조(我朝)에 들어와서는 문정공(文靖公)으로서 이름이 변(邊)이란 분이 계시고, 충무공(忠武公)으로서 이름이 순신(舜臣)이란 분이 계시서 문장(文章)과 무열(武烈)을 가지고 더욱 나타내셨으니, 이 분들은 바로 부군에게 12세조와 7세조가 되신다.

중조부는 이름이 홍규(弘規)인데, 부사(府使)를 지내고 판서(判書)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는 이름이 태상(泰祥)인데, 승정대부(承政大夫)로서 통제사(統制使)를 지내셨고, 아버지는 이름이 한풍(漢豊)인데, 가의대부(嘉義大夫)로서 형조 참판(刑曹參判)과 훈련대장(訓練大將)을 지내셨는데, 충근(忠謹)과 엄백(廉白)이 뛰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에서 의지하는 인물이 되었다. 어머니 정부인(貞夫人) 함안 조씨(咸安趙氏)는 승지(承旨)를 지내고 이름이 영세(榮世)란 분의 손녀이자 이름이 중필(重弼)이란 분의 따님이시다.

1) 도래술·무덤가에 축 둘러선 소나무.

2) 금달(禁圍)·궁중(宮中)의 함문(閤門)을 가리킴.

3) 관격(關格)·음식물이 급하게 채하여, 가슴이 딱 막히어 답답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며, 대소변도 잘 못 보고 정신을 잃는 위급한 병.

4) 근시(近侍)·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승지(承旨)·사관(史官) 등을 가리킨다.  
5) 내탕고(內帑庫)·임금의 사사 재물을 넣어 두는 곳.

부군께서는 영묘(英廟·英祖) 임오년(壬午年) 11월 26일에 탄생하고, 정묘(正廟·正祖) 병진년(丙辰年) 6월 4일에 작고하셨으니, 향연 35세였는데, 이해 8월 일일에 광주부(廣州府) 대왕면(大旺面) 사촌(沙村) 임좌(壬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군께서는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셨으며, 용모가 온화하고 순결하셨으며, 안으로는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고 밖으로는 신용과 의리가 나타나셨다. 종족에 대해서는 친목을 도모하고 친구에 대해서는 우의를 다지는 등 각각 그에 대한 도리를 다하셨다. 자신에게 드는 비용은 절약하셨다. 어릴 적부터 의복과 패물 같은 것에 사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음악이나 여색, 그리고 재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일체 담담한 생각을 가지셨다. 평소 유자(儒者)의 조행(朝行)을 숭상하여 질퍽하면 법도를 지키셨고, 굳게 자신을 단속하여 서로 경쟁하는 일에는 뜻을 끊으셨다.

남을 접견하여 수작하는 자리에서는 호후한 인정과 자상한 성의를 보이셨으며, 형식적인 걸치레는 일삼지 않으셨고, 평탄한 길을 택하고 모난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실 적에는 화기에 애하셨고, 한번도 말씀을 빠르게 하시거나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짓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아마 태고나신 천성이 그랬으리라.

일찍이 청환(淸宦)·현직(顯職)에 올라 임금의 결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래서 군신의 사이는 마치 친하기가 부자지간과 같았지만, 임금의 은총을 담보로 하지 않고 항상 영광이 차서 넘치는 것을 가지고 경계를 하셨으니, 조심조심 근신하심이 종시 한결 같았다.

승지(承旨)에 임명되었을 적에는 걱정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내시면서 『은대(銀臺)의 화려한 직함은 나에게 넘치는 것이다.』고 하시고, 가장 입을 조심하셨다. 비록 집안사람을 대한 자리라 하더라도 절대로 궁중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불초자들을 교육시킴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과정을 세우시고, 정성껏 가르쳐주는 내용은 「충효(忠孝)」 두 글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셨다. 남의 선악(善惡)에 대해서는 전연 왈가왈부하지 않으시고, 속으로 지키는 의지는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으셨다. 조정에서 벼슬을 하시는 10년

동안에는 위로 벼슬아치들로부터 아래로 하인들에 이르기까지의 환심을 샀거니와, 이들은 모두 우리 부군께 대하여 원대한 성취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부군께서는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 포부를 크게 펼치지 못하셨으니, 아, 차마 말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친한 사람, 소원한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들 『착한 사람이 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떠들썩하게 칭찬하고 있으니, 또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점이 깊었던 것을 시험할 수 있겠다.

배위는 가림 조씨(嘉林趙氏)이신데, 통제사(統制使)를 지내고 이름이 덕중(德中)이란 분의 손녀이자 직장(直長)을 지내고 이름이 학량(學良)이란 분의 따님이시다. 3남 2녀를 두셨으니, 맏아들은 불초자 승권(升權)인데, 부사(府使) 유화원(柳和源)의 딸에게 장가들고, 둘째 아들은 항권(恒權)인데, 임천백(任天白)의 딸에게 장가들고, 막내는 형권(亨權)인데, 장원급(張元偁)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딸은 오치성(吳致誠)에게 시집갔다. 승권은 1녀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불초 소자는 하늘에 죄를 얻어 일찍이 고자(孤子)가 되었는데, 세월이 멀리 흘러감에 따라 부군을 만날 길이 막연해져버렸다. 그러니 오직 부군의 업적에 대하여 삼가 받들어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눈여겨본다면 이것이 선대를 욕되게 하는 죄를 행어 면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들 승권(升權)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기록함.

승정(崇禎) 기원 후 세 번째 돌아온 계해년(癸亥年) 월 일일에 비석을 세움.

임오년(壬午年)에 선부군(先府君)에게는 병조 참판(兵曹參判)이 추증되고, 선비(先妣)에게는 정부인(貞夫人)이 추증되었으니, 이것은 불초자 승권(升權)이 곤수(閻帥)에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증(例贈)이었다.

선비께서는 경인년(庚寅年) 7월 25일에 탄생하고, 을미년(乙未年) 5월 9

일에 정침(正寢)에서 고종명(考終命)·작고(을)하시니, 향년 76세였는데, 이 해 7월에 선부군의 무덤 왼쪽에 부장하였다.

승권(升權)은 총관(總管)을 지내고 2남 1녀를 낳았는데, 관희(觀熙)는 내승(內乘)을 하고 있고 수사(水使)를 지낸 윤희용(尹喜用)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겸희(謙熙)는 윤치함(尹致咸)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딸은 부정(副正)으로 있는 신명홍(申命洪)에게 시집갔다. 그리고 서자(庶子) 하나, 서녀(庶女) 넷을 두었는데, 만서녀는 오상악(吳相岳)에게 시집갔다.

항권(恒權)은 통제사(統制使)를 지내고 3남을 낳았는데, 인희(寅熙)는 부사(府使)를 지내고, 먼저는 조종호(趙宗鎬)의 딸에게 장가들고, 뒤에는 부사(府使)를 지낸 유석주(兪碩柱)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용희(容熙)는 부사를 지낸 윤희풍(尹喜豊)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종자(宗子) 명권(命權)의 후계자가 되었다. 완희(完熙)는 병사(兵使)를 지낸 조존중(趙存中)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았는데, 형권(亨權)의 후계자가 되었다.

형권(亨權)은 수사(水使)를 지내고 2녀를 낳았는데, 선전관(宣傳官)인 서상직(徐相稷)과 백윤수(白胤洙)에게 각각 시집갔다. 서녀는 아직 어리다.

오치성(吳致聖)은 주부(主簿)를 지내고 1남 1녀를 낳았는데, 명선(明善)은 부정(副正)을 지내고, 딸은 경력(經歷)인 이형하(李亨夏)에게 시집갔다. 외손은 아직 어리므로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아, 선비께서는 용의(容儀)가 단장(端莊)하고 성도(性度)가 온정(溫貞)하며 육덕(六德)을 모두 구비하고 계시니, 일가친척들이 착하다고 칭찬하였다. 또한 선비께서는 자손을 훈계하고, 안팎에 모범을 보이셨다. 불초자 형제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늑막까지 큰 허물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선비의 교훈에 힘입었음을 뿐이다. 그 지극한 행실과 현숙한 덕에 대해서는 이루 다 적을 수가 없는데, 옛 비석의 끝에 다 적을 곳이 없으므로 만분지일도 천명(闡明)할 수 없으니, 아, 애통하도다.

정유유년(丁酉年) 중하(仲夏)에

아들 승권은 피난물을 흘리며 추후로 기록하고,

아들 형권은 울면서 글을 씀.

6) 육덕(六德) · 남의 아내로서 가져야 할 여섯 가지 덕목. 곧 유순(柔順) · 청결(清潔) · 불투(不妬) · 검약(儉約) · 공근(恭謹) · 근로(勤勞).

# 윤 돈(尹墩) 묘표

所在地 .. 壽井區 金土洞 山 44

建立年代 .. 朝鮮 哲宗 12年(1861)

撰 .. 尹 定 鉉

書 .. 權 是 憲

規 模 .. 總高 .. 254 cm, 碑高 .. 147 cm, 幅 .. 62 cm, 厚 .. 33 cm

材 質 .. 蓋石 .. 花崗岩, 碑身 .. 大理石, 臺石 .. 花崗岩

윤 돈 묘표는 관교에서 신촌동으로 가는 23번 국도에서 금토동으로 좌회전 하여 금현동으로 가다가 남원윤씨(南原尹氏) 묘역 입구로 올라가 메기 양식장을 지나면 그 앞산 윤극신(尹克新) 묘소 아래에 있다.

1861년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작지붕으로 단조롭고, 대석은 문양이 없이 장방형 판석 위에 세워져 있다.

비문은 종8대손 윤정현(尹定鉉)이 지었고, 앞면의 글씨는 해서(楷書)로 자경(字徑)은 10·0 cm이고 음기(陰記)의 자경은 2·7 cm로 권시헌(權是憲)이 행서(行書)로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정경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와 쌍분.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문인석·망주석이 있다.

윤 돈(1551~1612)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자는 여승(汝昇)。호는 죽창(竹窓)。극신(克新)의 아들이다.

이 황(李滉)·기대승(奇大升)의 문하생으로 1579년(선조 12)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585년(선조 1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청요직을 역임하고, 1591년(선조 24) 이조정랑으로서 건저(建儲)문제로 유배된 정 칠(鄭澈)에 연루되었던 백유함(白惟咸)·유공신(柳拱辰) 등을 학관에 천

거하였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추고를 받고 삭직(削職)되었다. 이듬해 복관되었고, 이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하였다.

1593년 명나라 장수 낙총병(駱總兵)·오유격(吳遊擊)이 나오자 부교리로서 그들의 접반관(接伴官)으로 활약하였고, 이듬해 사인을 거쳐 응교로서 강관이 되었다. 이어 직제학·동부승지·도승지 등을 역임하고, 1598년(선조 31) 병조참의를 거쳐 대사간에 이르러 척신(戚臣)의 직을 파할 것과 중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뒤 형조참의·예조참판을 거쳐 강원도관찰사로 나아갔으나 그 임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았다.

1600년(선조 33) 다시 도승지·예조참판을 거쳐 부제학이 되었을 때, 성 혼(成渾)이 왕을 호종하지 않았고 간신들과 한 당이 되었다고 탄핵하여 그의 관작을 추삭(追削)하게 하였다.

1602년 대사간이 되었으나 체직을 원하여 이조참판으로 옮겼다. 이후 대사성·도승지·병조참판을 거쳐, 1604년 공조판서에 올라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뒤 충청도 관찰사·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고, 1608년(선조 41) 선조가 죽자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를 거쳐,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장마로 산릉이 무너지자 그 책임으로 파직되었다.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윤 돈 묘소 전경



문인석



묘 표

有明朝鮮國資憲大夫行禮曹  
 判書兼知經筵義禁春秋館  
 弘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  
 摠管贈謚孝貞尹公諱暉墓  
 貞敬夫人全州李氏祔左

九代祖贊成公墓在廣州月川二子繼而再為長諱暉叔理 贈都承旨公其季也葬公二百五十年八代孫象鉉始刻石而表於墓以定鉉為承旨公高俾記其陰公諱暉字女并號竹窓尹氏系出坡平始祖高麗大師諱莘達至諱威封南原伯子孫移貫為南原府人生諱克敏修文殿大學士 諡文平生諱敦侍中生諱英贊禮曹典書生諱守均贈門下評理生諱璫工曹典書高麗公守節不屈 諡忠簡生諱臨入 本朝觀察使選廉吏生諱之得繕工奉事生諱崇軍資判官 贈左承旨生諱時英議政府舍人忤沈貞出補光州牧以平生諱澄 贈領議政生諱克新應教以公貴 贈左贊成娶固城南氏教官堅孫女 贈貞敬夫人即公考妣也萬曆己卯并中生員進士試乙酉登明經科薦入藝文館為檢閱遷弘文館正字參外極選也聲望日重進途大闢歷修撰校理應教典翰直提學在王堂雖夜必公服讀書聲徹 寢殿 上引入講論報錫爵賜書時材彥滿廷禮遇之隆無喻公者連拜司諫院獻伯司諫侍講院兩善議政府檢詳舍人吏曹佐郎正即戊戌順天之役以接伴從事監運軍餉劉都督責之日丞屢歲兵燹儲胥罄竭籌計策應未有遺之既竣陞通政拜大司諫吏兵曹參議副提學己亥除江原道觀察使奉母夫人于春川在舍府使慕堂洪公亦奉慈闈二夫人生朝同月設筵稱觴送送為歡復與縉紳侍高年偏親者十數人修慶壽契合宴上壽上命賜樂助需百司撤畫直赴席人謂之誠孝格天辛丑擢都承旨吏兵曹參判司憲府大司憲甲辰進階為工曹判書乙巳觀察忠清道板輿就養怡愉洞屬食飲必先嘗而進之存恤族黨無間親疎戊申六月 穆陵因封以敦匠勞陞從一品行禮曹判書既復土大霖雨 陵上者損罷官降資己酉冬丁南夫人憂朝夕饋奠哀毀成疾一松沈相國恐其不暇哀至發於詩辭壬子二月纔服闋而三月一日考終于京第享年六十二 贈諡孝貞配貞夫人完山李氏義興守壽麟之女 太宗王子熙寧君禔之玄孫端仁有禮雖貴顯猶執紡績壽七十九歲卒於崇禎辛未祔葬公墓左生二男五女男衡俊為四山監役昏朝廢 母議起獻議曰職在四山只知松栢茁長棄官歸鄉 仁廟改玉即除察訪不就衡哲佐郎 贈執義女孀監司洪得一參判吳靖參議尹善道黃滄李希顏衡俊系子撥二女李英震吳玄衡哲子楷察訪 贈左承旨女金以鏞曾孫男七人女六人玄孫男十六人女七人公生有異質風度秀朗早志儒術

從遊於奇高峯趙月川請業於退溪李文純公慎思而力踐之尤專門禮學公私節文之有疑者多於公取正精於鑑識每謂其當如此其當如彼後果然無少差爽歷數華臚益厲清素家徒四壁而晏如也當 宣廟盛際公繼父兄而通籍仲父貞憲公從弟文烈公並列 朝端一室五公清名溢世後承衰替文獻遺亾懿行偉蹟多湮沒而不傳惟公知舊如李漢陰李月沙鄭守夢吳晚翠諸賢於公沒後以公遠學達識廉而有制愷悌而長厚令聞在家孝子為國蓋臣推謂而痛惜之斯可以徵信於百世也夫

從八代孫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判義禁府事 經筵日講官原任 奎章閣提學致仕奉朝 賀定鉉撰 後學權是憲書

崇禎後四辛酉 月 日立

## 【前 面】

有明朝鮮國資憲大夫行禮曹  
判書兼知 經筵義禁春秋館  
弘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  
摠管 贈諡孝貞尹公諱墩墓  
貞敬夫人全州李氏附左

## 【後 面】

九代祖贊成公墓在廣州月川二子繼而葬焉長諱曄校理 贈都承旨公其季也葬公二百五十年八代孫象鉉始  
刻石而表於墓以定鉉爲承旨公裔俾記其陰公諱墩字汝昇號竹窓尹氏系出坡平始祖高麗太師諱莘達至諱威  
封南原伯子孫移貫爲南原府人生諱克敏修文殿大學士 諡文平生諱敦侍中生諱英贊禮曹典書生諱守均  
贈門下評理生諱璜工曹典書高麗亡守節不屈 諡忠簡生諱臨入 本朝觀察使選廉吏生諱之得繕工奉事生  
諱嘗軍資判官 贈左承旨生諱時英議政府舍人忤沈貞出補光州牧以卒生諱澄 贈領議政生諱克新應教以  
公貴 贈左贊成娶固城南氏教官堅孫女 贈貞敬夫人卽公考妣也萬曆己卯并中生員進士試乙酉登明經科  
薦入藝文館爲檢閱遷弘文館正字參外極選也聲望日重進途大關歷修撰校理應教典翰直提學在玉堂雖夜必  
公服讀書聲徹 寢殿 上引入講論輒錫爵賜書時材彥滿廷禮遇之隆無踰公者連拜司諫院獻納司諫侍講院  
弼善議政府檢詳舍人吏曹佐郎正郎戊戌順天之役以接伴從事監運軍餉劉都督責之日亟屢歲兵燹儲胥罄竭  
籌計策應未有匱乏旣竣陞通政拜大司諫吏兵曹參議副提學己亥除江原道觀察使奉母夫人于春川庄舍府使  
慕堂洪公亦奉慈闈二夫人生朝同月設筵稱觴迭送爲歡復與縉紳侍高年偏親者十數人修慶壽契合宴上壽  
上命賜樂助需百司撤晝直赴席人謂之誠孝格天辛丑擢都承旨吏兵曹參判司憲府大司憲甲辰進階爲工曹判  
書乙巳觀察忠清道板輿就養怡愉洞屬食飲必先嘗而進之存恤族黨無間親踈戊申六月 穆陵因封以敦匠勞  
陞從一品行禮曹判書旣復土大霖雨 陵上有損罷官降資己酉冬丁南夫人憂朝夕饋尊哀毀成疾一松沈相國  
恐其不腹哀至發於詩辭壬子二月纔服闋而三月一日考終于京第享年六十二 贈諡孝貞配貞夫人完山李氏  
義興守壽麟之女 太宗王子熙寧君柁之玄孫端仁有禮雖貴顯猶執紡績壽七十九歲卒於崇禎辛未附葬公墓

左生二男五女男衡俊爲四山監役昏朝廢 母議起獻議曰職在四山只知松栢茁長棄官歸鄉 仁廟改玉卽除  
 察訪不就衡哲佐郎 贈執義女婿監司洪得一參判吳靖參議尹善道黃滄李希顏衡俊系子穰二女李英震吳竑  
 衡哲子楮察訪 贈左承旨女金以鏞曾孫男七人女六人玄孫男十六人女七人公生有異質風度秀朗早志儒術

【右側面】

從遊於奇高峯趙月川請業於退溪李文純公慎思而力踐之尤專門禮學公私節文之有疑者多於公取正精於鑑  
 識每謂某當如此某當如彼後果然無少差爽歷敷華膺益厲清素家徒四壁而晏如也當 宣廟盛際公繼父兄而  
 通籍仲父貞憲公從弟文烈公並列 朝端一室五公清名溢世後承衰替文獻遺亡懿行偉蹟多湮沒而不傳惟公  
 知舊如李漢陰李月沙鄭守夢吳晚翠諸賢於公沒後以公邃學達識廉而有制愷悌而長厚令儀令聞在家孝子爲  
 國蓋臣推詡而痛惜之斯可以徵信於百世也夫

從八代孫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判義禁府

事 經筵日講官原任 奎章閣提學致仕奉朝 賀 定鉉撰

後學權是憲書

崇禎後四辛酉 月 日立

【譯 文】

유명조선국자헌대부행예조판서경지 경연의금춘추관 홍문관대제학오위도총부 도총관 증시효정응공휘돈묘 정경부인전주이씨부좌

9대조이신 찬성공(贊成公)의 묘소가 광주(廣州) 월천(月川)에 계시는데, 두 아들이 이어서 그 곳에 장사지내졌다. 맏아들은 이름이 엽(曄)으로 교리(校理)를 지내고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으며, 공은 그 막내이었다. 공을 장사지낸 지 2백 50년 만에 8대손인 상현(象鉉)이 비로소 돌에 새겨서 묘소를 표시하고 나서 정현(定鉉)이 승지공(承旨公)의 후손이라 하여 그 비석 뒤에 새길 글을 짓게 한다.

공은 이름은 돈(墩), 자는 여승(汝昇), 호는 죽창(竹窓)이시다. 윤씨(尹氏)는 본관이 과평(坡平)이고, 시조는 고려조에서 태사(太師)를 지내고 이름이 신달(莘達)이란 분이시다. 이름이 위(威)란 분에 이르러서 남원백(南原伯)에 봉해지니, 차손들이 본관을 남원으로 옮겼다. 남원백은 이름이 극민(克敏)이란 분을 낳으시니, 수문전 대학사(修文殿大學士)를 지내고 시호는 문평(文平)이시며, 문평공은 이름이 돈(敦)이란 분을 낳으시니, 시중(侍中)을 지냈고, 시중공은 이름이 영찬(英贊)이란 분을 낳으시니, 예조 전서(禮曹典書)를 지냈고, 전서공은 이름이 수균(守均)이란 분을 낳으시니,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추증되었고, 평리공은 이름이 황(璜)이란 분을 낳으시니, 공조 전서(工曹典書)를 지내다가 고려가 망하니 절개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시호는 충간(忠簡)이었다.

그리고 충간공은 이름이 임(臨)이란 분을 낳으시니, 본조(本朝)·朝鮮朝)에 들어와서 관찰사(觀察使)를 지내고 청백리(清白吏)에 뽑히셨고, 관찰사공은 이름이 지득(之得)이란 분을 낳으시니, 선공봉사(繕工奉事)를 지내셨고, 봉사공은 이름이 은(胤)이란 분을 낳으시니, 군자판관(軍資判官)을 지내고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고, 승지공은 이름이 시영(時英)이란 분을 낳으시니,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계시던 중 심정(沈貞)의 비위를 거슬러서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전임되었다가 그 곳에서 작고하셨다.

사인공은 이름이 정(澄)이란 분을 낳으시니,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영의정

공은 이름이 극신(克新)이란 분을 낳으시니, 응교(應敎)를 지내고 뒤에 공이 귀하게 된 덕분으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고성 남씨(固城南氏)에게 장가들었으니, 그는 교관(敎官)을 지낸 견손(堅孫)의 딸로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는데, 바로 공의 부모이시다.

만력(萬曆) 기묘년(己卯年)에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에 모두 합격하였고, 을유년(乙酉年)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한 다음, 추천으로 예문관(藝文館)에 들어가 검열(檢閱)이 되었다가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로 옮기셨으니, 참외(參外)①)에서는 최상으로 선발되신 것이다. 명성이 날로 높아져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크게 열렸기 때문에 수찬(修撰)·교리(校理)·응교(應敎)·전한(典翰)·직제학(直提學) 등을 역임하셨다.

옥당(玉堂)에 계시실 적에는 밤에도 반드시 공복(公服)을 입고 책을 읽으셨는데, 책 읽는 소리가 침전(寢殿)②)에 들렸으므로 임금님은 공을 불러들여 강론을 하고서 술도 하사하고 책도 하사하였다. 이 때에 인재들이 조정에 그들먹하였는데, 융숭한 예우를 받는 일은 공을 능가한 자가 없었다.

공은 연달아서 사간원(司諫院)의 헌납(獻納), 사간(司諫)과 시강원(侍講院)의 필선(弼善)과 의정부(議政府)의 검상(檢詳), 사인(舍人), 이조(吏曹)의 좌랑(佐郎), 정랑(正郎)에 임명되었다.

무술년(戊戌年)·1598) 순천(順天)에서 왜병(倭兵)과 싸울 때에 공은 접반종사(接伴從事)로서 군량(軍糧) 운반을 감독하셨는데, 유도독(劉都督)의 독촉은 날로 심한데다 여러 해 동안 병란(兵亂)을 겪은 터라 저장 물품이 다 떨어졌건만, 공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군사를 원조하였기 때문에 군수물자가 부족되는 일이 없었다.

전쟁이 이미 끝난 뒤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대사간(大司諫)과 이조(吏曹)·병조(兵曹)의 참의(參議)와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었다. 기해년(己亥年)에는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제수 받고 모부인(母夫人)을 춘천(春川)의 장사(庄舍)에 모셨고, 춘천부사(春川府使)인 모당(慕堂) 홍공(洪公·履祥)도 자당(慈堂)을 모시고 있었는데, 두 부인은 생일이 같은 달이었기

1) 참외(參外) · 7품 이하 품계의 일컬음.  
2) 침전(寢殿) · 임금님의 침실이 있는 궁전.

때문에 서로 잔치를 베풀어서 어머니들을 즐겁게 해드렸다.

공은 다시 나이 높은 편모를 모시고 있는 벼슬아치들 10여 명과 함께 경수계(慶壽契)를 조직해서 합동으로 잔치를 베풀어 헌수(獻壽)를 하였는데, 임금 은 풍악을 하사하고 잔치에 드는 비용을 도와주었으며, 여러 관아에서는 낮 근무를 중단하고 잔치자리로 달려갔으니, 사람들은 「효성이 하늘을 감격시켰다.」고 하였다.

신축년(辛丑年)에는 도승지(都承旨), 이조와 병조의 참판(參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뽑혔고, 갑진년(甲辰年)에는 진급을 하여 공조 참판(工曹參判)이 되었으며, 을사년(乙巳年)에는 청충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나가셨는데, 이 때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부드러운 얼굴과 조용한 목소리로써 어머니를 즐겁게 봉양하되, 음식을 대접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고 나서 올리셨다. 그리고 족속(族屬)을 위문하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친함과 소원함에 간격을 두지 않으셨다.

무신년(戊申年) · 1608) 6월에는 선조 임금이 승하하자, 공은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란 직책을 맡으셨는데, 장례의식과 산릉봉토(山陵封土) 등에 관한 일을 잘 주선한 공으로 종 1품에 올라 행(行)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지내셨다. 그런데 이미 산릉의 봉토가 끝났을 때 큰 장마비가 내려서 산능 위가 손상되었게 때문에 관직이 과면되고 자급이 강등되었다.

기유년(己酉年) 겨울에는 남씨 부인의 상을 당하셨는데, 조석으로 전(奠)을 올릴 때에 너무나 서러워하시다가 그만 병을 얻으셨다. 일송(一松) 심상국(沈相國) · 흘壽(은행)이 공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까 싶어서 당부하는 말을 시사(詩辭)에다 발표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임자년(壬子年) 2월에 겨우 복을 벗고, 3월 1일 서울 집에서 고종명을 하셨으니, 향년 62세였고, 추증된 시호는 효정(孝貞)이었다.

배위(配位)이신 정부인(貞夫人) 완산 이씨(完山李氏)는 의흥수(義興守)인 수린(壽麟)의 따님이시자, 태종 임금의 왕자인 희령군(熙寧君) 이타(李佗)의 현손이신데, 단아하고 인자하면서 예법을 지키셨고, 비록 귀현(貴顯)하신 몸이었지만, 오히려 몸소 길쌈을 하셨다. 향년 79세로서 숭정(崇禎) 신미년(辛

未年)에 작고하시니, 공의 무덤 왼쪽에 부장하였다.

2남 5녀를 낳으셨으니, 맏아들 형준(衡俊)은 사산감역(四山監役)이 되셨는데, 혼조(昏朝) · 광해(光海)에서 폐모론(廢母論)<sup>3)</sup>이 일어났을 때 의논을 드리기를 「직책이 사산을 살피는 일에 있으므로 단지 소나무와 잣나무의 자라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라고 하고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인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곧 공에게 찰방(察訪)을 제수하였는데, 나가지 않으셨다. 둘째 아들 형철(衡哲)은 좌랑(佐郎)을 지내고 집의(執義)에 추증되었으며, 사위는 감사(監司)를 지낸 홍득일(洪得一) · 참판(參判)을 지낸 오정(吳靖) · 참의(參議)를 지낸 윤선도(尹善道) · 황음(黃滄) · 이희안(李希顔)이다.

형준의 후계자는 별(撥)이고, 두 여서(女婿)는 이영진(李英震) · 오굉(吳玆)이다. 형철의 아들은 지(楫)인데 찰방을 지내고 집의(執義)에 추증되었으며, 여서는 김이용(金以鏞)이다. 증손은 남자가 7명, 여자가 6명이고, 현손은 남자가 16명, 여자가 7명이었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이한 자질을 가진데다가 풍도(風度)가 수려하고 명량하셨다. 일찍이 유술(儒術)에 뜻을 두어 기고봉(奇高峯) · 대(大)과 조월천(趙月川) · 穆(을종유(從遊)하고, 퇴계(退溪) 이문순공(李文純公) · 濩(에게수)에 접했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셨다. 더욱이 예학(禮學)을 전문으로 하셨기 때문에 공사간에 절문(節文)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는 대부분 공에게 질청하였다.

또한 식감(識鑑)에 있어서도 정확하셨다. 때면 「무엇은 이러이러하고 무엇이든 저러저러하다.」고 하시면 뒤에 과연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화려한 관직을 두루 거쳤으나 더욱 청렴한 마음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집은 사면의 벽만 덩그랴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태연한 모습이셨다.

선조대왕의 왕성한 시대를 당하여 공은 부형의 뒤를 이어서 조정을 출입하셨고, 중부(仲父) 정헌공(貞憲公)과 종제(從弟) 문열공(文烈公)이 아울러 조정에 배설되었으니, 한 집안 다섯 분의 맑은 이름이 세상에 흘러 넘쳤다. 그런데 후손이 쇠약하고 문헌이 유실되어 아름다운 행실과 위대한 업적이 많이

3) 폐모론(廢母論) · 선조대왕의 계비(繼妃)인 곧 인목왕후(仁穆王后)를 폐하자는 의론.

없어져 전하지 않는다.

오직 공의 친구로서 이함음(李漢陰)·덕馨(德馨)·이월사(李月沙)·廷龜(廷龜)·정수몽(鄭守夢)·曄(曄)·오만취(吳晩翠)·億齡(億齡)와 같은 제공이 공이 작고하신 뒤에 공의 길은 학문과 통달한 식견으로 청렴하면서 절제함이 있고 용모와 기상이 화락(和樂)하고 단아(端雅)하면서 온후(溫厚)하여 그 아름다운 거동과 착한 명망이 집에 있어서는 효자요, 나라를 위해서는 충신이 된 것을 가지고 추장하고 통석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백세에 징신(徵信)할 만한 것이다

종(從) 8대손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行) 관돈녕부사(判敦寧府事) 겸(兼) 이조 판서(吏曹判書) 관의금부사(判義禁府事) 경연일강관(經筵日講官) 원임(原任)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 치사(致仕) 봉조하(奉朝賀) 정현(定鉉)은 글을 짓고,

후학(後學) 권시헌(權是憲)은 글을 씀.

승정(崇禎) 후 네번째 돌아온 신유년(辛酉年) 월 일에 비석을 세움.

## 윤극신(尹克新) 묘표

所在地..壽井區金土洞山44

建立年代..朝鮮後期

撰..尹行恁

書..尹行恁

規 模..總高..178cm、碑高..126cm、幅..58cm、厚..23cm  
 材 質..蓋石..花崗岩、碑身..花崗岩、臺石..花崗岩

윤극신 묘표는 판교에서 신촌동으로 가는 23번 국도에서 금토동으로 좌회전하여 금현동으로 가다가 남원윤씨(南原尹氏) 묘역 입구로 올라가 메기양식장을 지나면 그 앞산 맨 위 북동쪽에 있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작 지붕으로 단조롭고, 대석 4면에 안상문(眼象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8대손 윤행임(尹行恁)이 표(表)한 것으로 앞면의 글씨 자경(字徑)은 7.0cm이고, 음기 자경은 3.0cm의 해서(楷書)로 윤행임이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정경부인 고성이씨(固城李氏)와 쌍분.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문인석·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비신이 없는 구(舊) 묘표 대석이 남아 있다.

윤극신(1527~1587)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남원(南原)。자는 백수(伯修)。아버지는 증영의정 징(徵)이고 어머니는 변종범(卞宗範)의 딸이다. 자신(自新)의 재종제(再從弟)이다.

1576년(선조 9)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였다. 이후에 춘추관·이조좌랑·임천군수(林川郡守)·홍문관 교리 등을 역임하며, 백성들을 구휼하는 일로 칭송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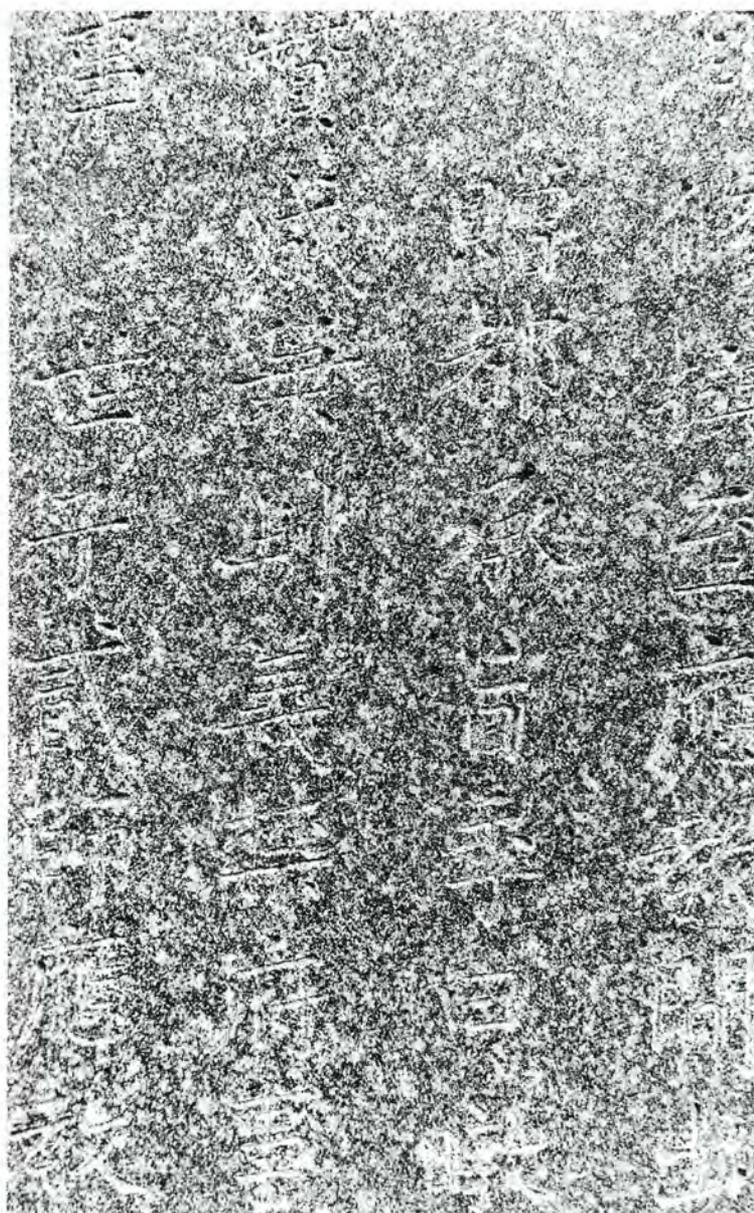
아버지가 피화(被禍)되는 것을 보고는 두문불출(杜門不出)로 세상을 마쳤다. 사후에 이조참판 겸 홍문관제학 동지경연춘추관 성균관사,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윤극신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일부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

有明朝鮮

贈左贊成行弘

文館應教尹公克新之墓

貞敬夫人固城南氏祔左

公諱克新字伯修系出南原伯尹公諱威屢傳至觀察使諱臨以清白名寔公之五  
 世祖也祖諱時英司諫 贈禮曹參判考諱澄 贈領議政妣草溪卞氏宗範之女  
 也公少舉進士廕補寢郎萬曆丙子中別試文科隸槐院薦入史局爲檢閱陞正言  
 持平吏曹佐郎被瀛選自修撰至應教間出爲林川郡守娶固城南氏教官堅孫之  
 女生二男長曰曄校理 贈都承旨季曰暎工曹判書孝貞公以孝貞公之貴 贈  
 公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  
 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 世子貳師應教衡彥縣監趙纘應教尹繼善校理子若  
 女察訪衡俊佐郎衡哲觀察使洪得一參判吳靖參議尹善道黃滄李希顏判書子  
 若女曾玄以下不能盡記墓在廣州月川庚坐之原夫人祔焉公以嘉靖丁亥十一  
 月五日生卒於萬曆丁亥八月十九日壽厯六十一立朝行蹟必有爲後子孫師法  
 者而文獻無徵可勝惜哉

八代孫左承旨行恁表

【前 面】

有明朝鮮 贈左贊成行弘

文館應教尹公克新之墓

貞敬夫人固城南氏祔左

【後 面】

公諱克新字伯修系出南原伯尹公諱威屢傳至觀察使諱臨以清白名寔公之五世祖也祖諱時英司諫 贈禮曹參判考諱澄 贈領議政妣草溪卞氏宗範之女也公少舉進士蔭補寢郎萬曆丙子中別試文科隸槐院薦入史局爲檢閱陞正言持平吏曹佐郎被瀛選自修撰至應教閒出爲林川郡守娶固城南氏教官堅孫之女生二男長曰曄校理 贈都承旨季曰暉工曹判書孝貞公以孝貞公之貴 贈公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 世子貳師應教衡彥縣監趙纘應教尹繼善校理子若女察訪衡俊佐郎衡哲觀察使洪得一參判吳靖參議尹善道黃滄李希顏判書子若女曾玄以下不能盡記墓在廣州月川庚坐之原夫人祔焉公以嘉靖丁亥十一月五日生卒於萬曆丁亥八月十九日壽厯六十一立朝行蹟必有爲後子孫師法者而文獻無徵可勝惜哉

八代孫左承旨行恁表

## 【譯 文】

유명조선 증좌찬성행홍문관응교윤공극신지묘 정경부인고성남씨부좌

공은 이름은 극신(克新), 자는 백수(伯修)이시고, 계대는 남원백(南原伯) 윤공(尹公) 이름이 위(威)이신 분에게 댈다. 여러 번 전하여 관찰사(觀察使)를 지내고 이름이 임(臨)이란 분에 이르러서는 청백(淸白)으로 이름을 내셨으니, 이 분은 바로 공의 5세조이다. 조부는 이름이 시영(時英)인데, 사간(司諫)을 지내고 예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는 이름이 징(徵)인데,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어머니는 초계 변씨(草溪卞氏)로 종범(宗範)의 따님이셨다.

공은 소시에 진사시에 합격하시고, 문음(門蔭)으로 참봉에 임명되었으며, 만력(萬曆) 병자년(丙子年)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괴원(槐院)·承文院(承文院)에 예속되었다가 추천을 받아 사국(史局)·藝文館(藝文館)에 들어가서 검열(檢閱)이 되었고, 이어서 정언(正言), 지평(持平), 이조 좌랑(吏曹佐郎)으로 승진되었으며, 홍문관(弘文館)의 선발을 입어 수찬(修撰)으로부터 응교(應教)에 이르렀고, 증간에 임천군수(林川郡守)로 나가기도 하셨다.

고성 남씨(固城南氏) 곧 교관(敎官)을 지낸 견손(堅孫)의 따남에게 장가들어 2남을 낳으셨으니, 맏아들은 엽(曄)으로 교리(校理)를 지내고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으며, 막내는 돈(墩)으로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지내고 시호는 효정(孝貞)이셨다. 효정공이 이렇게 귀하게 된 덕분으로 공에게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겸(兼) 관의금부사(判義禁府事) 경연 춘추관사(經筵春秋館事)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세자이사(世子貳師)가 추증되었다.

응교(應教)를 지낸 형언(衡彦)과 현감(縣監)을 지낸 조찬(趙贊)과 응교를 지낸 윤계선(尹繼善)은 교리공(校理公)의 아들과 사위이고, 찰방(察訪)을 지낸 형운(衡俊)과 좌랑(佐郎)을 지낸 형철(衡哲)과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홍득일(洪得一)과 참의(參議)를 지낸 윤선도(尹善道)와 황흡(黃滄)과 이희안(李希顔)은 판서공(判書公)의 아들과 사위이다. 증손과 현손 이하는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묘소는 광주(廣州) 월천(月川) 경좌(庚坐)의 언덕에 있는데, 부인이 부장되었다. 공은 가정(嘉靖) 정해년(丁亥年) 11월 5일에 태어나시고, 만력(萬曆) 정해년(丁亥年) 8월 19일에 작고하시니, 향년은 겨우 61세이셨다. 조정에서 벼슬하실 때의 행적 중에는 반드시 자손의 사법(師法)이 될 만한 것이 있을 터인데, 증빙할 문헌이 없으니, 애석할 따름이다.

8대손 좌승지(左承旨) 행임(行恁)은 묘표를 지음.

# 원경하(元景夏) 묘표

所在地.. 壽井區 沙松洞 山 16-1  
 建立年代.. 朝鮮 後期  
 撰 .. 元 景 夏  
 追 記 .. 元 仁 孫  
 前 面 書 .. 蘇 軾 集 字  
 陰 記 書 .. 褚 遂 良 集 字  
 追 書 .. 元 繼 孫  
 規 模 .. 總 高 .. 2 1 2 cm, 碑 高 .. 1 1 2 cm, 幅 .. 53 cm, 厚 .. 26 cm  
 材 質 .. 蓋 石 .. 花 崗 岩, 碑 身 .. 大 理 石, 臺 石 .. 花 崗 岩

원경하 묘표는 백현 2교에서 수자원공사 비포장 길로 가다가 사송동 여성 회관을 지나 보호수로 지정된 회화나무가 있는 우측 산 남쪽에 있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각지붕으로 단조롭고 대석은 문양이 없이 장방형 판석 위에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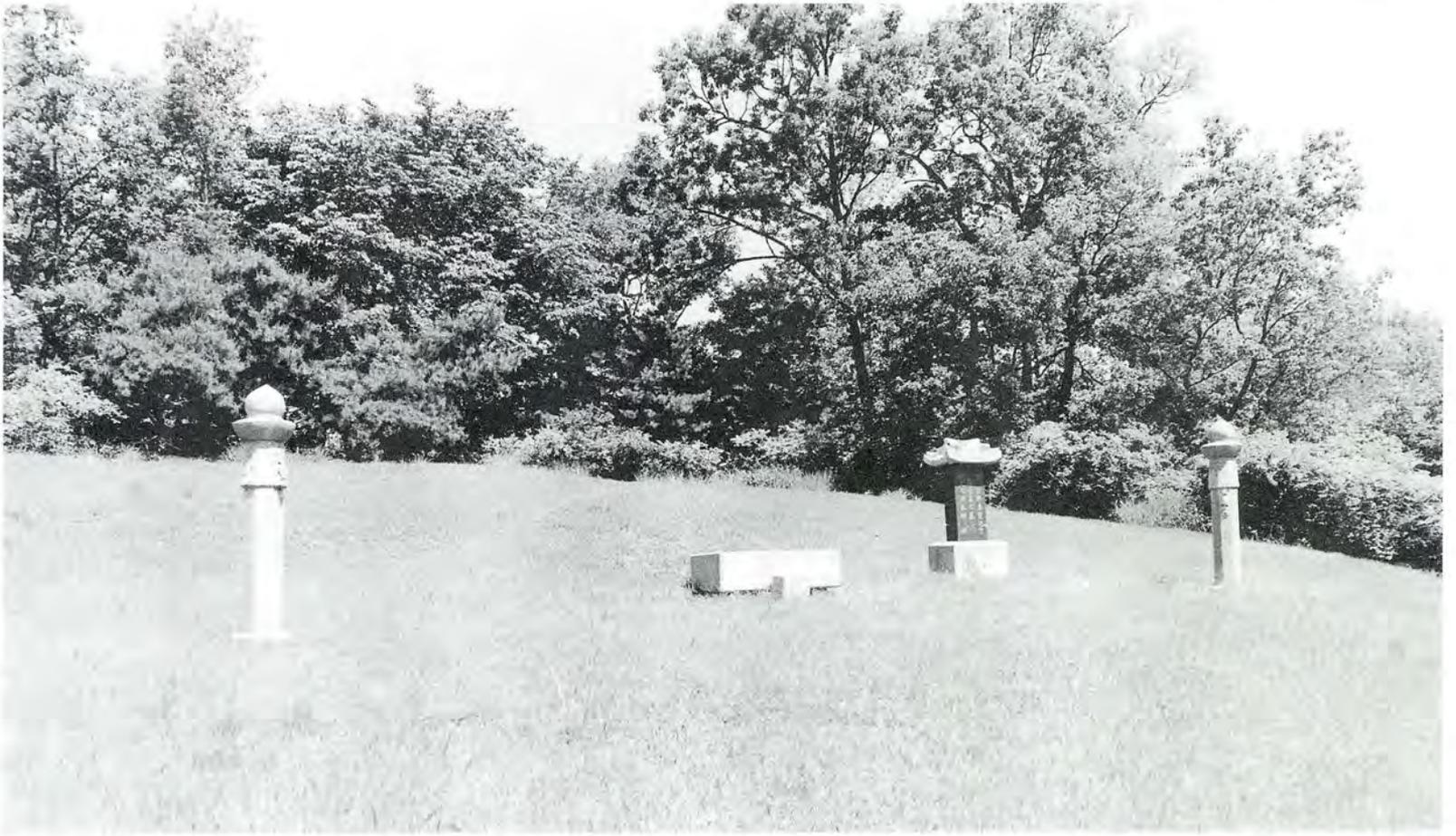
비문은 자표(自表)·元景夏)한 것이며, 추기(追記)는 아들 원인손(元仁孫)이 하였고, 앞면은 소 식(蘇軾)의 글자를 집자(集字)하였는데 자경(字徑)은 11·5cm와 1·0cm이며, 뒷면은 저수량(褚遂良)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였으며, 자경은 3·0cm이고, 좌우측면의 자경은 2·5cm의 해서로 아들 원계손(元繼孫)이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정경부인 평산신씨(平山申氏)와 합장. 상석·향로석·훈유석·계석·망주석이 있다.

원경하(1698~1761)는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원주(原州)。자는 화백(華伯)。호는 창하(蒼霞), 비와(肥窩)。효종의 부마 흥평위(興平尉) 몽린(蒙麟)의 손자이며, 목사 명구(命龜)의 아들이다.

(夢麟)의 손자이며, 목사 명구(命龜)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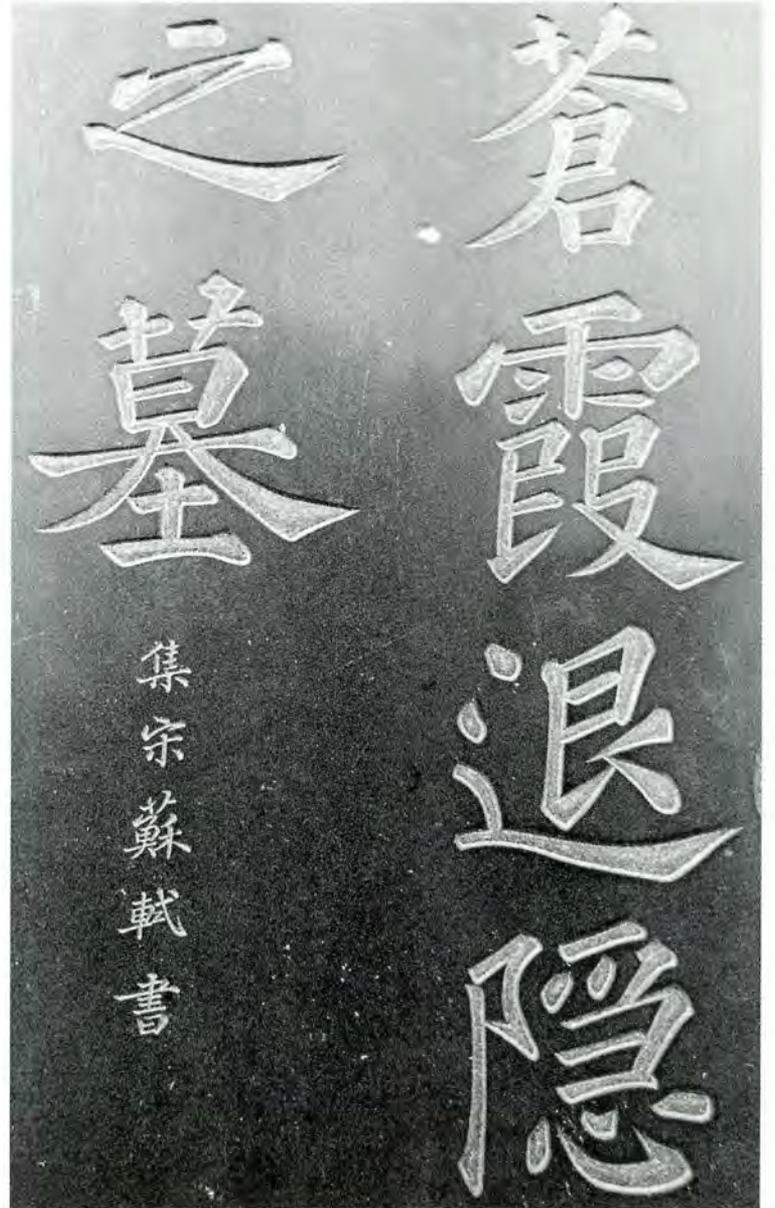
1721년(경종 1)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736년(영조 12)에 세자의위사 부수(世子翊衛司副率)로 정시문과에 장원하였다. 1739년(영조 15) 영조의 뜻을 받들어 완소(緩少)계열과 함께 정언(正言)으로 봉당 이 나라를 그르치는 화근이 된다는 것과 탕평책을 진언하였다. 아울러 신임사화로 화를 입게 된 조태억(趙泰億)·조태구(趙泰考) 등을 신설(伸雪)하는데 앞장 섰다. 1743년(영조 19) 예문관제학·봉상시제조를 거쳐 청나라 고종 이 북순(北巡)할 때 와언(訛言)이 많이 일어나자 임금이 대신과 비국당상(備局堂上)들을 입시하게 하여 자강책을 강론하게 할 때 폐사군(廢四郡)의 복설(復設)을 진언하였다. 이듬해에는 이조참판으로 판서인 이기진(李箕鎭)과의 마찰로 이기진은 홍주목사로, 그는 청풍부사로 외보되었다가 곧 내직으로 복귀되었다. 1745년 부제학으로서 호남진전개량사(湖南陳田改量使)가 되었다. 그는 임정(任珽)·정우량(鄭羽良)·오광운(吳光運)·윤유(尹游) 등과 조정에서 노론·소론만의 탕평인 소탕평(小蕩平)을 반대하고, 동서·남북을 다 포함한 탕평을 창도하자 조정에서는 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옛 동료로 사감이 있었던 이천보(李天輔)와 절교를 선언하니 이로부터 두 사람은 구적(仇敵)같은 사이가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이로 인하여 원봉(元朋)·이봉(李朋)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노론들은 원경하가 탕평으로 자임하지만, 송인명(宋寅明)·조현명(趙顯命) 등에게 아부하여 경반(卿班)에까지 올랐고, 남모르게 남인과 소부들과 결탁하여 자기 세력을 도왔다고 하였다. 그밖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탕평노력과 당인들을 고루 대하는 인품을 칭송하였다. 특히, 영조의 신임이 두터웠고 그의 탕평책에 많은 귀를 기울였다. 판돈녕 부사로 치사하여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그가 죽자 왕이 친히 제문을 지었으며, 해당 관조(官曹)에 명을 내려 치제하게 하고, 관재(棺材)를 관급하였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창하집(蒼霞集)」 10권이 전하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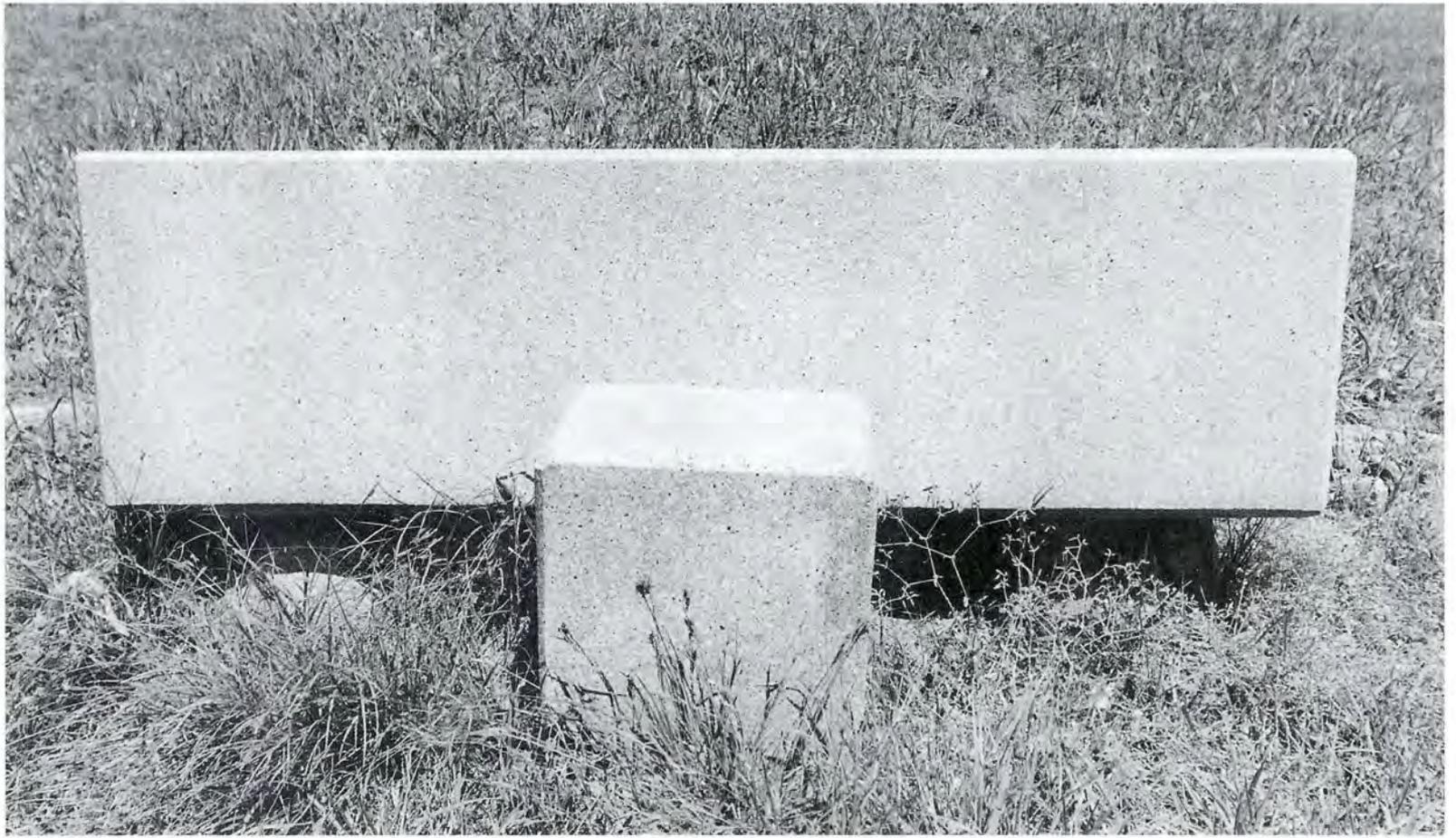
원경하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일부



향로석



망주석



망주석[다람쥐] 좌



망주석[다람쥐] 우

有明 朝鮮 蒼霞 退隱  
 元公 諱景夏 之墓  
 貞敬 夫人 申氏 祔 左

集宗 蘇軾書

居士原州人少而有盛名沈闕困挫踰立九歲始魁科仕則驟翦甫一癸曳鄭  
 崇履謠諛欲殺遂賦青蠅耕桑近郊未忍遠遁君子悲其心也六十引歐陽例  
 致仕得竒疾飾巾閉戶與世相絕性亢氣豪嗜文章喜談論厯險經危斂身靜  
 拙力行忠怒臨事未嘗決曰不知吾之賢邪況人乎手足啓而始為了人也每  
 讀孟子矢函人章擊節三復聞子弟說殺字終日皺眉不樂然而贇且溢世多  
 忌媚者舞勺課小學長者問汝言志誦范希文天下憂樂暨為宰相無可稱功  
 業年未至而離讒乞骸惜也平生慕三四古人漢則丙丞相唐則李西平范忠  
 宣心事出處有執鞭之願焉歸田慨然曰寅協和衷臯陶告禹之謨和協為世  
 傑人臯陶欺我乎獨立無朋是非毀譽未嘗動心曰不激不隨心奚動焉釋褐  
 並行箴遇中孚之遯作詩見志自號肥窩致仕稱蒼霞居士 聖上謂臣我東  
 葉向高更號蒼霞有以也嗚呼百世之後居士將謂何如人子雲堯夫其不過  
 與可悲也已居士自表集唐褚遂良書

先大夫降于戊寅八月十七日終于辛巳五月二十七日葬于廣州松峴里  
 亥坐原享年六十四辛丑司馬拜叅奉都事副率或就或不就丙辰魁庭試  
 內而司書文學正言大司諫大司憲校理修撰副提學承旨都承旨湖南江  
 都御史天官冬官春曹秋曹叅判判書騎省佐正郎叅知判書京兆左右尹  
 政府左右叅贊敦府判事樞府同知知事兼銜金吾 經筵春秋成均賓客  
 世孫師兩館提學提學提舉太常槐院籌司繕工平市司譯內資尚方厨

26×112

院雲觀經理惠局濟用太僕芸閣典牲而藥院最久外而陽城縣清風府湖  
 南伯江都相而關北伯未赴通政至資憲 特擢正憲至輔國藥院勞也配  
 平山申氏領中樞諱思詰之女三男二女男仁孫行副提學義孫修撰繼孫  
 進士過房尸本生曾祖考 贈判書公祀女適縣監李商舟李埃不肖男仁  
 孫泣血追識繼孫謹書

26×112

【前 面】

有明 朝鮮蒼霞退隱

元公諱景夏之墓 集宋蘇軾書

貞敬夫人申氏附 左

【後 面】

居士原州人少而有盛名沈闕困挫踰立九歲始魁科仕則驟翥甫一癸曳鄭崇履謠詠欲殺遂賦青蠅耕桑近郊未忍遠遁君子悲其心也六十引歐陽例致仕得奇疾飾巾閉戶與世相絕性亢氣豪嗜文章喜談論歷險經危斂身靜拙力行忠恕臨事未嘗決曰不知吾之賢邪況人乎手足啓而始爲了人也每讀孟子矢函人章擊節三復聞子弟說殺字終日皺眉不樂然而慤且隘世多忌媚者舞勺課小學長者問汝言志誦范希文天下憂樂暨爲宰相無可稱功業年未至而離讒乞骸惜也平生慕三四古人漢則丙丞相唐則李西平范忠宣心事出處有執鞭之願焉歸田慨然曰寅協和衷臯陶告禹之謨和協爲世僂人臯陶欺我乎獨立無朋是非毀譽未嘗動心曰不激不隨心奚動焉釋褐筮行藏遇中孚之遯作詩見志自號肥窩致仕稱蒼霞居士 聖上謂臣我東葉向高更號蒼霞有以也嗚呼百世之後居士將謂何如人子雲堯夫其不遇與可悲也已居士自表集唐褚遂良書

【右側面】

先大夫降于戊寅八月十七日終于辛巳五月二十七日葬于廣州松峴里亥坐原享年六十四辛丑司馬拜參奉都事副率或就或不就丙辰魁庭試內而司書文學正言大司諫大司憲校理修撰副提學承旨都承旨湖南江都御史天官冬官春曹秋曹參判判書騎省佐正郎參知判書京兆左右尹政府左右參贊敦府判事樞府同知知事兼銜金吾 經筵春秋成均賓客

世孫師兩館提學摠管提學太常槐院籌司繕工平市司譯內資尙方廚

【左側面】

院雲觀經理惠局濟用太僕藝閣典牲而藥院最久外而陽城縣清風府湖  
南伯江都相而關北伯未赴通政至資憲 持擢正憲至輔國藥院勞也配  
平山申氏領中樞諱思喆之女三男二女男仁孫行副提學義孫修撰繼孫  
進士過房尸本生曾祖考 贈判書公祀女適縣監李商舟李埏不肖男仁  
孫泣血追識繼孫謹書

【譯文】

유명 조선창하되 원공회경하지묘 정경부인신씨부좌, 송나라 소식 글씨를 집자함.

거사(居士)는 원주(原州) 사람으로 소시 적부터 명성을 떨쳤으나 세상에서 소외 당하고 좌절 당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다가 39세에 비로소 과거에 우등으로 급제한 다음, 벼슬에 진출한 지 겨우 10년 만에 정송(鄭崇)처럼 신을 끌고 1) 대궐을 드나들 수 있는 높은 직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소인배들이 참소하여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결국 청송장(靑蠅章)2)을 노래하고서 근교로 가서 농사짓고 누에치곤 하였다. 그러나 차마 멀리 가서 은둔하지는 못하였으니, 군자들은 이 심정을 슬퍼하였다.

60세에 구양수(歐陽修)의 예(例)를 이끌어 치사(致仕)하였고, 이내 원인 모를 병을 얻었기 때문에 복건(幅巾)을 쓴 채로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 성품은 강직하고 기질은 호탕하며, 문장을 즐기고 담론을 좋아하였다. 온갖 험난함을 겪은 나머지 항상 몸을 신중하게 갖고 충서(忠恕)를 힘써서 행하였으며, 일에서는 한 번도 선뜻 결정짓지 못하면서 『나에 대한 어질고 간사함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남에 대한 어질고 간사함을 어떻게 알겠는가? 허물없이 죽은 뒤에야 비로소 인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매번 스맹자(孟子)의 시함인장(矢函人章)3)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면서 세 번 반복하였다. 자제들이 「살(殺)」자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온종일 눈살을 찌푸리고 심기가 편치 않았다. 그런데 고지식한 데다가 또 편협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꺼리고 질시하는 자가 많았다.

13세 때에 스소학(小學)을 읽었는데, 이 때에 어떤 어른이 『너의 뜻을 말해 보라.』고 하기에, 범희문(范希文)4)이 말한 「걱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천하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에 앞서서 걱정을 하고, 즐거운 일에 있어서는 천하의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누린 뒤에 즐거움을 누린다.」5)란 구절을 외었다.

재상(宰相)이 되어서는 일컬음을 만한 공업(功業)을 세우지 못하였고, 나이가 아직 높지 않았는데 참소를 피하려고 사직을 청하였으니, 애석하기 그지없었

다. 평생 동안 서너 명의 옛사람을 사모하였으니, 한(漢) 나라에서는 병승상(丙丞相)6), 당(唐) 나라에서는 이서평(李西平)7), 송(宋) 나라에서는 범충선(范忠宣)9)인데, 마음에 생각하는 일이나 출처(出處)10)하는 일은 모두 이들을 따를 생각을 가졌다.

전원(田園)으로 돌아와서 분개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군신간에 화합하라.』는 것은 고요(臯陶)가 우(禹) 임금에게 고하던 말이었는데, 「군신간에 화합하라.」고 주장하던 내가 세상에 좌인이 되었으니, 고요는 나를 속였던 것인가?」 봉당 없이 홀로 우뚝 서서 시비(是非)와 웨예(毀譽)를 가지고 한번도 마음을 동요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격동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어찌 동요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처음으로 벼슬하러 나가면서 진퇴(進退)에 대해 점을 쳤더니, 중부지돈(中學之遯)을 만났다. 그래서 시를 지어서 뜻을 보이고 스스로 호를 비와(肥窩)라 하였으며, 치사(致仕)하고는 창하거사(蒼霞居士)라 칭하였다. 성상께서 신(臣)더러 우리 동방의 섭향고(葉向高)11)라고 하였으니,

- 1) 정송(鄭崇)처럼 신을 끌고... 대궐을 드나들 수 있는 높은 벼슬에 이르렀다는 뜻. 정송은 한(漢) 나라 사람으로 자는 자유(子游)인데, 애제(哀帝) 때에 상서부야(尙書僕射)에 발탁되었는데, 매번 임금을 비러 갈 적에는 가죽신을 끌었다. 그는 결국 직간(直諫)으로 소외를 당하였다.
- 2) 청송장(靑蠅章)...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 내용은 『앵앵거리는 파리 울타리에 앉았다. 화려한 군자는 참소하는 말을 믿지 말지이다.』... 라는 등으로 되어있다.
- 3) 시함인장(矢函人章)... 공손추장구상(公孫丘章句上)에 있는데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못하겠는가마는, 화살 만드는 사람은 행여 사람을 상하지 못할까 싶어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행여 사람을 상할까 싶어한다. 그러므로 기술의 선택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범희문(范希文)... 송(宋) 나라의 범중엄(范仲淹). 범중엄의 자가 희문.
- 5) 걱정하는 일에... 누린다... 이 말은 범희문이 지은 스악양루기(岳陽樓記)에 보인다.
- 6) 병승상(丙丞相)... 병길(丙吉)을 가리킴. 병길은 위상(魏相)을 대신하여 승상(丞相)이 되고 박양후(博陽侯)에 봉해졌으며, 사람됨됨이 남의 착한 점은 드러내고 남의 악한 점은 숨겼으므로 세상에 현상(賢相)이라 일컫는다.
- 7) 이서평(李西平)... 이성(李晟)을 가리킴. 이성은 덕종(德宗) 때 주자(朱泚)의 난을 평정하여 경사(京師)를 수복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공으로 벼슬이 사도(司徒)에 이르러, 서평왕(西平王)에 봉해졌다.
- 8) 송(宋) 나라에서는... 원문에 「宋則」이란 두 글자가 빠진 것 같다.
- 9) 범충선(范忠宣)... 송(宋) 나라의 범순인(范純仁)을 가리킨 듯함.
- 10) 출처(出處)... 세상에 나서는 일과 집에 있는 일.

다시 창하라고 고친 데에는 그를 만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아, 백세 이후에 이 거사를 장차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자운(子雲)·揚雄과 오부(堯夫)·邵雍)는 그 때를 만나지 못했던 분이었던가? 슬피할 따름이다.

거사는 스스로 묘표를 지었다.  
지수량(褚遂良)의 글씨를 집자(集字)함.

선대인께서는 무인년(戊寅年) 8월 17일에 탄강하시고 신사년(辛巳年) 5월 27일에 작고하시니, 광주(廣州) 송현리(松峴里) 해좌(亥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는데, 향년 64세였다.

신축년(辛丑年)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신 후 참봉(參奉)·도사(都事)·부술(副率) 등에 임명되었는데, 혹은 나아가기도 하고 혹은 나아가지 않기도 하셨다. 병진년(丙辰年)에 정시(庭試)에 우등으로 급제하신 후 내직으로는 사서(司書), 문학(文學), 정언(正言), 대사간(大司諫), 교리(校理), 수찬(修撰), 부제학(副提學), 승지(承旨), 도승지(都承旨), 그리고 호남(湖南)과 강도(江都)의 어사(御史), 이조(吏曹)·공조(工曹)·예조(禮曹)·형조(刑曹)의 참판(參判)과 판서(判書), 병조(兵曹)의 좌랑(佐郎)과 정랑(正郎)과 참지(參知)와 판서(判書), 한성부(漢城府)의 좌·우윤(左右尹), 의정부(議政府)의 좌·우참찬(左右參贊), 돈녕부(敦寧府)의 판사(判事), 중추부(中樞府)의 동지(同知)와 지사(知事)였고, 겸직으로는 의금부(義禁府)·경연(經筵)·춘추(春秋)·성균(成均)·빈객(賓客)·세손사(世孫師)·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의 대제학(大提學), 그리고 총관(總管), 제거(提學), 또는 태상(太常)·괴원(槐院)·주사(壽司)·선공(繕工)·평시(平市)·사역(司譯)·내자(內資)·상방(尙方)·주원(廚院)·운관(雲觀)·경리(經理)·혜국(惠局)·제용(濟用)·태복(太僕)·예각(藝閣)·전생(典牲)이었는데, 약원(樂院)을 가장 오래 맡으셨다.

외직으로는 양성현(陽城縣)·청풍부(淸風府)의 수령, 호남백(湖南伯)과 강도상(江都相)이었고, 관북백(關北伯)은 부임하지 않으셨다. 품계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고, 특별히 정헌대부(正憲大夫)로

발탁되어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이르셨으니, 약원에서 일을 잘 보살핀 공로 때문이었다.

배위는 평산 신씨(平山申氏)로 영중추(領中樞)를 지내고 이름이 사철(思喆)이란 분의 따님이시다.

3남 2녀를 두셨으니, 맏아들 인손(仁孫)은 행부제학(行副提學)이고, 둘째 아들 의손(義孫)은 수찬(修撰)이고, 셋째 아들 계손(繼孫)은 진사(進士)인데, 양자로 가서 본생(本生) 증조고(曾祖考) 증판서공(贈判書公)의 제사를 주관한다. 딸은 현감(縣監) 이상주(李商舟)와 이담(李瑛)에게 각각 시집갔다.

불초자 인손은 피눈물을 흘리며 추가로 글을 짓고,  
계손은 삼가 글을 씀.

11) 섭향고(葉向高)·명(明)나라 사람으로 자는 진경(進卿), 호는 대산(臺山)이고, 벼슬은 이부 상서(吏部尙書)에 이르고 동각대학사(東閣大學士)를 겸하였다. 당시 조정의 일이 해이하였는데, 섭향고는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매사에 다투어서 바로잡은 바가 많았다고 하다.

## 원의손(元義孫) 묘표

所在地…壽井區 沙松洞 山 1512

建立年代…朝鮮 後期

撰…黃景源

前面書…蘇軾集字

陰記書…顏真卿集字

規模…總高…269cm, 碑高…176cm, 幅…67cm, 厚…35cm

材質…蓋石…花崗岩, 碑身…大理石, 臺石…花崗岩

원의손 묘표는 사송동 여성회관을 지나 보호수로 지정된 회화나무 우측의 원경하(元景夏) 묘소 우측 길로 산을 넘으면 서쪽에 있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각 지붕으로 단조롭고 대석에는 문양이 없이 장방형 판석 위에 세워져 있다.

비문은 황경원(黃景源)이 지었고 앞면은 소식(蘇軾)의 글자를 집자(集字)하였는데 자경(字徑)은 10·0cm이고, 음기(陰記)는 안진경(顏真卿)의 글씨를 집자하였으며 자경은 2·0cm의 해서이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상석·향로석·계체석·망주석이 있다.

원의손(1725~1781)은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자방(子方)。황주목사로 영의정에 추증된 명구(明龜)의 손자, 아버지는 예조판서이며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가 충문(忠文)인 경하(景夏)이고, 어머니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신사철(申思黈)의 딸이다.

1757년(영조 33)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의금부도사 그리고, 빙고별검(氷庫別檢)으로 전직하였으며,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좌랑, 사간원 정언 및 경기도사(京畿都事)가 되었다. 얼마후 홍문관 교리, 수원부 어사에서

홍문관 교리 겸 한학교수와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을 맡았다. 그리고 부수찬, 사간원 헌납(獻納), 사헌부 집의(執義), 충청도관찰사, 관상감 측후관, 홍문관 응교(應敎)에 전직되었고, 1765년(영조 41)에는 청연군주(淸衍郡主)의 가례도청을 담당하므로써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발탁,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가 사간원 대사간 및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호조참의와 예조참의를 거쳐 안변부사(安邊府使)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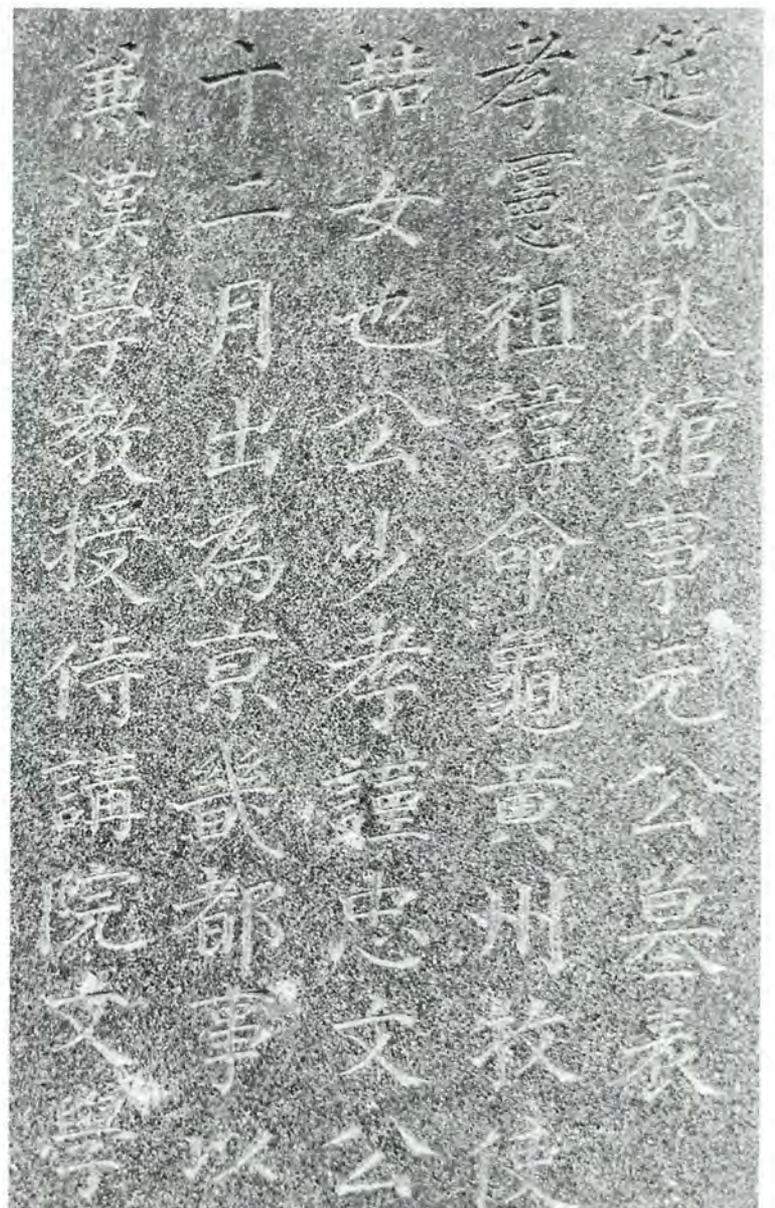
또 3년 뒤에는 병조참의를 거쳐 충청도 관찰사로 재임 중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된 적도 있으나 곧바로 승정원 좌승지로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고, 한성부 우윤(右尹)이 되었으며, 공조·호조 참판(參判)을 거쳐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때 일금님으로부터 표피(豹皮)를 하사받기도 하였고,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승정원 도승지, 사헌부 대사간, 동지경연사와 동지춘추관사를 겸임하였다. 얼마 후에 다시 한성부 좌윤으로서 병조참판으로 전직되고, 동지의금부사와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겸하였으며, 비변사와 승문원 제조로 차출되었으나 지나간 호남에 있을 때 부정한 일이 있다는 무고(誣告)에 따라 동래부로 유배되어 적소(謫所)에서 작고하였다.



원의손 묘소 전경



묘 표



묘표 비문 일부

有明 朝鮮司憲府大司憲  
元公諱義孫之墓

有明 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同知 經筵春秋館事元公墓表

公諱義孫字子方原城人也曾祖諱夢麟興平尉諡曰孝憲祖諱命龜黃州牧使 贈領議政父諱景夏兼禮曹判書致仕奉朝賀 贈領議政諡曰忠文母平山申氏貞敬夫人領中樞府事諱思詰女也公少孝謹忠文公最愛之 英廟三十三年舉司馬入義禁府為都事遷冰庫別檢明年九月登文科由兵曹佐郎進司諫院正言十二月出為京畿都事以親老上疏乞養授金城令未幾 特拜弘文館校理由校理出為御史水原府及庫試才十月復入弘文館為校理兼漢學教授侍講院文學明年又以副修撰入司諫院為獻納丁父憂服闋入司憲府為執義改司諫院司諫陞司僕寺正出為試官忠清道差觀象監測候官已而 特拜弘文館應教明年兼侍講院輔德東學教授十二月又由校理兼侍講院弼善四十一年以清行郡主嘉禮都廳擢通政拜承政院同副承旨改司諫院大司諫兼知製 教由戶禮二曹參議出為安邊府使又三年以兵曹參知參議出為忠清道觀察使坐事罷歸以承政院左承旨陞嘉善入漢城府為右尹由工戶二曹參判出為全羅道觀察使歲大飢五十三州生民幾盡死而公竭力賑救元元 英廟教曰湖南方伯予得人矣乃 賜豹皮以獎之明年入為承政院都承旨遷司憲府大司憲兼同知 經筵春秋館事已而又以漢城府左尹遷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差備邊司承文院提調丁母憂哀毀踰禮士大夫皆稱其孝今 上即位持平李梓誣公前在湖南時私用賑穀下義禁府考問之公對曰今夕亡父忌日也如得殞命則至願今可遂矣顏色不動判義禁府事蔡濟恭具狀以 聞 上閱之減死投畀東萊府以辛丑十月初八日卒于謫所享年五十六明年正月十九日從葬于忠文公墓次十二月 特命復官公為人孝友仁厚與人言和氣藹然事 上忠其為承旨能盡誠 乘輿出宮大臣皇皇莫敢言獨公攀 輿苦諫之泣下數行 英廟感動遂還宮及其後幸毓祥宮不御湯藥公以承旨坐罷職而猶不逗留滯 禁中凡三日泣請進藥 英廟下教曰三日款款忠心惟見元某若干人其誠可嘉特授漢城府右尹蓋異數也元配德水李氏掌隸院司評浚之女繼配青松沈氏通德郎倬之女也有男一人曰在行側室有男二人女一人男曰在恭早死餘皆幼余嘗聞公在東萊能謹慎杜門不出賓客或有請見者公辭曰某罪人也何敢與當世君子相見乎終不見賓客一人豈非愷悌君子哉

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兼判義禁府事吏曹判書知 經筵事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 奎章閣檢校提學 世孫右賓客黃景源撰 前面集宋蘓軾書 陰記集唐顏真卿書

## 【前 面】

有明 朝鮮司憲府大司憲

元公諱義孫之墓

## 【後 面】

有明 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同知 經筵春秋館事元公墓表

公諱義孫字子方原城人也曾祖諱夢鱗興平尉諡曰孝憲祖諱命龜黃州牧使 贈領議政父諱景夏兼禮曹判書致仕奉朝賀 贈領議政諡曰忠文母平山申氏貞敬夫人領中樞府事諱思喆女也公少孝謹忠文公最慈愛之 英廟三十三年舉司馬入義禁府爲都事遷水庫別檢明年九月登文科由兵曹佐郎進司諫院正言十二月出爲京畿都事以親老上疏乞養授金城令未幾 特拜弘文館校理由校理出爲御史水原府反庫試才十月復入弘文館爲校理兼漢學教授侍講院文學明年又以副修撰入司諫院爲獻納丁父憂服闋入司憲府爲執義改司諫院司諫陞司僕寺正出爲試官忠清道差觀象監測候官已而 特拜弘文館應教明年兼侍講院輔德東學教授十二月又由校理兼侍講院弼善四十一年以清衍郡主嘉禮都廳擢通政拜承政院同副承旨改司諫院大司諫兼知製 教由戶禮二曹參議出爲安邊府使又三年以兵曹參知參議出爲忠清道觀察使坐事罷歸以承政院左承旨陞嘉善入漢城府爲右尹由工戶二曹參判出爲全羅道觀察使歲大飢五十三州生民幾盡死而公竭力賑救元元 英廟教曰湖南方伯予得人矣乃 賜豹皮以獎之明年入爲承政院都承旨遷司憲府大司諫兼同知 經筵春秋館事已而又以漢城府左尹遷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差備邊司承文院提調丁母憂哀毀踰禮士大夫皆稱其孝今 上卽位持平李杵誣公前在湖南時私用賑穀下義禁府考問之公對曰今夕亡父忌日也如得殞命則至願今可遂矣顏色不動判義禁府事蔡濟恭具狀以 聞 上閱之減死投畀東萊府以辛丑十月初八日卒于謫所享年五十六明年正月十九日從葬于忠文公墓次十二月 特命復官公爲人孝友仁厚與人言和氣藹然事 上忠其爲承旨能盡誠 乘輿出宮大臣皇皇莫敢言獨公攀 輿苦諫之泣下數行 英廟感動遂還宮及其後幸毓祥宮不御湯藥公以承旨坐罷職而猶不退留滯 禁中凡三日泣請進藥 英廟下教曰三日款款忠心惟見元某若干人其誠可嘉特授漢城府右尹蓋異數也元配德水李氏掌隸院司評浚之女繼配青松沈氏通德郎倬之女也有男一人曰在行側室有男二人女一人男曰在恭早死餘皆幼余嘗聞公在東萊能謹慎杜門不出賓客或有請見者公辭曰某罪人也何敢與當世君子相見乎終不見賓客一人豈非愷悌君子哉

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兼判義禁府事吏曹判書知 經筵事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 奎章閣檢校提學 世孫右賓客黃景源撰

前面集宋蘇軾書 陰記集唐顏真卿書

【譯 文】

유명 조선사헌부대사헌원공회의손지묘

유명 조선국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겸 경연 춘추관사 원공(元公) 묘표

공은 이름은 의손(義孫), 자는 자방(子方), 본관은 원성(元城)이다. 증조부는 이름이 몽린(夢麟)으로 흥평위(興平尉)에 시호는 효헌(孝憲)이고, 조부는 이름이 명구(命龜)인데 황주목사(黃州牧使)를 지내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는 이름이 경하(景夏)인데 겸예조판서(兼禮曹判書)를 지내고 치사(致仕)한 뒤에는 봉조하(奉朝賀)에 임명되었으며, 사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충문(忠文)이며, 어머니는 평산 신씨(平山申氏)로서 정경부인(貞敬夫人)이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지내고 이름이 사철(思赫)이란분의 딸이었다.

공이 소시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매사에 근신하니, 충문공은 공을 가장 예뻐하고 사랑하였다. 공은 영조 33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다음 의금부(義禁府)에 들어가서 도사(都事)가 되었다가 빙고 별검(氷庫別檢)으로 전직되었고, 그 이듬해 9월에는 문과(文科)에 급제한 다음 병조 좌랑(兵曹佐郎)으로 말미암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승진되었으며, 12월에는 지방으로 나아가 경기도사(京畿都事)가 되었다가, 아버지의 연로함을 이유로 들어 상소를 올려서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해서 금성령(金城令)을 제수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특별히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임명되었고, 또는 교리에서 나아가 수원부(水原府)의 어사(御史)가 되어 번고(反庫)<sup>1)</sup>와 시재(試才)<sup>2)</sup>를 주관하였다. 10월에는 다시 홍문관으로 들어와서 교리가 되고 한학교수(漢學教授)와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을 겸임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또 부수찬(副修撰)으로서 사간원(司諫院)에 들어가 헌납(獻納)이 되었다. 부친상을 당했다. 복을 벗고 나서는 사헌부(司憲府)에 들어가 집의(執義)가 되었다가 사간원의 사간(司諫)으로 전직되었다.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승진되었고, 나아가 충청도의 시관이 되었으며, 관상감 측후관(觀象監測候官)으로 차

출되었다.

얼마 후에는 특별히 홍문관 응교(應敎)에 임명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과 동학교수(東學敎授)를 겸임하였다. 12월에는 또 교리로 말미암아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을 겸임하였다.

영조 41년에는 청연군주(淸衍郡主)의 가례도청(嘉禮都廳)을 맡은 공로로써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발탁,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임명되었다가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으로 전직되고 지제조(知製敎)를 겸임하였다. 호조 참의(戶曹參議)와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거쳐서 나아가 안변부사(安邊府使)가 되었다.

또 3년 뒤에는 병조(兵曹)의 참지와 참의를 차례로 거친 다음 나아가 충청도 관찰사가(忠淸道觀察使)가 되었다가 사건에 연루, 파직되어 돌아왔다. 뒤에 승정원 좌승지로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고, 한성부(漢城府)에 들어가서 우윤(右尹)이 되었으며, 공조 참판(工曹參判)과 호조 참판(戶曹參判)을 거쳐서 나아가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마침 큰 흉년이 들어서 53주(州)의 생민(生民)이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공은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그러자 영조 임금은 전교(傳敎)하기를 『호남 방백(湖南方伯)은 내가 제대로 적임자를 얻었다.』라고 하고는, 곧 표피(豹皮)를 하사해서 장려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내직으로 들어와서 승정원 도승지가 되었다가 사헌부 대사간으로 전직되고,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와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임하였다. 얼마 후에는 또 한성부 좌윤(左尹)으로서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전직되고,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와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을 겸임하였으며, 비변사(備邊司)와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로 차출되었다. 모친상을 당하여 몸이 상할 정도로 지나치게 슬퍼하였으므로 사대부들은 모두 그의 효성에 대해 칭찬하였다.

금상(今上)··· 正祖)이 즉위하자, 지평(持平) 이평(李枰)이 「공이 전에 호남에 있을 때 진곡(賑穀)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무고하여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1) 번고(反庫) ··· 창고에 있는 물건을 뒤적거리며 조사하는 일.  
2) 시재(試才) ··· 재예(才藝)를 시험해 보는 일.

고문하니, 공은 『오늘 저녁이 망부(亡父)의 기일(忌日)이니, 만일 운명하게 되면 지극히 바라던 소원을 오늘 이를 수 있을 것이오.』라고 답변하고, 안색이 전연 변하지 않았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채제공(蔡濟恭)이 정상을 자세히 적어서 올리니, 상(上)은 민망히 여기고 사형을 감하여 동래부(東萊府)로 유배시켰다. 공은 신축년(辛丑年) 10월 초 8일에 적소(謫所)에서 작고하였는데, 향년 56세였다. 그 이듬해 정월 19일에 충문공의 묘소 곁에 장사지냈고, 12월에 특명으로 복관(復官)시켰다.

공은 사람됨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였으며, 인자하고 후덕하였다. 남과 말할 때에는 화기애애하였고,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충성을 다했다. 공이 승지로 있을 적에는 성의를 다했다. 한번은 영조 임금이 부당하게 수레를 타고 궁궐을 나갔다. 그런데도 대신들은 허둥지둥 감히 그 부당함을 말하지 못했는데, 공만은 수레를 부여잡고 입이 닳도록 간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러자 영조 임금은 그에 감동하여 결국 환궁하였다.

그 후 영조 임금이 육상궁(毓祥宮)에 행차했을 때 탕약(湯藥)을 들지 않으니, 공은 승지로서 파직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궁중에 머물러있으면서 3일 동안 울어대며 탕약을 들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영조 임금은 하고하기를 『3일 동안 일관된 충성심은 오직 원모(元某) 같은 몇몇 사람에게서 볼 수 있겠으니, 그 성의가 가상하다.』고 하고는 특별히 한성부 우윤을 제수하였으니, 특이한 대우였던 것이다.

원배(元配)는 덕수 이씨(德水李氏)로 장례원 사평(掌隸院司評)을 지낸 준(浚)의 딸이고, 계배(繼配)는 청송 심씨(靑松沈氏)로 통덕랑(通德郎)을 지낸 탁(奭)의 딸이다.

1남을 두었으니, 이름이 재행(在行)이고, 소실이 2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재공(在恭)인데 일찍 죽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공은 동래(東萊)에 유배가 있을 적에 근신하며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후 뱃기를 청하는 빈객(賓客)이 있을 경우에는 공은 「죄인인 몸이 어찌 감히 당세 군자들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사절하고 끝내 한 명의 빈객도 보지 않았다.』고 하니, 어찌 대단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겸 판의금부사(兼判義禁府事) 이조 판서(吏曹判書) 지경연사(知經筵事)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춘추관성균관사(知春秋館成均館事) 규장각 검교제학(奎章閣檢校提學) 세손우빈객(世孫右賓客) 황경원(黃景源)은 글을 짓는다.

전면은 송(宋) 나라 소식(蘇軾)의 글씨를 집자하고,

음기(陰記)는 당(唐) 나라 안진경(顏真卿)의 글씨를 집자하였다.